친환경 환경부

본 보고서의 표지는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2024
서울가족보고서

가족센터 서울시가족센터 SEOUL FAMILY CENTE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 서울가족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시가족센터 SEOUL FAMILY CENTER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SN 3022-4179 (Online)

SEOUL MY SOUL

2024 서울가족보고서

2024 Seoul Family Report

서울특별시

2024
서울가족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획·편집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과
집필진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신하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지훈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강주현 (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과 석사과정)
	김민식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4. 12.
편집 · 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SN	3022-4179 (Online)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2024 서울가족보고서 사용설명서

❶ 이 보고서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서울가족서베이는 서울가족의 현주소를 포착하고, 가족 관련 이슈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며, 서울 시민의 가족 정책 요구도 및 인지도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2018년 시작되어 올해가 7번째 조사입니다. 시계열적 분석 결과는 2023년에 발표된 서울가족보고서를 참고하십시오.

❷ 『2024 서울가족보고서』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문항별 결과 요약 및 그래프

[2024 서울가족서베이 클로즈업]
심층 분석 결과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연구진의 제언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주요 가족 정책 소개

[해외 사례]

❸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가족서베이는 서울 시민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 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할당 표집을 사용하였고,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하위 집단 간 비교는 차이검증(티 검증, 일원 분산 분석, 카이 제곱 검증 등)을 실시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만 차이를 기술하였습니다(예: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 했다'라고 기술했다면, 티 검증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의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대부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설문 문항에 따라 응답 대상이나 분석 대상이 상이합니다. 집단 간 비교에 활용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조사 항목별로 다르며, 집단 분류 방식도 문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목별 분석대상 및 대상자 수는 그래프 하단에 명시하였습니다. 단, 보고서 도입부에 제시된 응답자 특성 표를 통해 하위 집단별 응답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했기 때문에 세부 항목의 수치를 더한 값과 전체 합계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올림으로 인해 구성비 합계가 100을 초과하거나 100 미만일 수 있습니다.

❹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가족센터(02-318-8168)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가족보고서

2024 Seoul Family Report

2024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1장 탄생 응원

- **부모됨에 대한 태도 및 의향, 남녀 차이 두드러져**
  - 20-40대 무자녀 여성, 부모가 될 의향 남성보다 적어
  -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 여성은 낮은 양육 자신감, 남성은 경제적 부담
-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와 자녀를 둘 이상 갖지 않으려는 이유 달라**
  -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 부모됨 및 자녀 양육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 **자녀를 (더) 가질 의향, 경제적 여건 및 돌봄 지원이 핵심**
  - 풍요로운 경제적 여건은 부모됨 의향을 높일 가능성
  - 자유로운 시간 활용, 최상의 아동 돌봄 인프라는 둘째를 가질 의향을 높일 가능성
- **출산율 향상 vs. 인구 감소 적응, 서울 시민 의견 팽팽**
  -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 엇갈려
  -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비슷하게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2장 부모 응원

- **부모가 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
  - 유자녀 집단의 자녀관이 더 긍정적
- **자녀를 키워본 시민, 주변의 육아친화 수준에 대해 무자녀 시민보다 호의적인 평가**
  - 유자녀 집단이 무자녀 집단보다 서울시와 한국 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한다고 인식
  - 유자녀 집단이 무자녀 집단보다 서울시와 자신의 동네가 육아 친화적이라고 생각
- **현금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정책 원해**
  - 현금 지원보다 돌봄서비스 정책 선호
  - 부모의 직접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가장 원해
  - 친인척 돌봄 지원이나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 선호

3장 부부 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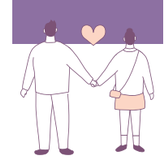
-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 vs. 현실, '경제적 안정', '대화, 소통', '성적 만족', '친밀감, 사랑' 순으로 격차가 커**
  - 40대 이상 부부의 결혼 생활 기대 충족 수준 상대적으로 낮아
- **가장 희망하는 부부 관계 교육주제는 대화법 및 갈등 관리**
  - 아내는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부부의 재무관리', '평등한 부부 관계'에 더 큰 관심
  - 남편은 '부부의 성(性)'에 대한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아
- **평등한 성 역할 태도, 그러나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성별 불평등 여전**
  - 가사 및 자녀 돌봄, 아내의 부담이 더 크고 분담 공평성은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
  -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가사일 부담에 대한 성별 차이 두드러져

4장 가족 응원

- **가족 생활 행복 수준, 10점 만점에 7.1점**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시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족 생활 더 행복
- **저출생 대응 vs. 고령화 대응, 아동 정책 vs. 노인 정책, 모두 필요해**
  - 저출생 대응 정책과 고령화 대응 정책, 아동돌봄과 노인 돌봄, 아동친화환경과 노인 친화 환경, 비슷하게 필요하다는 의견
  - 아동 및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더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
- **아동돌봄, 노인 돌봄의 책임에 대한 인식 달라**
  - 아동돌봄은 부모와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 노인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5장 청년 응원

[2024 특별기획]



- **서울 청년, 개인 생활이 연애, 가족형성, 부모됨보다 중요**
  - 여성 청년이 남성 청년보다 개인 생활 더 중시
  - 연인 관계에서의 경험은 긍정적
- **주관적 계층에 따라 청년의 삶 엇갈려**
  - 주관적 계층이 높은 청년이 낮은 청년보다 연애 중인 비율이 높고, 부모의 지원 기대
  - 주관적 계층이 낮은 청년은 덜 행복, 더 우울
- **지방 성장 서울 청년, 수도권 성장 청년에 비해 주거비 부담, 주거 환경 문제 경험**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자료: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hmpg/chpo/bsip/contPageDetail.do?conts_no=11F42D7A5406855FE063A60221626438

탄생 응원

예비 양육자 응원

- 난임 부부 지원
-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 서울시 주요 시설 활용한 결혼식 사업
-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

임산부 응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
- 출산맘 몸·마음 토탈케어
- 첫 만남 이용권
- 다태아 안심 보험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가정돌봄공백 지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 강화

-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 운영
- 초등생 방과후 긴급 일시 돌봄 강화
- 거점형 키움센터 내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 초등돌봄시설 공공성 강화(지역아동센터)

모아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 질 제고

-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120개 공동체 확대
- 365일! 24시간! 모든 영유아 긴급 보육 지원
-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
- 서울형 0세 전담반 어린이집 운영
- 우리 집 앞 고품격 공보육 시설 확충

육아응원
돌봄·주거 인프라

신혼·양육친화 주거 지원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건립
- 아이사랑홈 인증제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아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 양육코칭센터
- 어린이집 석식 지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중식 무료제공
-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 지원

기반조성

-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만능키 운영
- 출산양육행복 성과지표 개발
- 출산양육 가치 확산: 탄생 응원 서울축제,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 캠페인

육아응원
양육 친화적 일·환경

서울형 키즈 카페 등 양육 친화 외출 인프라 조성

- 서울형 키즈 카페 조성
- 서울키즈(Kids)오케이존 지정
-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 가족 화장실 조성
-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 엄빠 행복 문화 프로젝트
- 서울장난감도서관 확대
-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 우먼업 구직 지원금
- 우먼업 인턴십
- 우먼업 고용 장려금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

- 서울형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 저출생 극복 ESG지표 도입 추진

부모 급여 등 양육자 경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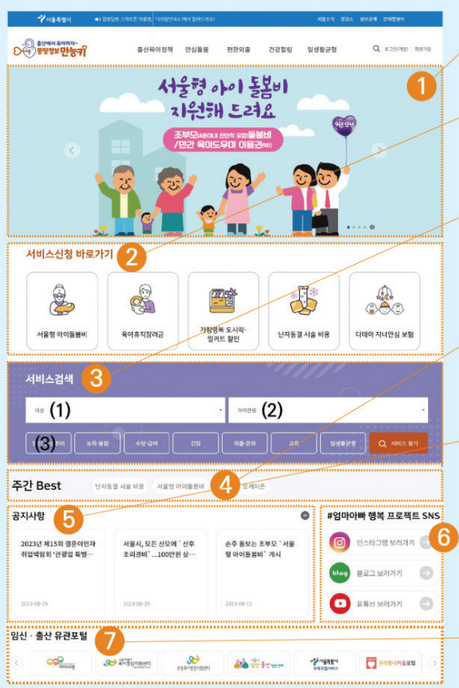
- 부모 급여 지원
- 아동 수당 지원

한눈에 보는 생애주기별 서울시 출산·양육 맞춤서비스

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서울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보를 한눈에 조회
- 결혼 여부, 서비스 대상, 자녀 연령별,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 검색
-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다양한 서비스 신청
- 사업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기능 제공: 가구 현황, 거주 지역, 관심 분야 등을 입력해 두면 문자메시지로 정책 정보 발송



- **대표사업 홍보 메인 배너** *클릭시 사업소개로 이동
- **만능키로 신청하는 5개 사업 아이콘 표출** *클릭시 신청페이지로 이동
- **맞춤형 서비스 검색 기능** *(1)대상+(2)아이연령+(3)분야 3가지 조합하여 서비스찾기 클릭시 맞춤형 사업 안내
- **한 주간 이용자가 가장 많이 클릭한 Best 사업명 표출** *클릭시 사업소개로 이동
- **출산육아 관련 각종 행사, 축제, 서비스 신청, 모집공고 등 공지사항 게시** *클릭시 게시글로 이동
-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SNS** *클릭시 SNS로 이동
- **임신출산 유관기관 배너 표출** *클릭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

※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

2024 서울가족서베이 소개

2024 서울가족보고서는 <2024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를 핵심으로 합니다.
서베이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서울가족서베이> 개요

조사 대상	표집 방법	조사 방법	조사 기간	조사 업체	표본 크기
20-64세 (1960-2004년생) 서울시 거주자	성별 X 연령별 X 거주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표집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2024. 7. 8. - 2024. 7. 14.	㈜마크로밀 엠브레인	1,574명

- 표집 방법, 조사 방법, 조사 업체는 2018년부터 7년간 동일함

<표 1>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특성

		전체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응답자 전체		1,574	100.0	809	100.0	765	100.0	331	100.0	347	100.0	344	100.0	552	100.0
거주권역	도심권	85	5.4	44	5.4	41	5.4	18	5.4	20	5.8	18	5.2	29	5.3
	동북권	473	30.1	242	29.9	231	30.2	100	30.2	99	28.5	100	29.1	174	31.5
	서북권	198	12.6	106	13.1	92	12.0	45	13.6	42	12.1	41	11.9	70	12.7
	서남권	481	30.6	242	29.9	239	31.2	106	32.0	112	32.3	99	28.8	164	29.7
	동남권	337	21.4	175	21.6	162	21.2	62	18.7	74	21.3	86	25.0	115	20.8
배우자 유무	있음 (기혼)	754	47.9	380	47.0	374	48.9	11	3.3	104	30.0	204	59.3	435	78.8
	없음	820	52.1	429	53.0	391	51.1	320	96.7	243	70.0	140	40.7	117	21.2
자녀 유무	유자녀	690	43.8	344	42.5	346	45.2	3	0.9	53	15.3	190	55.2	444	80.4
	무자녀	884	56.2	465	57.5	419	54.8	328	99.1	294	84.7	154	44.8	108	19.6
취업여부	취업	1,215	77.2	588	72.7	627	82.0	253	76.4	289	83.3	272	79.1	401	72.6
	미취업	359	22.8	221	27.3	38	18.0	78	23.6	58	16.7	72	20.9	151	27.4
주관적 계층	상 (상상+상하)	237	15.1	121	15.0	116	15.2	52	15.7	60	17.3	56	16.3	69	12.5
	중 (중상+중하)	1,268	80.6	656	81.1	612	80.0	260	78.5	275	79.3	275	79.9	458	83.0
	하 (하상+하하)	69	4.4	32	4.0	37	4.8	19	5.7	12	3.5	13	3.8	25	4.5

<표 2> 2024 서울가족서베이 유자녀 응답자 특성 (2장 부모 응원)

		유자녀 전체		자녀 연령대							
				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명	%	명	%	명	%	명	%	명	%
유자녀 전체		690	100.0	77	100.0	90	100.0	112	100.0	411	100.0
성별	여성	344	49.9	35	45.5	39	43.3	47	42.0	223	54.3
	남성	346	50.1	42	54.5	51	56.7	65	58.0	188	45.7
연령	20-29세	3	0.4	3	3.9	-	-	-	-	-	-
	30-39세	53	7.7	38	49.4	15	16.7	-	-	-	-
	40-49세	190	27.5	34	44.2	71	78.9	68	60.7	17	4.1
	50세 이상	444	64.3	2	2.6	4	4.4	44	39.3	394	95.9
취업여부	취업	521	75.5	64	83.1	75	83.3	81	72.3	301	73.2
	미취업	169	24.5	13	16.9	15	16.7	31	27.7	110	26.8
배우자 유무	있음 (기혼)	632	91.6	73	94.8	86	95.6	104	92.9	369	89.8
	없음	58	8.4	4	5.2	4	4.4	8	7.1	42	1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5	59.3	54	74.0	63	73.3	55	52.9	203	55.0
	맞벌이외	257	40.7	19	26.0	23	26.7	49	47.1	166	45.0
주관적 계층	상 (상상+상하)	34	4.9	4	5.2	2	2.2	5	4.5	23	5.6
	중 (중상+중하)	590	85.5	65	84.4	81	90.0	97	86.6	347	84.4
	하 (하상+하하)	66	9.6	8	10.4	7	7.8	10	8.9	41	10.0

※ 자녀 연령대(첫째 자녀 기준):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를 의미함

<표 3>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혼지위별 응답자 특성 (3장 부부 응원)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응답자 전체	
		(기혼)		비혼(미혼)		이혼, 별거, 사별			
		명	%	명	%	명	%	명	%
응답자 전체		754	100.0	745	100.0	75	100.0	1,574	100.0
성별	여성	380	50.4	383	48.6	46	61.3	809	51.4
	남성	374	49.6	362	51.4	29	38.7	765	48.6
연령	20-29세	11	1.5	320	43.0	-	-	331	21.0
	30-39세	104	13.8	236	31.7	7	9.3	347	22.1
	40-49세	204	27.1	119	16.0	21	28.0	344	21.9
	50세 이상	435	57.7	70	9.4	47	62.7	552	35.1
부모 생존 여부	모두 생존	349	46.3	606	81.3	33	44.0	988	62.8
	부 또는 모 사망	242	32.1	110	14.8	29	38.7	381	24.2
	모두 사망	163	21.6	29	3.9	13	17.3	205	13.0
자녀 유무	유자녀	632	83.8	2	0.3	56	74.7	690	43.8
	무자녀	122	16.2	743	99.7	19	25.3	884	56.2
결혼지속연수	0-4년	82	10.9						
	5-9년	86	11.4						
	10-14년	89	11.8						
	15-19년	91	12.1						
	20-24년	102	13.5						
	25-29년	108	14.3						
	30년 이상	196	2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9	60.9						
	맞벌이 외	295	39.1						

<표 4> 2024 서울가족서베이 청년 응답자 특성 (5장 청년 응원)

		청년 전체 20-39세로 결혼한 적 없는 무자녀		성별				연령			
				여성		남성		20대		30대	
		명	%	명	%	명	%	명	%	명	%
청년 전체		554	100.0	289	100.0	265	100.0	319	100.0	235	100.0
거주권역	도심권	34	6.1	18	6.2	16	6.0	18	5.6	16	6.8
	동북권	153	27.6	81	28.0	72	27.2	94	29.5	59	25.1
	서북권	72	13.0	39	13.5	33	12.5	43	13.5	29	12.3
	서남권	188	33.9	96	33.2	92	34.7	104	32.6	84	35.7
	동남권	107	19.3	55	19.0	52	19.6	60	18.8	47	20.0
주관적 계층	중상 이상 (상상+상하+중상)	210	37.9	100	34.6	110	41.5	139	43.6	71	30.2
	중하 이하 (중하+하상+하하)	344	62.1	189	65.4	155	58.5	180	56.4	164	69.8
성장 지역	서울·경기	442	79.8	224	77.5	218	82.3	257	80.6	185	78.7
	서울·경기 외	112	20.2	65	22.5	47	17.7	62	19.4	50	21.3
취업여부	취업	439	79.2	228	78.9	211	79.6	242	75.9	197	83.8
	미취업	115	20.8	61	21.1	54	20.4	77	24.1	38	16.2
부모 생존여부	모두 생존	497	89.7	257	88.9	240	90.6	293	91.9	204	86.8
	한 명 이상 사망	57	10.3	32	11.1	25	9.4	26	8.2	31	13.2
연인 유무	있음	249	45.0	121	41.9	128	48.3	151	47.3	98	41.7
	없음	305	55.1	168	58.1	137	51.7	168	52.7	137	58.3

Contents

PART 1

1. 부모됨 의향 및 이유 p.18

- 서울시 저출생 현황 ····· 18
- 부모됨 의향 ····· 19
-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 20
-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 21
-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 26
- 부모가 된 이유 ····· 30
- 무자녀 부부 유형 ····· 33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p.34

- 부모가 되는 것 vs. 개인 생활 ····· 34
- 부모됨과 사회 환경 인식 ····· 35
- 내가 부모가 된다면 ····· 35
-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 36
- 이상적 자녀수 ····· 37
- 무자녀, 비혼 출산,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한 태도 ····· 37
- 난자 냉동보관 의향 ····· 39

3.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및 이유 p.42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 42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 43
- 이상적인 여건과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 45

4.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쟁점 p.48

-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 인식 ····· 48
-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인지도 ····· 49
- 출산율 향상 vs. 인구 감소 적응 ····· 49
- 내국인 출산율 향상 vs. 외국인 이주 확대 ····· 50
-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 51
- 비혼(미혼) 동거 커플의 출산 지원 vs. 청년의 결혼 지원 ····· 51

PART 2

1.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쟁점 p.54

-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 54
- 현금 지원 vs. 돌봄서비스 제공 ····· 55
- 친인척 돌봄 지원 vs.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 56
- 공공 서비스 제공 vs.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지원 ····· 57
- 자녀 양육 가족 지원 vs. 모든 가족 지원 ····· 59
- 아동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 ····· 60

2.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p.62

- 부모 역할 응원: 서울시, 한국 사회, 배우자, 주변인 ····· 62
- 육아친화도 인식: 서울 및 지역사회 ····· 64
-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선호 및 이유 ····· 67
- 부모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 69
- 긍정적, 부정적 자녀관 ····· 70
- 부모됨의 득과 실 ····· 73

3. 부모로서의 경험 p.74

- 부모로서의 행복 및 후회 ····· 74
- 부모로서의 능력 및 노력 ····· 75
-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 역할의 어려움 ····· 77
- 자녀와의 갈등 ····· 80
- 부부의 부모 역할 분담 ····· 81
- 부모 교육 주제별 요구도 ····· 82
- 성인 자녀와의 친밀감 ····· 85
- 성인 자녀의 부모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 85

Contents

PART 3

1. 결혼 생활 및 부부 관계 p.88

-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및 충족 수준 ····· 88
-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 91
-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 92
-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 92
- 결혼에 대한 만족 및 후회 ····· 93
-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노력: 본인 및 배우자 ····· 94
- 이혼 고민 경험 ····· 96
-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 ····· 98

2.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p.100

- 가사 및 돌봄 분담 ····· 100
-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 ····· 101
- 가정 내 성 역할 태도 ····· 102

3. 결혼에 대한 태도 p.104

- 결혼에 따르는 이점 ····· 104
- 결혼에 따르는 부담 ····· 107
-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의미 ····· 110
- 분거 부부, 이혼, 재혼, 졸혼에 대한 태도 ····· 111

PART 4

1. 일과 가족 p.116

- 일 vs. 개인 생활 vs. 가족 생활 ····· 116
-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 118
-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 118

2. 전반적 가족 관계 p.120

- 가족의 속성 ····· 120
- 가족 생활 행복 ····· 121
- 부모-자녀 공유시간 충분성 ····· 122
- 부모 부양 및 돌봄에 대한 태도 ····· 123

3. 가족서비스 이용 p.126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 126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 126
- 가족센터 인지도 ····· 127
- 가족센터 이용 의향 ····· 128
-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 128

4. 미래지향적 가족 정책: 방향 및 쟁점 p.132

- 저출생 대응 vs. 고령화 대응 ····· 132
- 아동돌봄 가족 지원 vs. 노인 돌봄 가족 지원 ····· 133
-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vs.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 134
- 생애주기별 가족 정책의 필요도 ····· 137
- 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 가족 지원의 공평성 ····· 139
- 가족의 책임 vs. 국가의 책임 ····· 141

Contents

PART 5
[2024 특별기획]

1. 연애 및 연인 관계 **p.146**

- 연애 vs. 개인 생활 ····· 146
- 연애여부 및 연애의향 ····· 147
- 연인 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 148
- 연인 관계 평등 수준 ····· 149
-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 ····· 149
-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 150
- 연인과의 이별 고민 경험 ····· 150
- 연인 관계 교육 주제별 요구도 ····· 151

2. 결혼 의향 및 결혼에 대한 태도 **p.154**

- 가족을 꾸리는 것 vs. 개인 생활 ····· 154
- 결혼 의향: 일반적 결혼 의향,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 ····· 155
- 결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 ····· 156
- 결혼에 대한 주변의 기대: 부모, 연인, 친구 ····· 158
-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 159

3.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의 태도 **p.162**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 162
- 비혼 동거 의향 ····· 162
- 혼전 성관계, 동성 결혼, 국제 결혼에 대한 태도 ····· 163
- 1인가구 공동체,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태도 ····· 164

4. 청년의 웰빙 및 부모 자녀 관계 **p.168**

-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168
- 주관적 계층: 현재 및 미래 전망 ····· 170
- 행복 및 우울 ····· 171
- 일-생활 갈등 ····· 172
- 부모의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 174
- 부모의 결혼 비용 지원 가능성 ····· 175
- 청년 자녀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 175

부록

부록 1. 2024 서울가족 현황 **p.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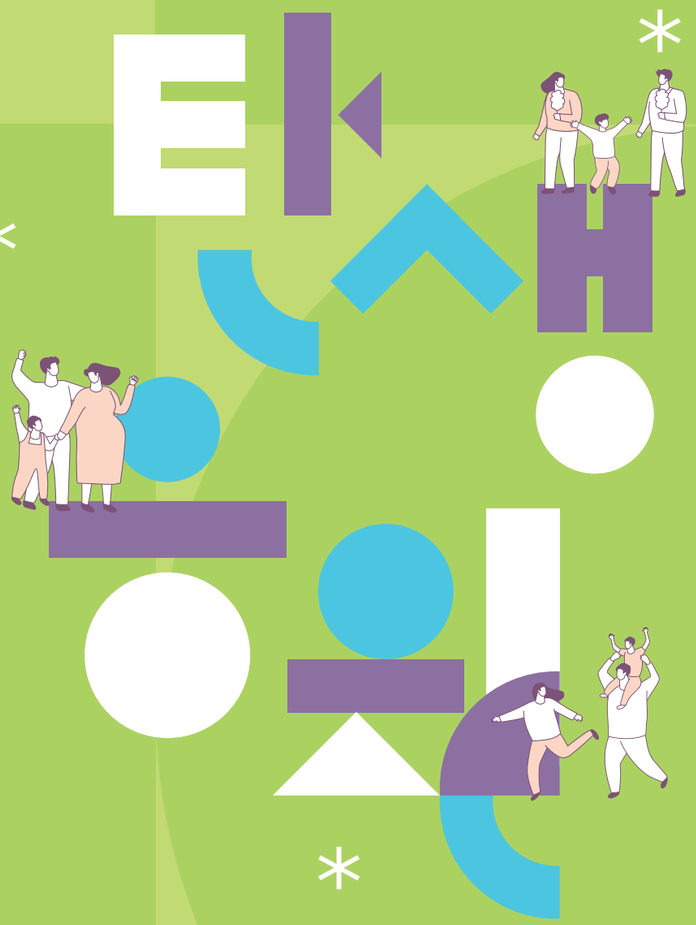
- 인구 및 가구 ····· 178
- 혼인 및 신혼부부 ····· 180
- 맞벌이 가구 ····· 182
- 한부모가구 ····· 183
- 비혼모(부), 청소년모(부), 조손 가구 ····· 186
- 다문화 가구 ····· 189
- 수급 가구 ····· 194
-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 195
- 비혈연 가구 ····· 196

부록 2. 2015-2023 서울가족보고서 **p.198**

부록 3.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p.199**

PA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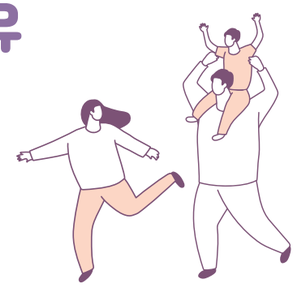
결혼



CONTENTS

1. 부모됨 의향 및 이유 ····· 18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 34
3.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및 이유 ····· 42
4.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쟁점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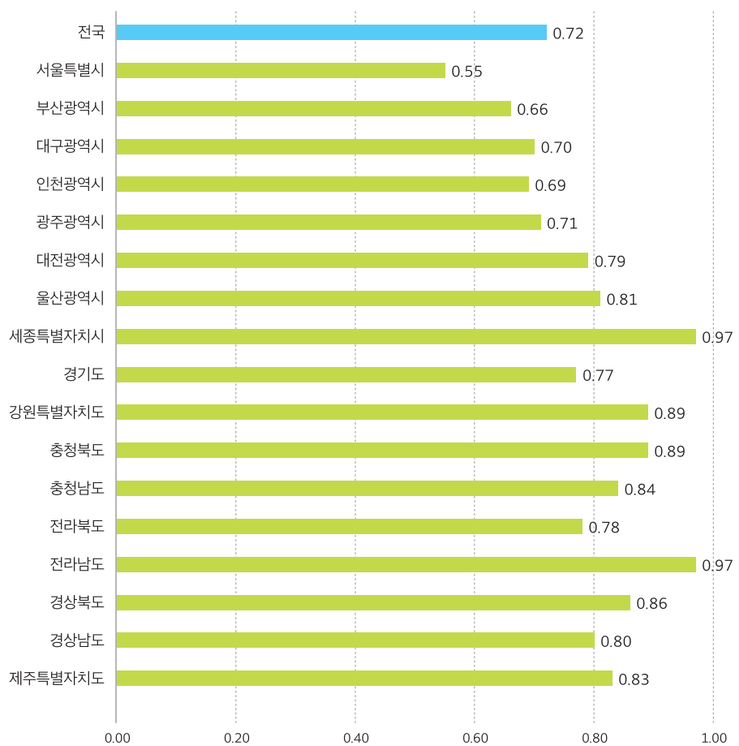
1 부모됨 의향 및 이유



서울시 저출생 현황

• **시도별 합계출산율**

▸ 서울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통계청, 2024)은 **0.5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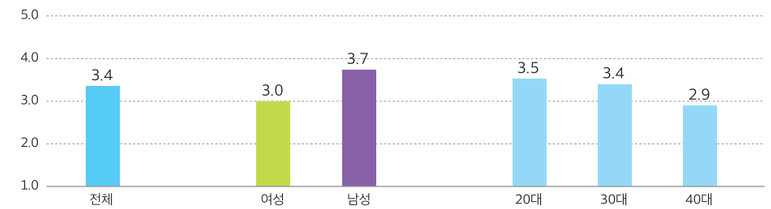
단위(가임여성 한 명당 명)

주: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연령집단별(5세 간격) 출산율 자료를 모두 더하여 산출함
자료: 통계청(2024). 인구동향조사.

부모됨 의향

•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이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있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남성**(3.7점)이 여성(3점)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있었으며 **남녀 차이가 컸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5점) 및 **30대**(3.4점)가 40대(2.9점)보다 부모가 될 의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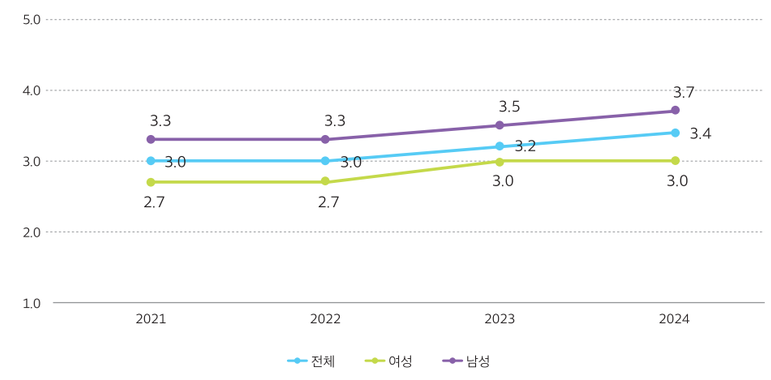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884명)

•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전체(2021-2024년)**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이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범위: 1-5점)은 2021년 및 2022년에는 평균 3.0점이었고, 2023년에는 평균 3.2점, 2024년에는 평균 3.4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남성**의 경우 2021년 및 2022년의 평균 3.3점에 비해 2024년에는 평균 3.7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여성**은 2021년 및 2022년에 평균이 2.7점이었고, 2023년 및 2024년에는 평균 3.0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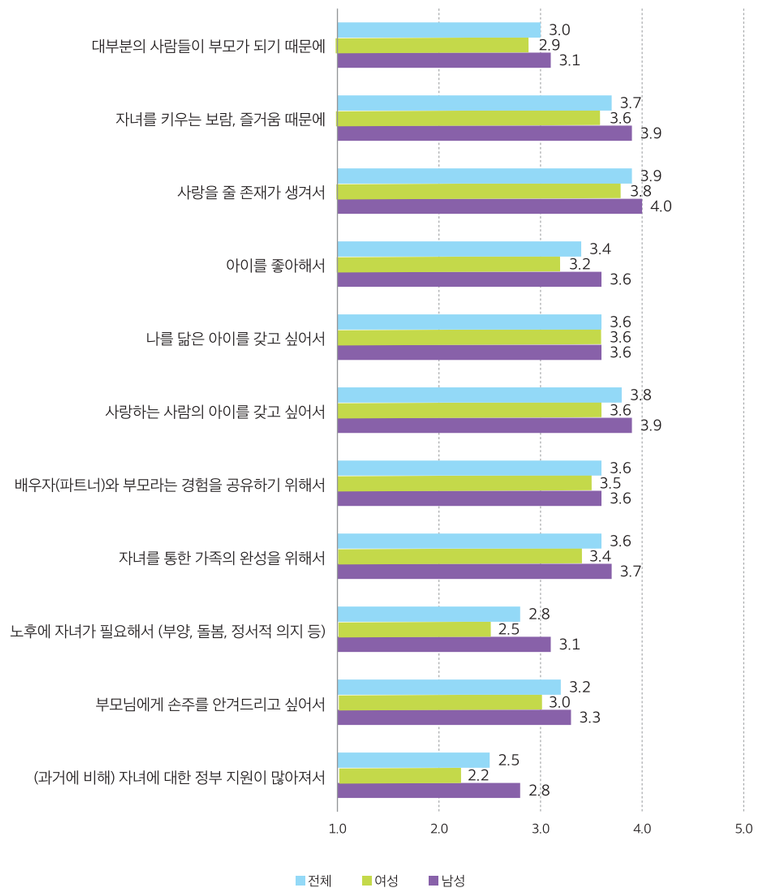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2021년 여성 413명, 남성 381명; 2022년 여성 440명, 남성 402명; 2023년 여성 412명, 남성 381명)
주: 2021년은 '자녀를 낳을 의향', 2022년은 '내가 부모가 될 의향', 2023년 및 2024년은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에 대한 동의 수준임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전체 및 성별**

-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상이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범위: 1-5점)로는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평균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평균 3.8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평균 3.7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로 응답의 양상이 비슷**하였음
-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의 평균이 여성의 평균보다 높아서**, 남성이 제시된 진술에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다만 '나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배우자(파트너)와 부모라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의 항목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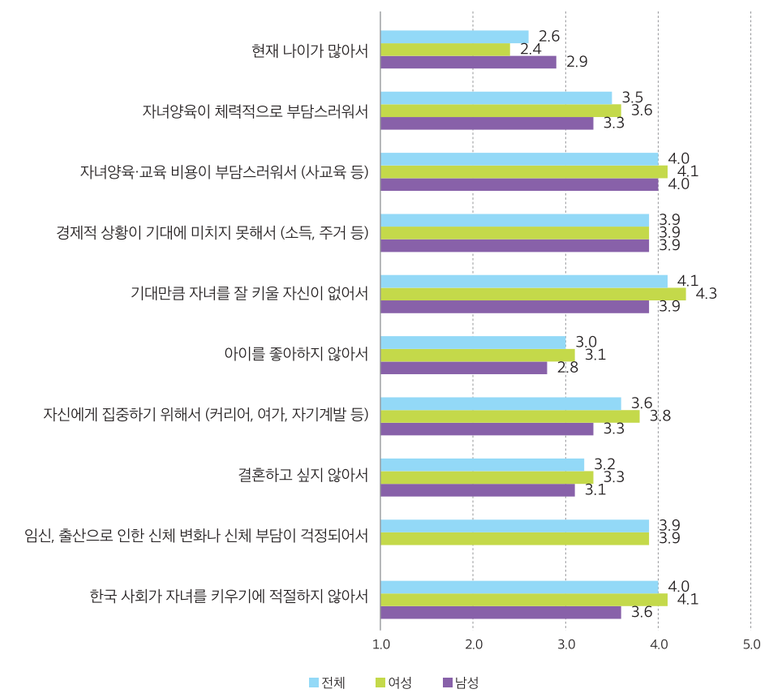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이고 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247명, 남성 324명)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및 성별**

-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하이고 자녀가 없는 20-4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이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범위: 1-5점)로는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평균 4.1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평균 4점),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평균 4점), **'경제적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소득, 주거 등)'**(평균 3.9점)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로 **성별 평균 차이가 큰** 항목은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여성 4.1점, 남성 3.6점),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커리어, 여가 자기 계발 등)'**(여성 3.8점, 남성 3.3점),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여성 4.3점, 남성 3.9점) 등이었음
- 즉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기대만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부모됨 의향이 없거나 보통이었음
-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 '경제적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소득, 주거 등)',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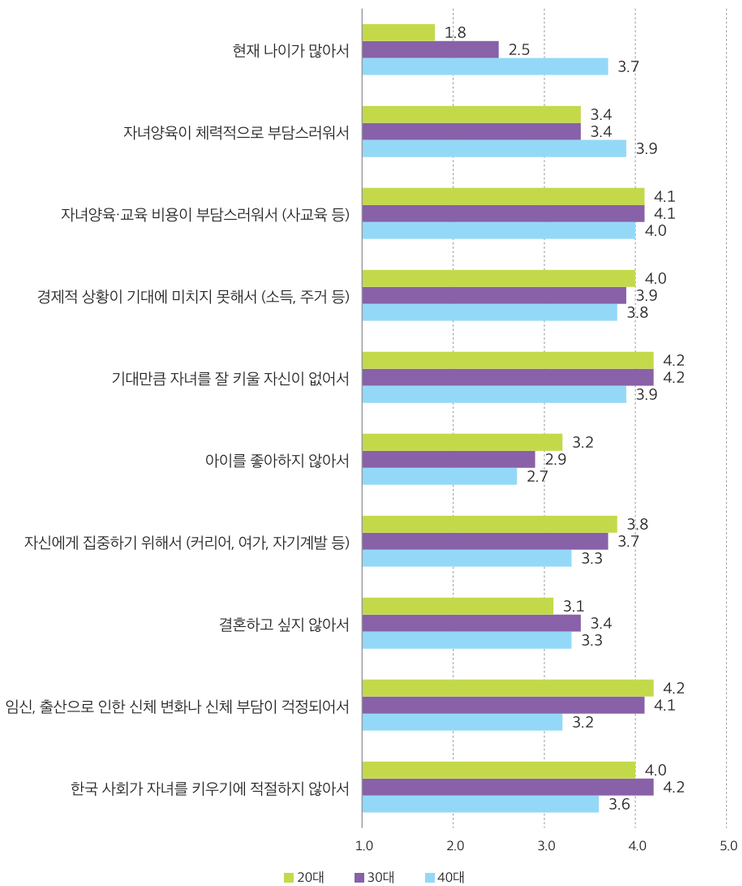
단위(점)

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결혼한 적 없는 여성 213명, 남성 118명,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244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자녀가 없는 비혼(미혼)자 또는 무자녀 부부인 20-49세 여성 244명, 남성 140명)

• 부모됨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 **20대 남녀**는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4.2점)의 평균이 높았음. 여성만 응답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20대**(4.2점)의 평균이 높았음
- **30대 남녀**는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4.2점), **40대 남녀**는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경제적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소득, 주거 등)',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결혼한 적 없는 20대 134명, 30대 116명, 40대 81명의 응답임.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중 20대 92명, 30대 93명, 40대 59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자녀가 없는 비혼(미혼)자 또는 무자녀 부부인 20대 139명, 30대 144명, 40대 1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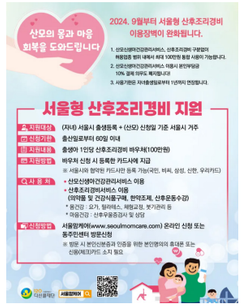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맘케어: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 이용기간 연장 및 제한 완화

2023년 9월 도입된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는 서울 거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생아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 산후 조리경비서비스: 산모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 등을 구매하거나 요가, 필라테스, 체형교정, 붓기 관리 등 산후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 조리경비를 각각 최대 50만 원씩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2024년 9월부터는 서비스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적용되었던 10%의 본인부담금 결제 의무도 폐지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후 조리경비의 경우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2024년 9월부터는 두 서비스의 사용 기한이 통합되고 아동 출생 후 1년까지로 연장되었다.



자료: 1) 경향신문(2024. 8. 19.). "서울 산모가 받는 '산후 조리경비' 100만원…기간 늘고 칸막이 없애"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408191115001#c2b
2) 서울맘케어시스템.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https://www.seoulmomcare.com/notice/pcGuide.do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성 역할 기대 재조정 등 문화적 측면의 변화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서 핵심

2024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는 남녀 모두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 등으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와 같은 심리·사회적 이유를 주로 들었던 반면, 남성은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 '경제적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와 같은 경제적 이유를 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돌봄책임자,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전통적 성 역할 기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부모됨을 원하지 않는 배경에는 주로 여성에게 부여되는 주양육자 역할에 따르는 부담감과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의 현실이 있었다. 반면 남성이 부모됨을 원하지 않는 배경에는 생계부양자 역할에 따르는 부담감, 자녀 양육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전통적 성 역할 기대 등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요인이 저출생의 중요한 배경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2024 서울가족서베이의 결과는 앞으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측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고 생계부양은 남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 역할 기대를 재조정하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 돌봄 및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을 성별에 관계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해 / 외 / 사 / 례

UN Women의 HeForShe 캠페인!

2014년 UN Women이 시작한 HeForShe 캠페인은 남성이 성평등 운동에 참여하고 남녀 모두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0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HeForShe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HeForSheAtHome 캠페인은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며 남성들이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장려하였다.

HeForShe Launches Global #HeForSheAtHome Campaign

자료: HeForShe(2020. 4. 15.). "HeForShe Launches Global #HeForSheAtHome Campaign"
https://www.heforshe.org/en/heforshe-launches-global-heforsheathome-campa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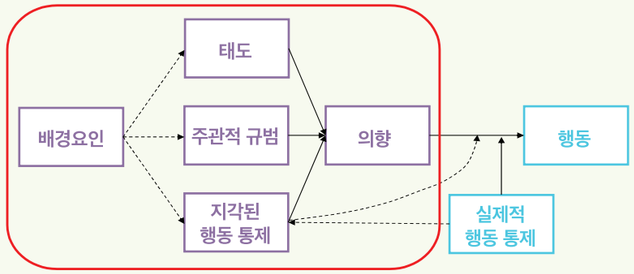
2024
서울가족 글로즈업

누가 부모가 될 의향이 더 있을까?: 계획된 행동 이론 적용

부모됨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인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 Klobas, 2013)에 근거하여 부모됨 의향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의향에 의해 결정되며, 의향은 실제 행동을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고).

- **태도: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
- **주관적 규범: 주변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대 또는 사회적 압력**
- **지각된 행동 통제: 특정 행동을 쉽게 또는 어렵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림 1> 계획된 행동 이론 모형



주: Ajzen & Klobas(2013)의 Figure 1(p. 206)을 재구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빨간색 박스 처리된 부분을 심층 분석에 적용하였음
자료: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토대로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40대 여성과 남성이 부모가 될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40대 무자녀 비혼(미혼) 여성>

배경요인	☑ 연령이 낮을수록
	☑ 교육연수가 길수록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덜 동의할수록
태도	☑ 긍정적 자녀관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	☑ 본인 부모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 자녀 양육 시 부모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 서울이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할수록

→ 여성의 부모됨 의향이 더 있었음

<20-40대 무자녀 비혼(미혼) 남성>

배경요인	☑ 연령이 낮을수록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덜 동의할수록
태도	☑ 긍정적 자녀관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규범	☑ 친구들이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 남성의 부모됨 의향이 더 있었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성별로 부모됨 의향과 관련 있는 요인이 달라

서울가족서베이 연구팀은 2023년 및 2024년 보고서를 통해 부모됨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 **2023년 분석결과:** 가치관 요인(성 역할 태도, 긍정적·부정적 자녀관) 및 경제적 요인(소득,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부모됨 의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
- **2024년 계획된 행동 이론 적용 분석결과:** 성별로 다른 양상
  - 주관적 규범: 여성은 본인 부모가, 남성은 친구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권장할수록 부모됨 의향이 더 있었음
  - 지각된 행동 통제: 여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원(자녀 양육 시 부모의 지원 가능성, 서울이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는 인식)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남성은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됨 의향이 더 있었음

2024년 분석결과는 여성과 남성이 부모됨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이유에서는 성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는 성차가 두드러졌던 것과도 연결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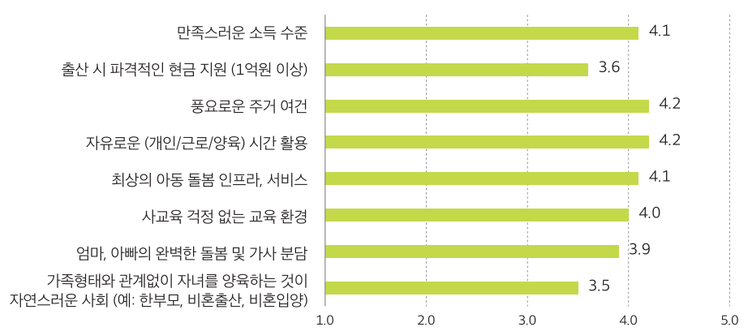
부모됨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자원과 현실적인 제약,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출생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전체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에게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고 8가지 상황(범위: 1-5점)을 제시하였음
- **'자유로운(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평균 4.2점), **'풍요로운 주거 여건'**(평균 4.2점), **'최상의 아동돌봄 인프라, 서비스'**(평균 4.1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평균 4.1점),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평균 4점)의 평균이 높은 편이었음
-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1억 원 이상)'**은 평균 3.6점으로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았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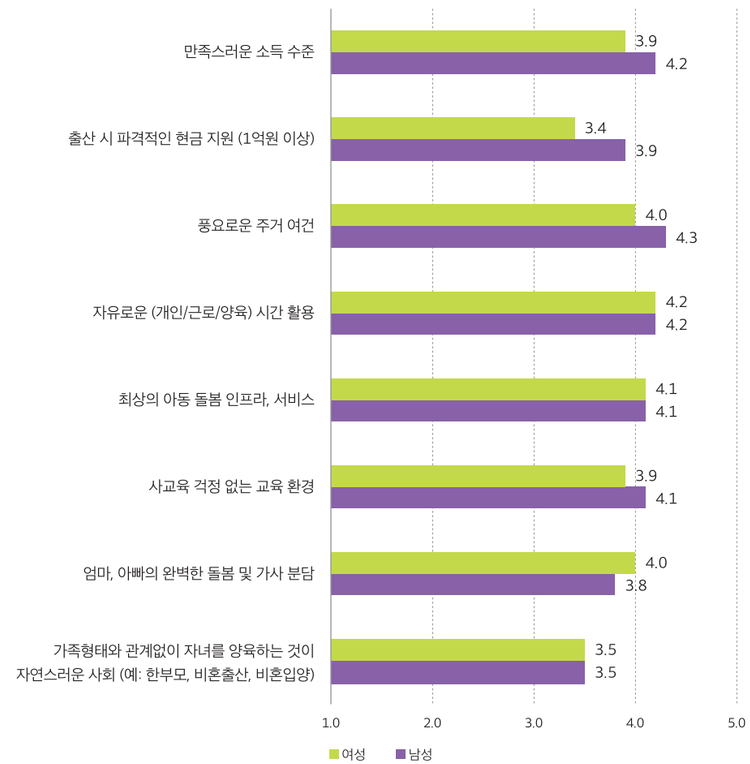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776명)

•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성별

- 성별로 **여성**은 **'자유로운(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4.2점), **남성**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4.3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은 항목은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여성 4점, 남성 3.8점)이었음
- **남성**의 평균이 여성에 비해 높은 항목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여성 4점, 남성 4.3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여성 3.9점, 남성 4.2점),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1억 원 이상)'**(여성 3.4점, 남성 3.9점)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었음
-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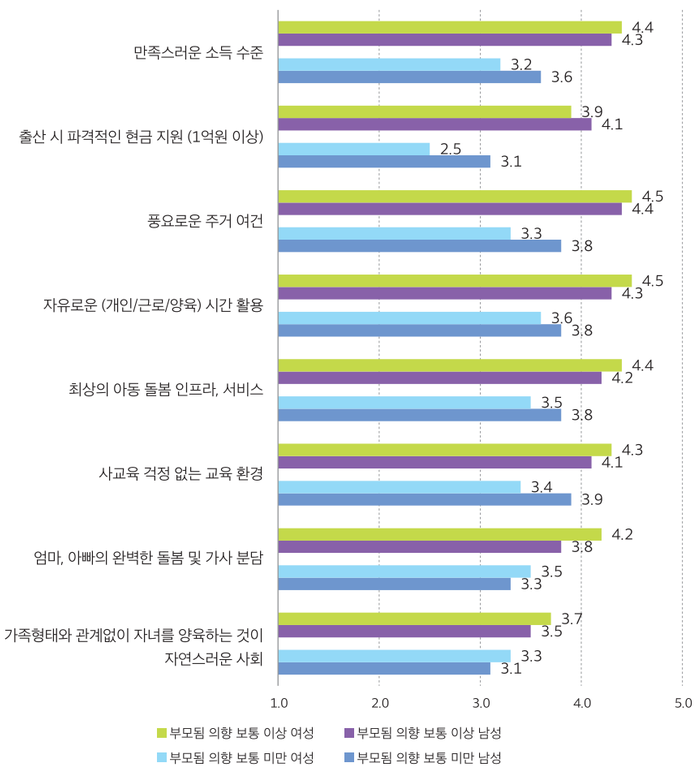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02명, 남성 374명)

•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부모됨 의향 및 성별

- **부모됨 의향 유무**에 따른 평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1억 원 이상)'**(부모됨 의향 보통 이상 4점, 부모됨 의향 보통 미만 2.7점)이었음
- 성별 차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보기 위해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과 '보통 미만'인 집단을 나누어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됨 의향이 '전혀 없음' 또는 '별로 없음' 집단에서 현금 지원에 대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 예를 들어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 '풍요로운 주거 여건' 등 경제적 여건**에 대해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상인 남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됨 의향이 보통 미만인 집단에서는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1억 원 이상)'**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회의적**이었음
- 즉, 경제적으로 이상적 여건이 마련되어도 부모가 될 의향이 적은 남녀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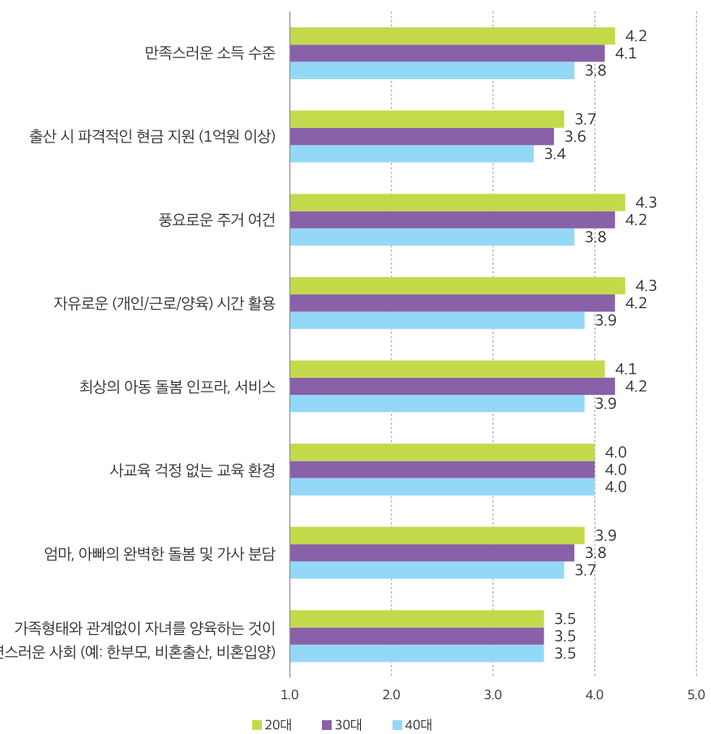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중 부모됨 의향 '보통' 이상 여성 271명, 남성 350명; '보통' 미만 여성 194명, 남성 69명)

•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연령대별

- 연령대별 결과를 살펴보면, **20대**는 **'자유로운(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 '풍요로운 주거 여건'**이 **4.3점**으로 평균이 **가장 높았음**
- **30대**는 **'풍요로운 주거 여건', '자유로운(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 '최상의 아동돌봄 인프라, 서비스'**(4.2점)가 마련된다면, **40대**는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환경'**(4점)이 조성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약간 생길 것 같다고 응답하였음
-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항목은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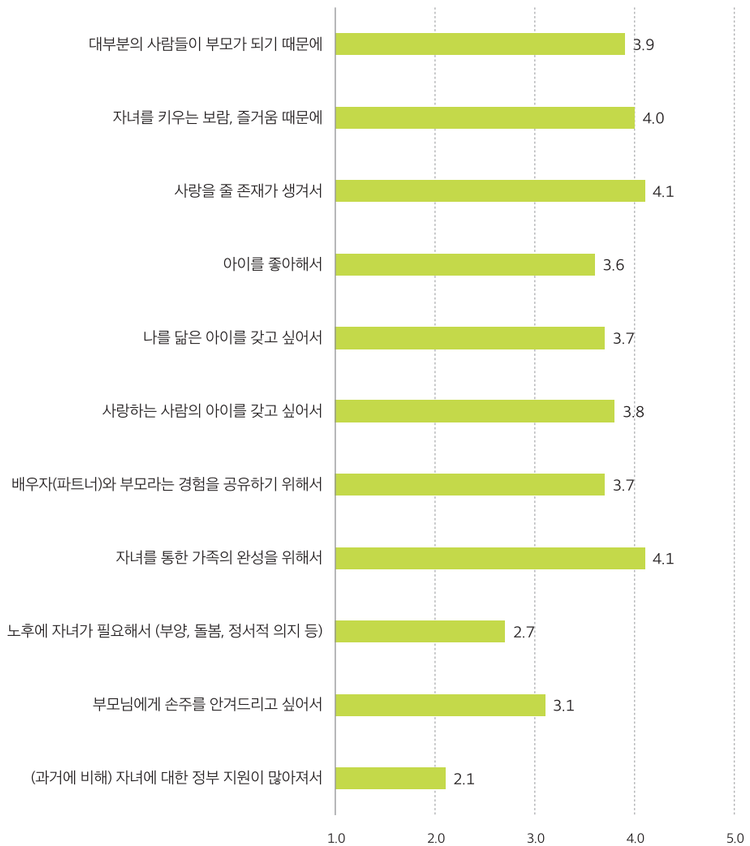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대 328명, 30대 294명, 40대 154명)

부모가 된 이유

• 부모가 된 이유: 전체

▸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이 부모가 된 이유(범위: 1-5점)는 **'자녀를 통한 가족의 완성을 위해서'**(평균 4.1점), **'사랑을 줄 존재가 생겨서'**(평균 4.1점),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평균 4점)가 평균 4점 이상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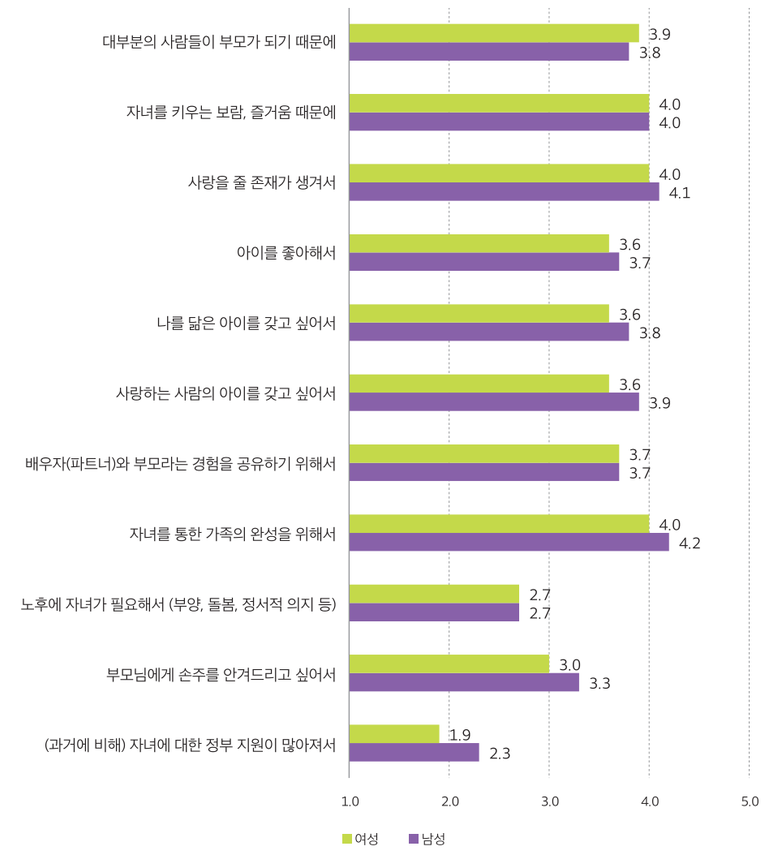


단위(점)

주: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204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 부모가 된 이유: 성별

▸ 부모가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였고, **남성의 동의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경향이었음
▸ **남성**의 평균이 여성의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자녀를 통한 가족의 완성을 위해서'**(여성 4점, 남성 4.2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어서'**(여성 3.6점, 남성 3.9점), **'부모님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서'**(여성 3점, 남성 3.3점),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여성 1.9점, 남성 2.3점)이었음.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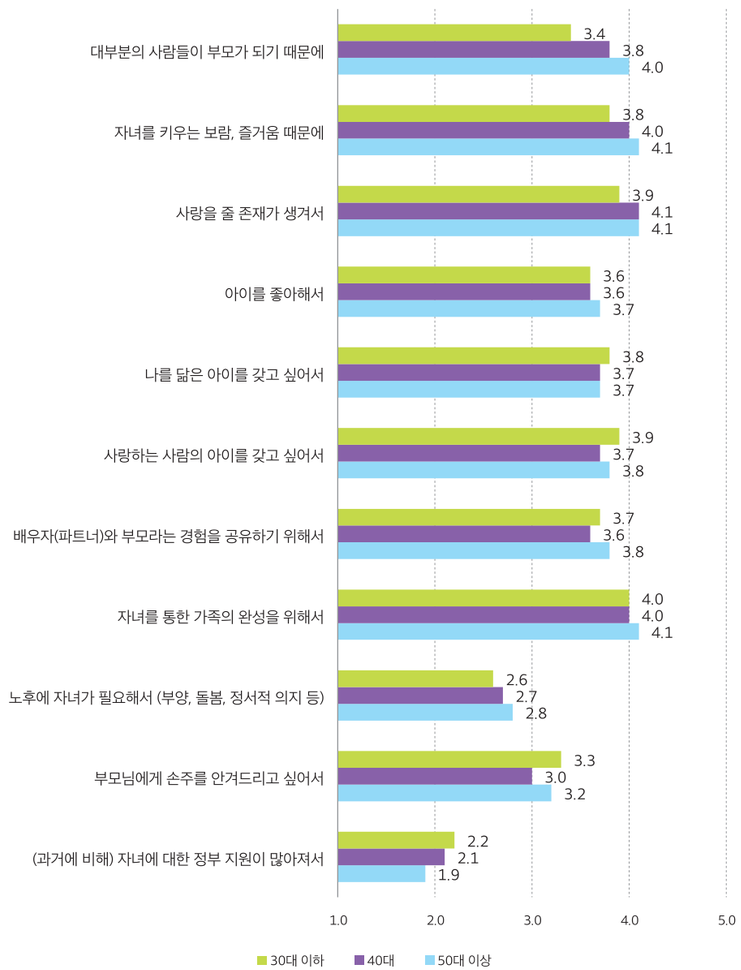


단위(점)

주: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여성 91명, 남성 113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 부모가 된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가 되기 때문에'**(30대 이하 3.4점, 40대 3.8점, 50대 이상 4점)에 **더 동의**하였고, **50대 이상**(4.1점)은 30대 이하(3.8점), 40대(4점)보다 **'자녀를 키우는 보람, 즐거움 때문에'**에 **더 동의**하였음
-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즉 자녀를 갖게 된 이유는 연령대별로 대체로 비슷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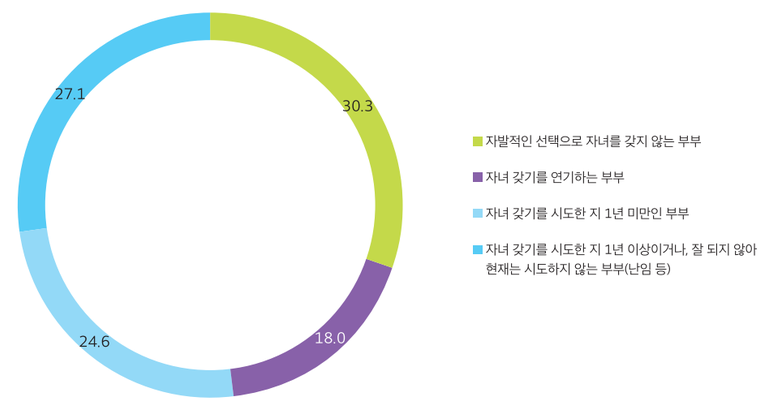
단위(점)

주: '(과거에 비해) 자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이하 56명, 40대 134명, 50대 이상 14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무자녀 부부 유형

• 무자녀 부부 유형: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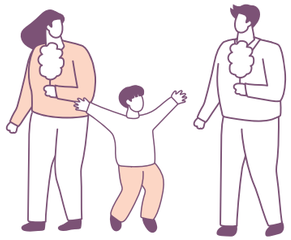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 중 **자발적 무자녀**는 **30.3%**였고, 자녀 갖기를 시도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자녀 갖기가 잘 되지 않아 현재는 시도하지 않는 **비자발적 무자녀**(난임 등)는 **27.1%,** 자녀 갖기를 연기한 **연기형 무자녀**는 **18%**였음
- 즉,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연기하는 유형의 비율이 난임 등 비자발적 유형의 비율보다 높았음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 1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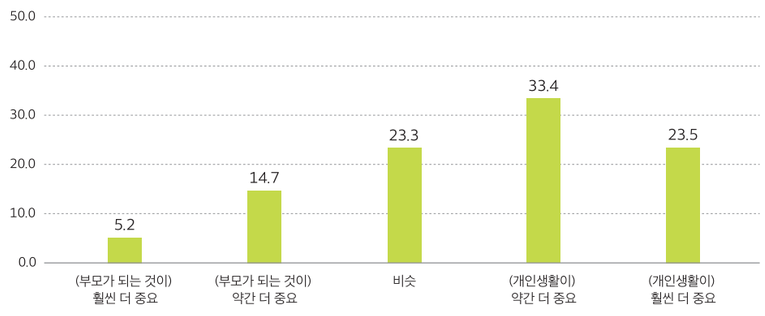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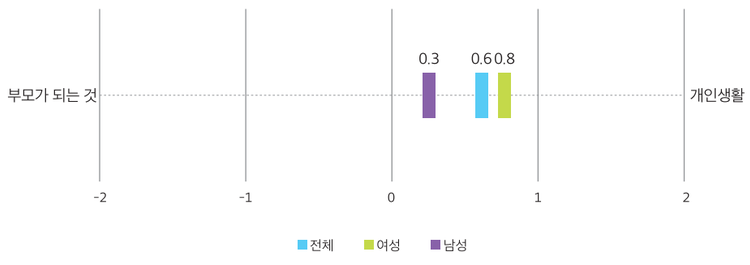
부모가 되는 것 vs. 개인 생활

• **부모가 되는 것 vs. 개인 생활: 전체 및 성별**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에게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 생활(여가, 자기 계발, 개인 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본인에게 더 중요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개별 응답보기에 대해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33.4%),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23.5%), '비슷하다'(23.3%)의 순으로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응답(평균 0.6점)은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0.8점)이 남성(0.3점)보다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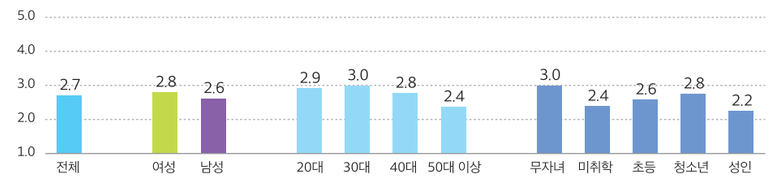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02명, 남성 374명)

부모됨과 사회 환경 인식

• **'요즘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이다':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요즘 같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아이에게 잘못이다'(범위: 1-5점)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평균 2.7점)**는 **'보통'(3점)보다 약간 낮았음**
- 성별로는 **여성**(2.8점)이 남성(2.6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2.9점), **30대**(3점), **40대(**2.8점)의 동의 수준이 50대 이상(2.4점)보다 **높았음**
- **무자녀** 집단의 동의 수준은 **3점**으로 **보통**이었음. 유자녀 집단에서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2.6점), **청소년**(2.8점)인 경우가 첫째 자녀가 성인(2.2점)인 경우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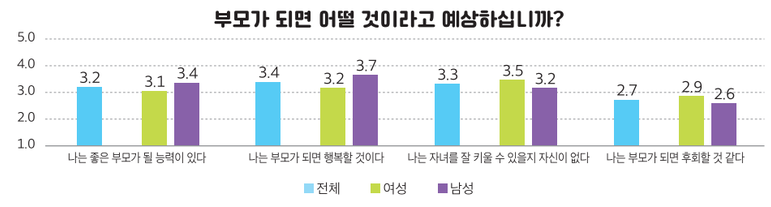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내가 부모가 된다면

• **내가 부모가 된다면: 전체 및 성별**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 시민의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 **'나는 부모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4점**(범위: 1-5점)으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는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여성 3.1점, 남성 3.4점), '나는 부모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여성 3.2점, 남성 3.7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았음**
-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고, **'나는 부모가 되면 후회할 것 같다'**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7점**(범위: 1-5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았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여성 3.5점, 남성 3.2점), '나는 부모가 되면 후회할 것 같다'(여성 2.9점, 남성 2.6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즉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낮게 인식하고 부모가 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02명, 남성 374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완벽한 부모'에서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4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즉, 부모가 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에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였고,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에도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았고,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동의하였다.

Hays(1996)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쏟아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을 집중적 모성 이데올로기(intensive mothering ideology)라고 명명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완벽한 엄마에 대한 기대는 부모됨과 자녀 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감을 형성하고, 자녀 양육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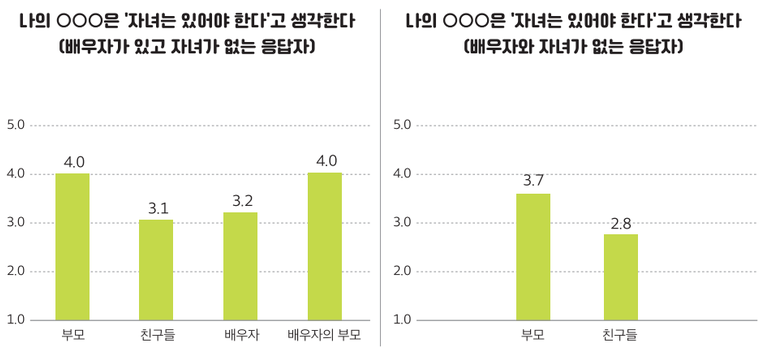
부모됨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현실화하고 부모로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벽한 부모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부모(good enough parent; Bettelheim, 1987)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 양육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공동부모 역할(coparenting) 캠페인 등은 여성의 양육 부담감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Bettelheim, B. (1987). A good enough parent: A book on child-rearing. Alfred A. Knopf.
2)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Yale University Press.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 부모됨에 대한 주변의 기대: 전체 및 배우자 유무별

-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범위: 1-5점)는 **배우자의 부모**(평균 4점), **부모**(평균 4점), **배우자**(평균 3.2점), **친구들**(평균 3.1점) 순으로 평균이 높았음
-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의 부모 및 친구들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 수준은 **부모**(평균 3.7점)가 친구들(평균 2.8점)보다 훨씬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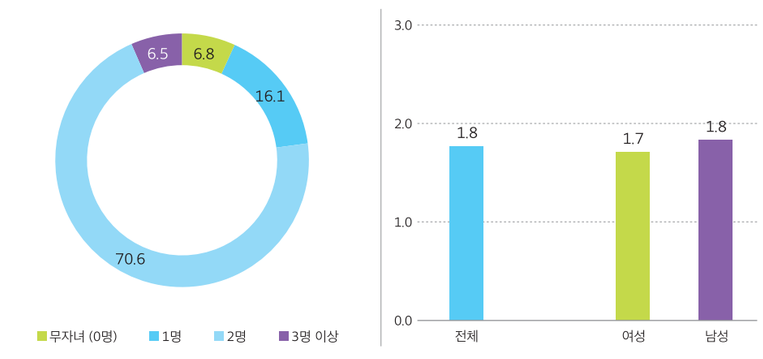
단위(점)

주: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하고 배우자가 있는 110명, 배우자가 없는 731명, '내 배우자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111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122명,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762명)

이상적 자녀수

• 이상적 자녀수: 전체 및 성별

- 20-64세 서울 시민의 **70.6%**는 자녀가 **2명**인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였음
- 여성이 생각한 이상적 자녀수는 1.7명, 남성이 생각한 이상적 자녀수는 1.8명이었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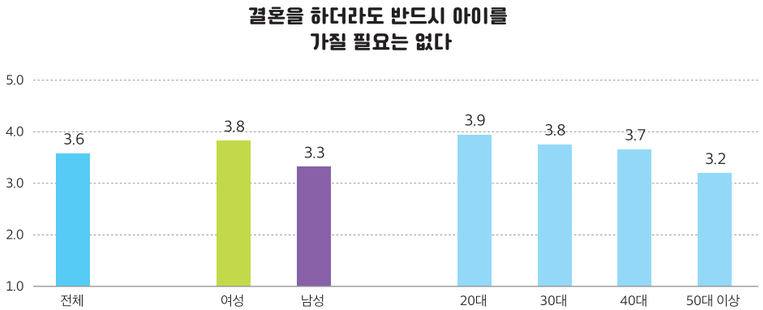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무자녀, 비혼 출산,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한 태도

• 무자녀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3.8점)이 남성(3.3점)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동의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9점), **30대**(3.8점), **40대**(3.7점)가 50대 이상(3.2점)보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에 동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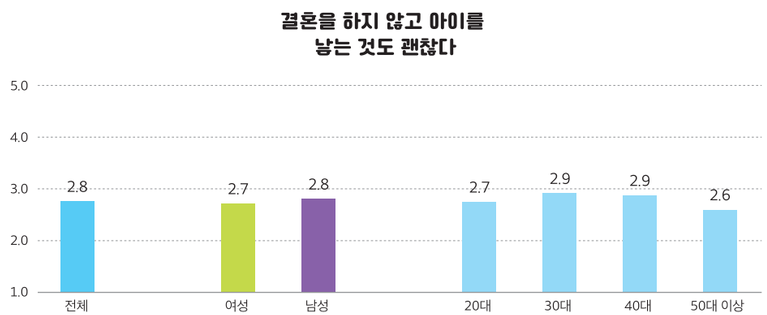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 **30대**(2.9점) 및 **40대**(2.9점)가 50대 이상(2.6점)보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상대적으로 **동의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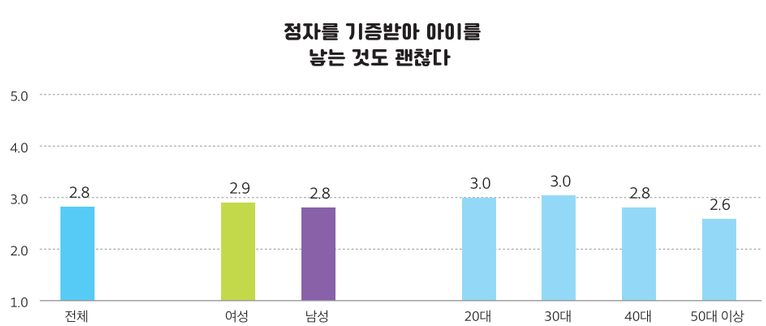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정자 기증 출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운 수준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 **20대**(3점) 및 **30대**(3점)가 50대 이상(2.6점)보다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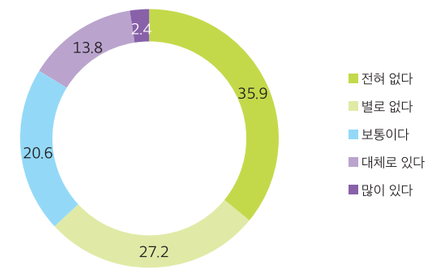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난자 냉동보관 의향

• 난자 냉동보관 의향: 전체

- 20-40대 여성 서울 시민의 **16.2%**가 향후 임신을 위해 난자를 냉동보관할 의향이 **있는 편**이었고('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63.1%는 없는 편**이었음('별로 없다',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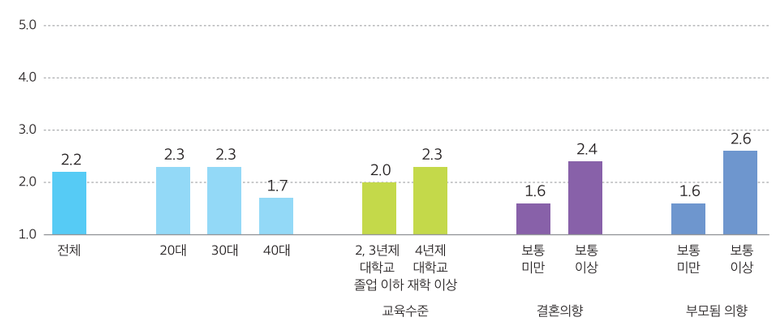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20-49세 여성 412명)

• 난자 냉동보관 의향: 전체,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결혼 의향, 부모됨 의향 수준별

- 난자 냉동보관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2.3점**으로 별로 없는 편이었음
- 연령대별로 **20대**(2.3점) 및 **30대**(2.3점)가 40대(1.7점)보다 난자를 냉동보관할 의향의 평균이 높았음
- 교육수준별로 **4년제 대학교 재학 이상**인 집단(2.3점)이 2, 3년제 대학 졸업 이하인 집단(2점)에 비해 난자를 냉동보관 의향이 상대적으로 **있었음**
- 결혼 의향 및 부모됨 의향 수준별로 **결혼 의향(2.4점)** 및 **부모됨 의향(2.6점)이 보통 이상**인 집단이 결혼 의향(1.6점)과 부모됨 의향(1.6점)이 보통 미만인 집단보다 난자를 냉동보관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있었음**



단위(점)

주: 교육수준은 2, 3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인 103명, 4년제 대학교 재학 이상인 309명, 결혼 의향은 배우자가 없고 결혼 의향이 보통 이상인 275명, 보통 미만인 86명, 부모됨 의향은 자녀가 없고 부모됨 의향이 보통 이상인 247명, 보통 미만인 155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20-49세 여성 412명)

2024
서울가족정책

다양한 서울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서울시는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는 20-49세 여성(미혼 포함,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을 대상으로 생애 1회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보관료, 입원료는 제외)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난임 부부시술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

난임 부부 지원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 시술별 1회당 30-110만 원, 총 25회(누적) 지원받을 수 있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생애 1회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사람 중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남성 만 55세 이하, 여성 만 4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서울시는 난임 진단 부부(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2024년 기준 1979년 이후 출생한 여성, 결혼 및 사실혼 가능)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상한액: 1,192,320원)를 지원한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1인당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지원받을 수 있다(국가 및 서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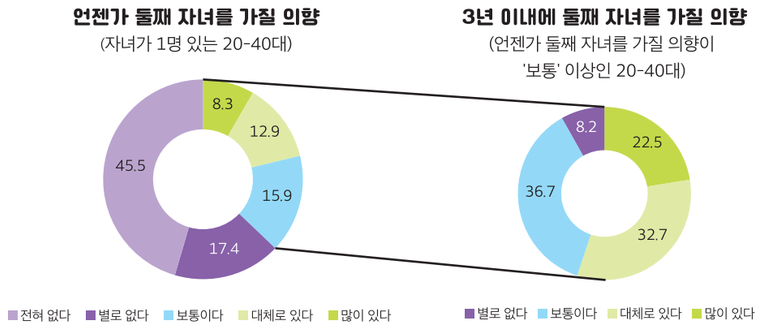
자료: 1) 몽땅정보만능키. 서울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https://umppa.seoul.go.kr/hmpg/bich/subf/egfr/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DEC40D648D8647CABC7A5D7279EFCFB6
2)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https://seoul-agi.seoul.go.kr/infertility-treatment-support
3)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6-Jks4SXJ6/?img_index=1

3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및 이유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 **언젠가 또는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전체**

- 현재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서울 시민의 **62.9%**는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편**이었고('전혀 없다', '별로 없다'), **37.1%**는 **있는 편**이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 중 **91.9%**는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었음**('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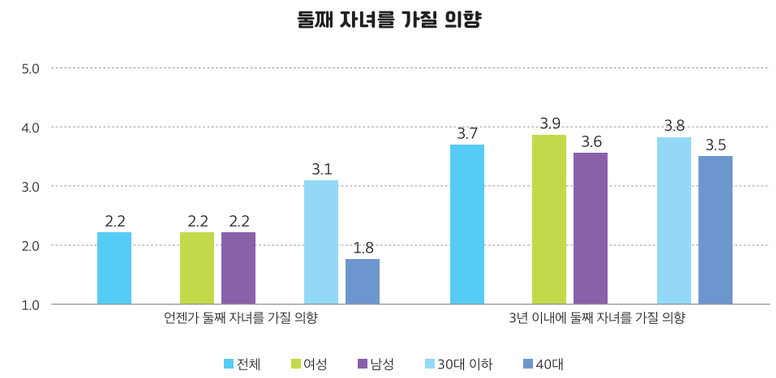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32명: 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인 응답자 49명)

• **언젠가 또는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 현재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서울 시민이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범위: 1-5점)의 평균은 2.2점으로 '별로 없다'에 가까웠음. 2023년 서울가족서베이에서 기혼이면서 자녀가 한 명인 20-40대의 추가출산 의향도 2.2점이었음(2023년 보고서 35쪽 참고).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3.1점)가 40대(1.8점)보다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의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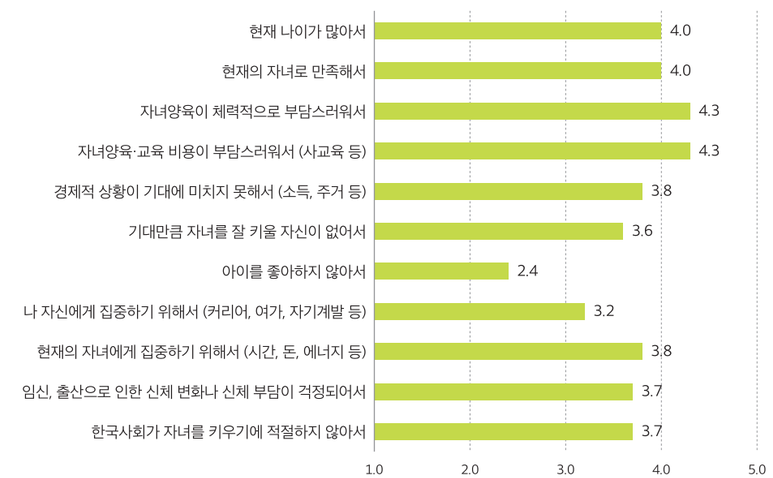
주: 1)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여성 60명, 남성 72명, 30대 이하 45명, 40대 87명의 응답임
2)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은 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중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여성 22명, 남성 27명, 30대 이하 29명, 40대 20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32명: 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인 응답자 49명)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전체**

-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범위: 1-5점)의 평균은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평균 4.3점),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서'**(평균 4.3점), **'현재 나이가 많아서'**(평균 4점), **'현재의 자녀로 만족해서'**(평균 4점)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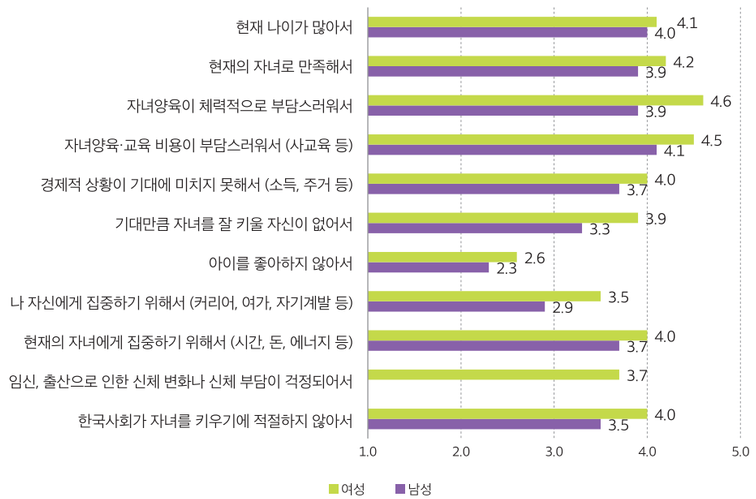
단위(점)

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46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20-49세 응답자 104명)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성별

- 전반적으로 제시된 이유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였음**
- 성별로 동의 수준의 차이가 큰 문항은 **'자녀 양육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서'**(0.7점 차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커리어, 여가 자기 계발 등)'**(0.7점 차이),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0.6점 차이),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0.5점 차이), **'자녀 양육·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사교육 등)'**(0.4점 차이)이었음. 즉, 여성이 남성보다 이러한 이유로 둘째 자녀를 갖지 않고자 하였음
- 이외의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46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20-49세 여성 46명, 남성 58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부모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자녀가 없는 서울 시민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와 자녀가 한 명 있는 서울 시민이 둘째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달랐다. 특히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는 '한국 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기대만큼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항목의 평균이 높았으나, 둘째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았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4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 특히 여성이 부모됨 및 자녀 양육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여성이 남성보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능력이 있다', '나는 부모가 되면 행복할 것이다'에 덜 동의하였고,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나는 부모가 되면 후회할 것이다'에 더 동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부모됨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시가족센터는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에 부모됨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탐색하고, 부부가 한 팀으로서 위기와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2개 차시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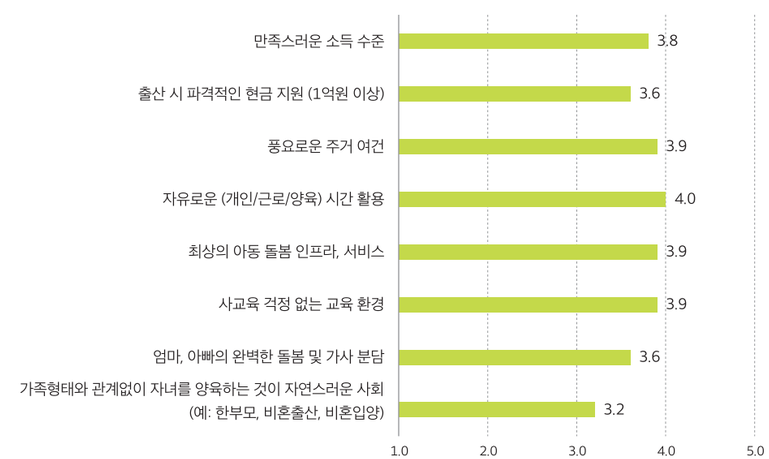
더불어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은 행복과 성장, 고충과 고민이 모두 수반되는 과정이다.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가족 생활 행복감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다(4장 가족 응원 참고). 그러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는 부모됨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부모로서 즐거움이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와의 협력을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이상적인 여건과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 이상적인 여건과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전체

- 자녀가 한 명인 20-40대 서울 시민에게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더 갖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하고 8가지 상황(범위: 1-5점)을 제시한 결과, **'자유로운 (개인/근로/양육) 시간 활용'**(평균 4점),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환경'**(평균 3.9점), **'풍요로운 주거 여건'**(평균 3.9점) **'최상의 아동돌봄 인프라, 서비스'**(평균 3.9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별 차이는 '엄마, 아빠의 완벽한 돌봄 및 가사 분담'(여성 3.8점, 남성 3.4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 연령대별 분석은 30대 이하 응답자의 수가 적어 생략하였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둘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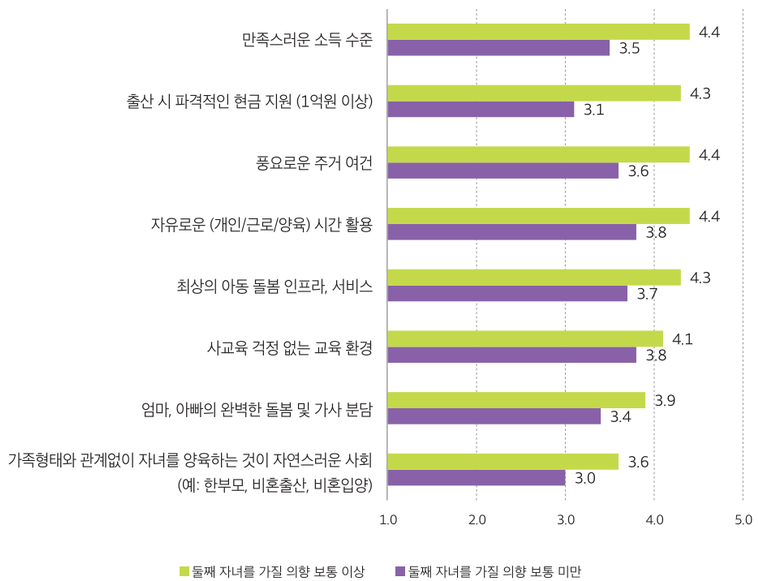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인 20-49세 132명)

• **이상적인 여건과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별**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은 **'풍요로운 주거 여건'**(4.4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의향이 **보통 미만**인 집단은 **'자유로운 시간 활용'**(3.8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음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과 보통 미만인 집단의 평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은 **'출산 시 파격적인 현금 지원(1억 원 이상)'**(1.2점 차이),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0.9점 차이)과 같은 **경제적 여건**이었음. 파격적인 현금 지원, 소득 수준 향상이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집단의 의향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둘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이고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49명, 보통 미만인 83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자녀를 (더) 가질 의향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어떤 이상적인 상황이 마련된다면 자녀를 (더) 가질 것인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됨 의향 및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가 뚜렷했다. 부모됨 의향 및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보통 이상인 집단은 만족스러운 소득 수준, 풍요로운 주거 여건, 파격적인 출산지원금과 같은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의향이 더 생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의향이 없는 집단은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더라도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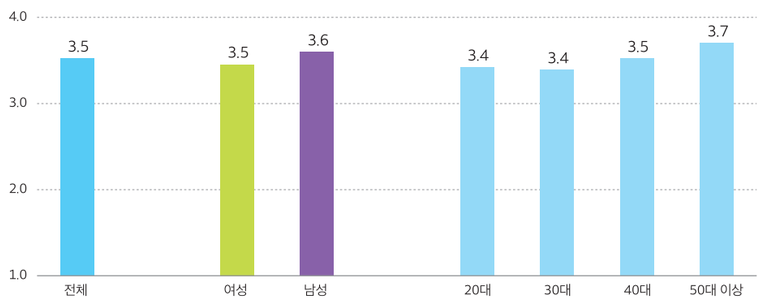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계할 때 자녀를 (더) 가질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 정책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의향을 존중하는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더)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은 주거 지원, 현금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녀를 (더) 갖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집단은 경제적 지원보다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아동돌봄 인프라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을 통해 의향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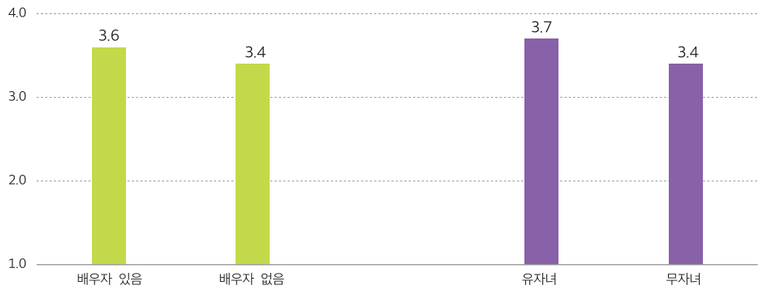
4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쟁점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 인식

•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 인식: 전체, 성별, 연령대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보고한 현재 한국 사회 저출생 현상의 심각성 수준(범위: 1-4점)은 **평균 3.5점**으로, '약간 심각한 문제이다'(3점)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남성**(3.6점)이 여성(3.5점)에 비해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3.7점)이 20대(3.4점), 30대(3.4점), 40대(3.5점)에 비해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음
- 배우자 유무별 및 자녀 유무별로는 **배우자(3.6점) 및 자녀(3.7점)가 있는 집단**이 배우자(3.4점) 및 자녀가 없는 집단(3.4점)보다 저출생 현상을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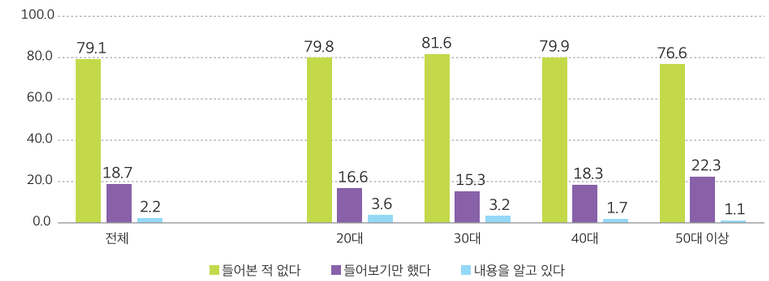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인지도

•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인지도: 전체, 연령대별**

- 서울 시민의 **79.1%**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 없었고, 18.7%**는 **들어보기만** 했으며, **2.2%**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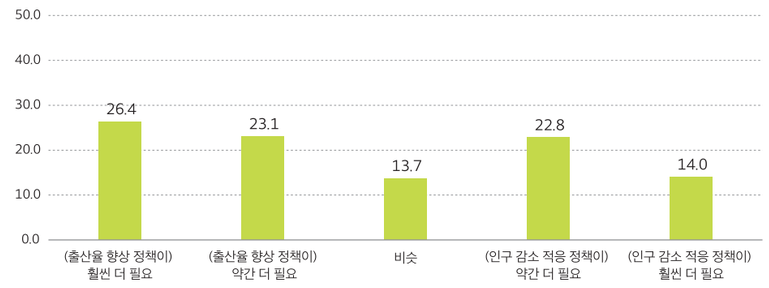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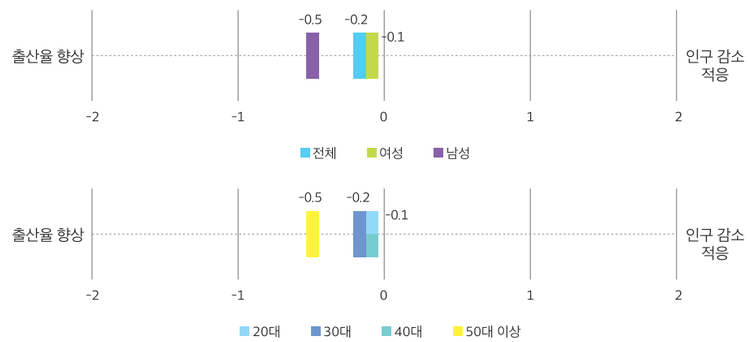
출산율 향상 vs. 인구 감소 적응

• **출산율 향상 vs. 인구 감소 적응: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은 출산율 향상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집중할 수도 있음. 2024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양쪽에 상반된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음
- 20-64세 서울 시민 중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정책'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 비율이 **26.4%**였음
- '출산율 향상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2점)부터 '인구 감소 적응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2점)까지 5개 선택지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출산율 향상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과 인구 감소 적응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축하여 평균이 0점에 가까웠음(-0.2점)
- 성별로 **남성**(-0.5점)은 여성(-0.1점)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경향이었음
- 연령대별로 **50대 이상(-0.5점)**은 20대(-0.1점), 30대(-0.2점), 40대(-0.1점)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의 필요도에 동의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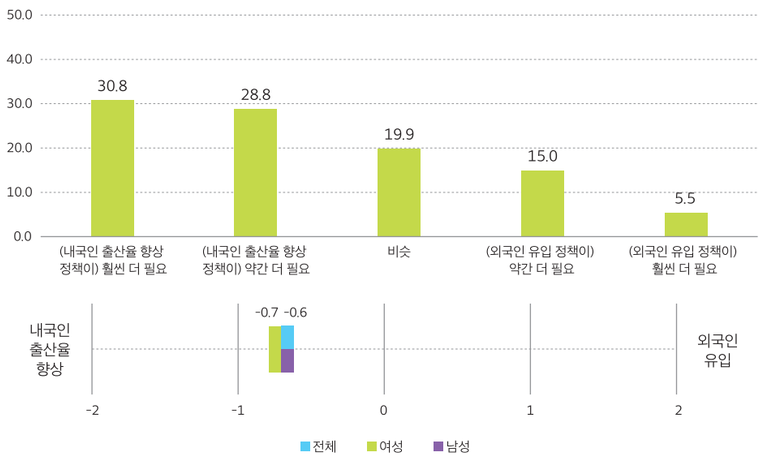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내국인 출산율 향상 vs. 외국인 이주 확대

• **내국인 출산율 향상 vs. 외국인 이주 확대: 전체 및 성별**

- 20-64세 서울 시민은 **'내국인의 출산율을 향상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외국인 이주 인구 증가 정책'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생각하는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의 이주를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갈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적었음
- 평균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내국인 출산율 향상 정책**이 외국인 유입 정책보다 **약간 더 필요**(-0.6점)하다고 생각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0.7점)이 남성(-0.6점)보다 **내국인의 출산율 향상 정책**의 필요도에 **동의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에서 생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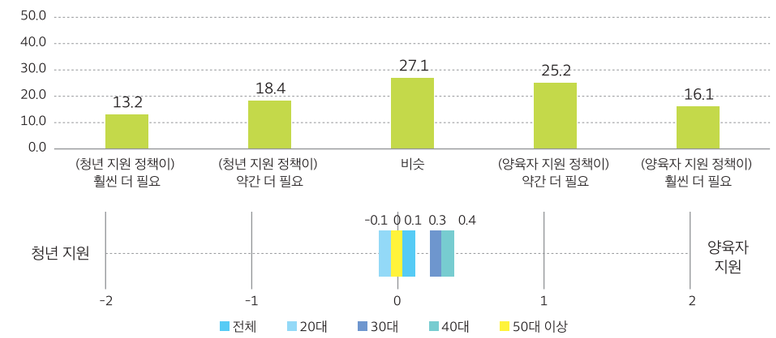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전체 및 연령대별**

- 20-64세 서울 시민은 **'미래의 부모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현재 부모인 양육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도가 **'비슷'**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비율이 **27.1%로 가장 높았음.** 응답의 평균도 0.1점으로 0점에 가까웠음
- 연령대별로는 **20대**(-0.1점)가 30대(0.3점)와 40대(0.4점)보다 **청년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40대**(0.4점)는 20대(-0.1점)와 50대 이상(0점)보다 **양육자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에서 생략하였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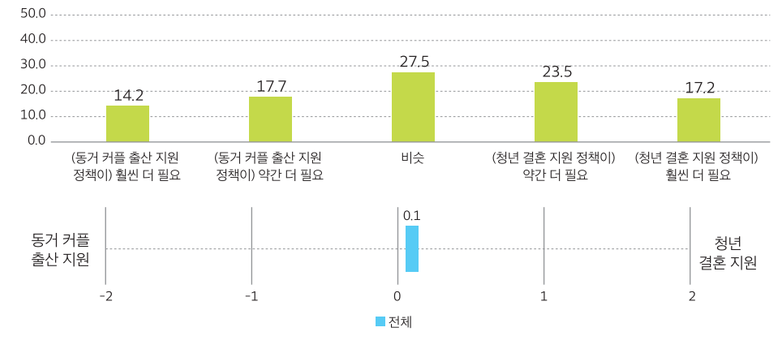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비혼(미혼) 동거 커플의 출산 지원 vs. 청년의 결혼 지원

• **비혼(미혼) 동거 커플의 출산 지원 vs. 청년의 결혼 지원: 전체**

- **'결혼을 원하지 않지만 자녀를 원하는 동거 커플의 출산 지원 정책'**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의 결혼 지원 정책'**이 **비슷**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고, 평균도 0.1점이었음. **청년의 결혼 지원** 정책이 동거 커플의 출산 지원 정책보다 약간 더 필요하다(23.5%)는 응답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에서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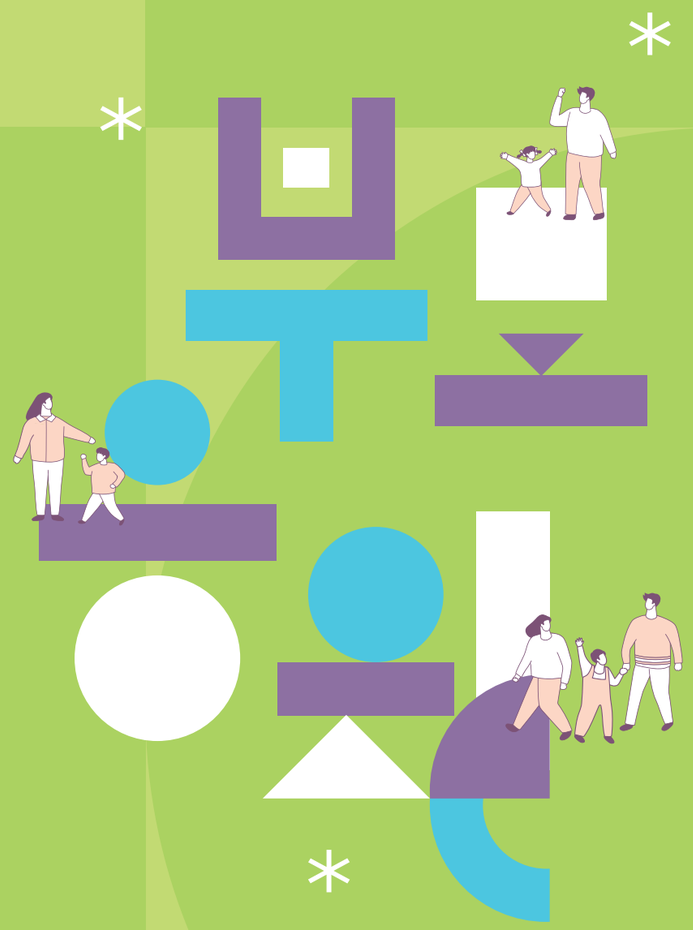


단위(%)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PART 2



CONTENTS

1.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쟁점 ····· 54
2.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62
3. 부모로서의 경험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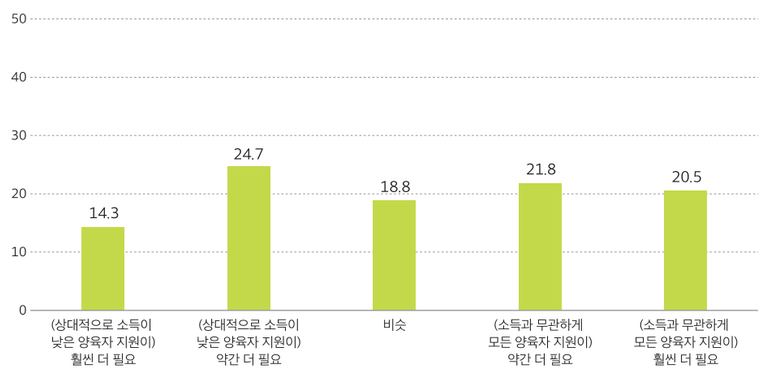
1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쟁점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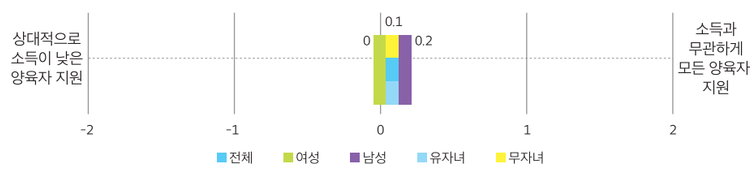
•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 vs.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과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양육자 지원 정책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조사한 결과, **'모든 양육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더 필요' 및 '훨씬 더 필요')이 42.3%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39%보다 **높았음**
-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응답에 -2점,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1점**으로 양쪽이 '비슷하다'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0.2점)**이 여성(0점)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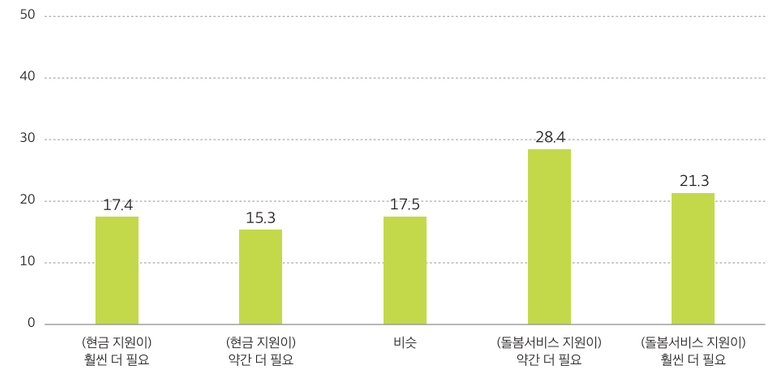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현금 지원 vs. 돌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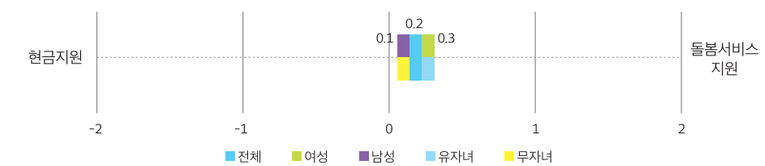
• **현금 지원 vs. 돌봄서비스 제공: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양육자 지원 정책으로 **'돌봄서비스 지원**(예: 어린이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약간 더 필요' 및 '훨씬 더 필요')은 49.7%로 **'현금 지원**(예: 부모 급여, 출산축하금, 아동수당)'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32.7%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양쪽이 '비슷하다'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여성(0.3점)**이 남성(0.1점)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0.3점)**이 무자녀 집단(0.1점)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단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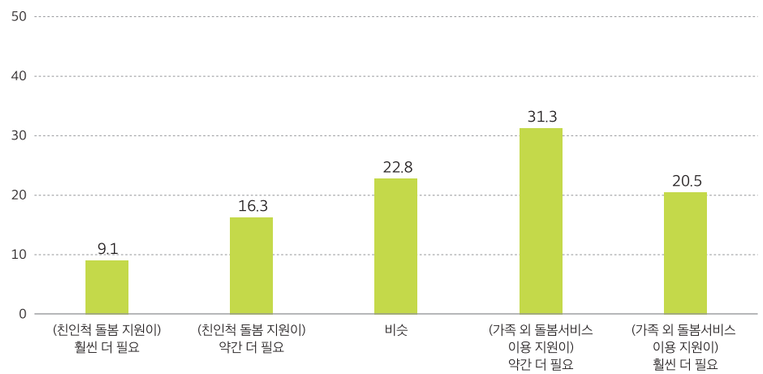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친인척 돌봄 지원 vs.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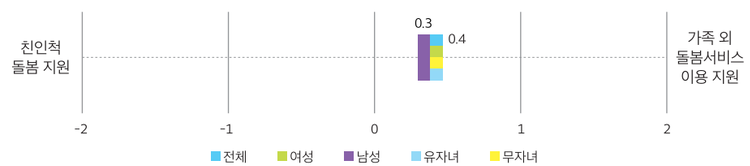
• **친인척 돌봄 지원 vs.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아동돌봄 지원 정책으로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예: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서비스 이용권)'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약간 더 필요' 및 '훨씬 더 필요')이 51.8%로, '친인척 돌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25.4%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이 약간 더 필요하다'(1점)와 '비슷하다'(0점)의 중간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0.4점)**이 남성(0.3점)보다 **가족 외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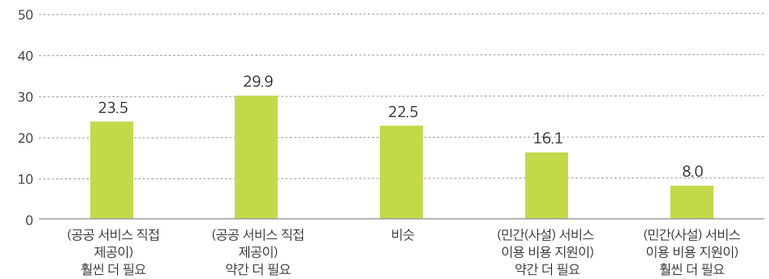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공공 서비스 제공 vs.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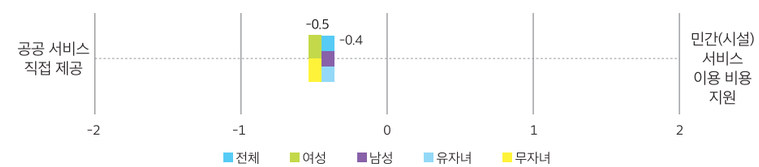
• **공공 서비스 제공 vs.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아동돌봄 지원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예: 아이돌봄서비스, 서울형 키즈 카페)'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약간 더 필요' 및 '훨씬 더 필요')이 53.4%로,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예: 민간 육아도우미, 사설 키즈 카페 바우처)'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24.1%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이 약간 더 필요하다'(-1점)와 양쪽이 '비슷하다'(0점)의 중간 수준이었음
- 성별 및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지속적인 확대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아동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으로 현금 지원보다는 **돌봄서비스** 지원, 친인척 돌봄 지원보다는 **가족 외 돌봄서비스** 지원,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지원보다는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서울시의 양육 지원 정책은 현금 지원이나 민간 서비스 이용 바우처 제공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는 방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류임량, 박인영, 2022)에 따르면,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아이돌보미 역량과 서비스 질' 만족도가 4.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서울시 공공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 다른 조사(류임량, 조수진, 2021)에서 2021년 기준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42개소 중 57개소에 평균 7명의 이용 대기 아동이 있었다. 이처럼 높은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공공 돌봄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형 키즈 카페 등 공공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역 유휴 시설과 같은 공공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 1) 류임량, 박인영(2022).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류임량, 조수진(2021). **우리동네키움센터 전문성 강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아픈 아이 및 아침 돌봄

'키움센터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서울시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공백을 메꾸고, 아픈 아동이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키움센터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거점형 키움센터에 별도의 돌봄공간을 설치하여 아픈 아이에게 편안한 병상돌봄을 제공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해 안전한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대상: 병원 내원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
- 사유: 단순 감기, 복통 등으로 등원(교) 및 시설 이용 곤란 등(비정기적 이용) 또는 필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정기적 이용)
- 비용: 우리동네키움센터 내 병상돌봄 2,500원, 병원 동행 무료

자료: 서울특별시. 아픈 아이 병상돌봄·병원 동행 서비스.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MENU3/dolbomMENU3_1/dolbomMENU3_1_2/dolbomMENU3_1_2_2.jsp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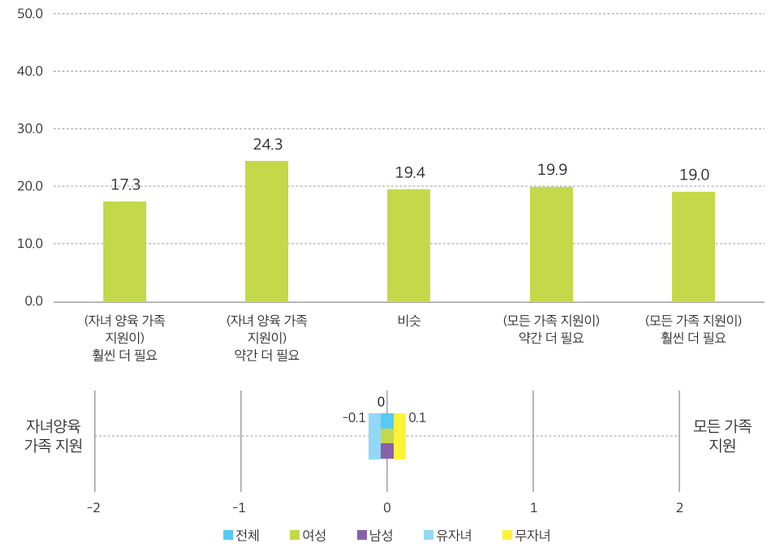
서울시는 부모의 출근과 아이 등교 준비가 맞물리는 등교 전 아침 시간대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오전 7-9시에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맡기면 돌봄교사가 등교 준비를 도와주고 도보로 가까운 학교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2024년 4월 기준, 총 10개의 키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4. 6. 12.). "이제 지각 안해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 두 달간 1,100여 아동 등굣길 책임졌다. https://umppa.seoul.go.kr/hmpg/chpo/noti/bordContDetail.do?mode=W&bbs_no=1&pst_no=1A9DE49A31E9821FE063A60221620A3C

자녀 양육 가족 지원 vs. 모든 가족 지원

- **자녀 양육 가족 지원 vs. 모든 가족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가족 지원 정책으로 **'자녀 양육 가족 지원'**(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과 '모든 가족 지원'(예: 양육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중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이 **분산된 경향**이었음
- 개별 응답보기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가족 지원이 약간 더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4개 응답의 비율은 유사하였음
- **전체 평균은 0점**으로 평균적으로는 양쪽이 '비슷하다'(0점)는 입장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0.1점)**이 무자녀 집단(0.1)보다 **자녀 양육 가족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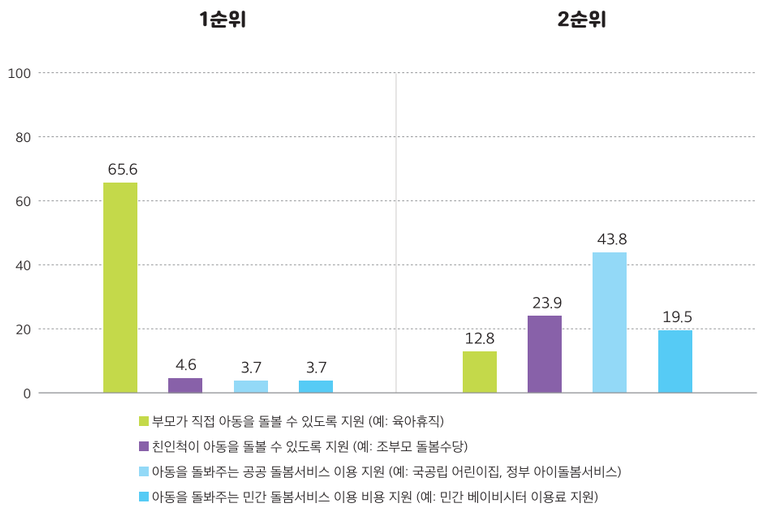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아동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

• **아동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 전체**

-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지원으로 20-64세 서울 시민은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예: 육아휴직)'(65.6%)을 **1순위**로 꼽았음
- 2순위로는 **'아동을 돌봐주는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예: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43.8%)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형 가사서비스'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확대

서울시는 임산부 가정이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다자녀, 임산부, 맞벌이 가정 등이 대상이며, 가사관리사가 하루 약 4시간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준다. 2023년 개별 가정에 연 6회까지 제공하던 서비스를 2024년부터는 연 10회로 확대하였고, 기존 6천 가구 지원에서 2024년에는 1만 가구 지원으로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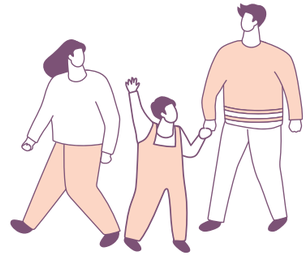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4. 2. 21.). 서울시, 힘든 집단일 도와주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확대.
https://umppa.seoul.go.kr/hmpg/chpo/noti/bordContDetail.do?bbs_no=1&pst_no=11F4FEF311D8E392E063A602216211F8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0명의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 중 선택하는 방식이며, 양육가정의 가사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4. 7. 16.).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 모집… 17일 접수시작"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731

2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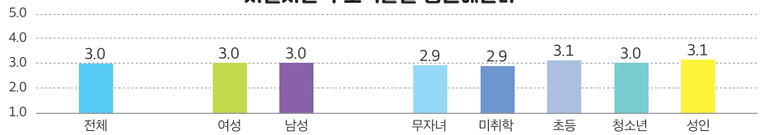


부모 역할 응원: 서울시, 한국 사회, 배우자, 주변인

• 서울시의 부모 역할 응원: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준다'(범위: 1-5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은 **3점**으로 **'보통'**에 해당하였음
- **유자녀(3.1점)** 집단이 무자녀(2.9점) 집단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성별 및 유자녀 집단 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시는 부모역할을 응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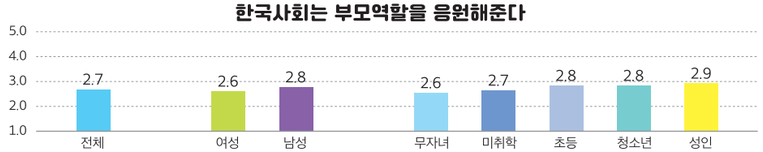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한국 사회의 부모 역할 응원: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의 '한국 사회는 부모 역할을 응원해준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7점**으로 **'보통'(3점)보다 조금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2.8점)**이 여성(2.6점)보다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유자녀(2.9점)** 집단이 무자녀(2.6점) 집단보다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유자녀 집단 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한국사회는 부모역할을 응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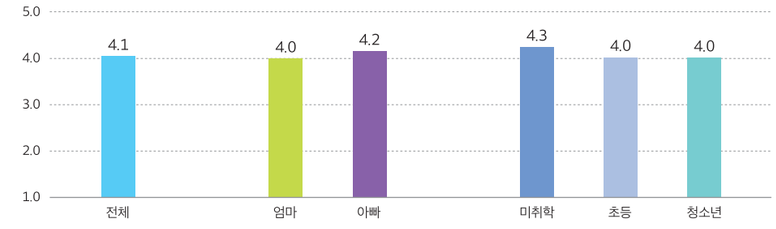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부모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응원: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기혼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 역할을 응원해준다'(범위: 1-5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은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및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의 배우자는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준다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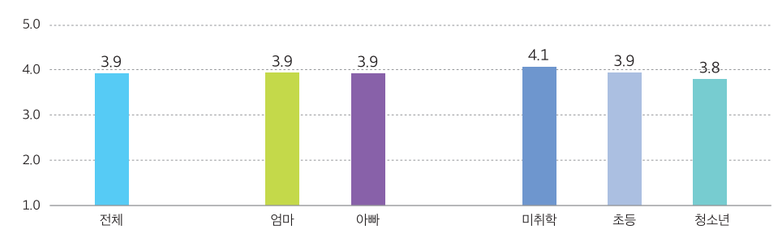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36명, 아빠 170명; 미취학 73명, 초등 86명, 청소년 104명)

• 부모 역할에 대한 주변의 응원: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은 나의 부모 역할을 응원해준다'(범위: 1-5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은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4.1점)**가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3.8점)보다 **더 동의하였음**

주변 사람들은 나의 부모역할을 응원해준다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자)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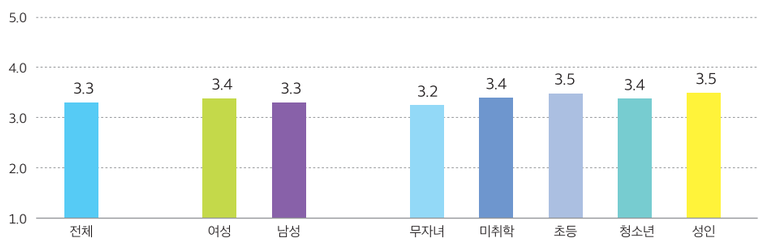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45명, 아빠 179명; 미취학 77명, 초등 90명, 청소년 112명)

육아친화도 인식: 서울 및 지역사회

• 서울시 육아친화도 인식: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범위: 1-5점)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유자녀 집단**(3.5점)이 무자녀 집단(3.2점)보다 서울이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는 점에 **동의했음**
- 성별 및 유자녀 집단 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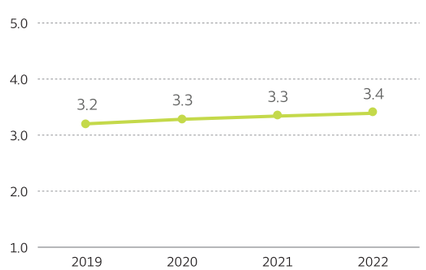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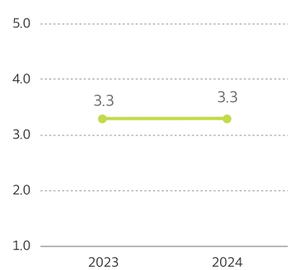
• 서울시 가족친화도(2019-2022) 및 육아친화도(2023-2024) 인식: 전체 및 성별

- 2019-2022년에 20-64세 서울 시민이 '서울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 친화적인 도시'(범위: 1-5점)라고 인식하는 수준은 2019년에 평균 3.2으로 '보통'에 가까웠고 2022년에는 평균 3.4점이었음
- 2023년부터는 표현을 바꾸어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도시'(범위: 1-5점)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평균은 3.3점, 2024년 평균은 3.3점이었음

서울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도시이다



서울은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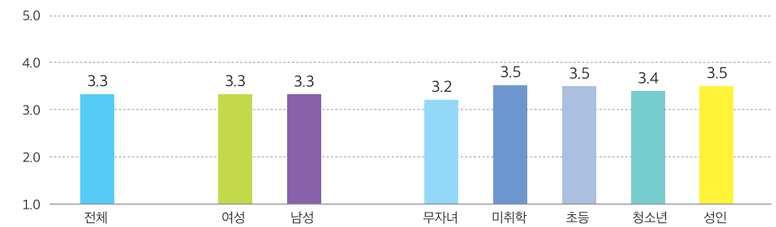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서울가족서베이, 각 연도(전체: 2019년 1,600명, 2020년 1,949명, 2021년, 1,637명, 2022년 1,703명; 2023년 1,584명; 2024년 1,574명)

• 지역사회 육아친화도 인식: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자신이 사는 동네(예: OO동)를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지역'(범위: 1-5점)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유자녀 집단(3.5점)이 무자녀 집단(3.2점)보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육아 친화적인 지역**으로 **인식했음**
- 성별 및 유자녀 집단 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내가 사는 동네(예: OO동)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지역이다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육아 친화적 도시 서울을 위해 자치구 간 격차 좁힐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서울을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 도시'로 인식하는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2024 서울가족서베이 심층 분석 결과(1장 탄생 응원 참조), 20-40대 무자녀 여성은 서울을 육아 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할수록 부모됨 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을 육아 친화적인 도시로 인식하고, 서울시 내에서 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서울시는 출산·양육행복지표를 개발하여 자치구의 출산, 양육 환경을 진단하였다(국미애 외, 2023). 건강·안전, 돌봄·교육 등의 5개 영역과 31개의 지표로 자치구별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지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구의 환경만이 특수하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과 양육 환경이 양호한 자치구는 소수이며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어디서든 자녀를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25개 전 자치구가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국미애, 이선형, 강은애, 류지아, 이지영(2023). **서울시 출산·양육 행복 지표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300세대 이상 신축·기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양육친화주택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을 획득한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무료입장,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아이사랑홈 인증현판 수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몽땅정보만능키(2024. 8. 1.).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안내
- 모집 공고.
https://umppa.seoul.go.kr/hmpg/chpo/noti/bordContDetail.do?mode=W&bbs_no=1&pst_no=1E9B802B4BFDDDD7E063A6022162D7F6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음식점 '웰컴키즈 안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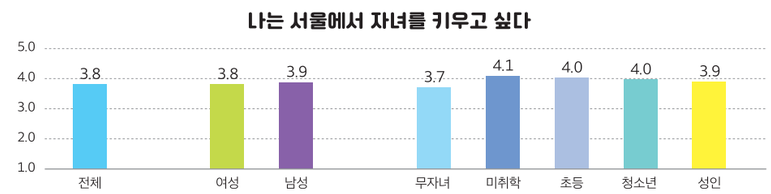
서울시는 2024년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육자의 편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웰컴키즈 안심 보험' 출시하였다. 이 보험은 '노키즈존' 운영의 가장 큰 이유인 '안전사고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 가입 시 영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보험을 통해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양육자의 편한 외출을 돕고자 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4. 5. 22.). 서울시, '웰컴키즈 안심 보험' 전국최초 출시…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 확대.
https://umppa.seoul.go.kr/hmpg/chpo/noti/bordContDetail.do?mode=W&bbs_no=1&pst_no=18F37BC5875EA012E063A6022162BB51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선호 및 이유

•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선호: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나는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범위: 1-5점)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은 **3.8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9점)이 여성(3.8점)보다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했음
- **유자녀 집단**(3.9점)이 무자녀 집단(3.7점)보다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했음
- 유자녀 집단 내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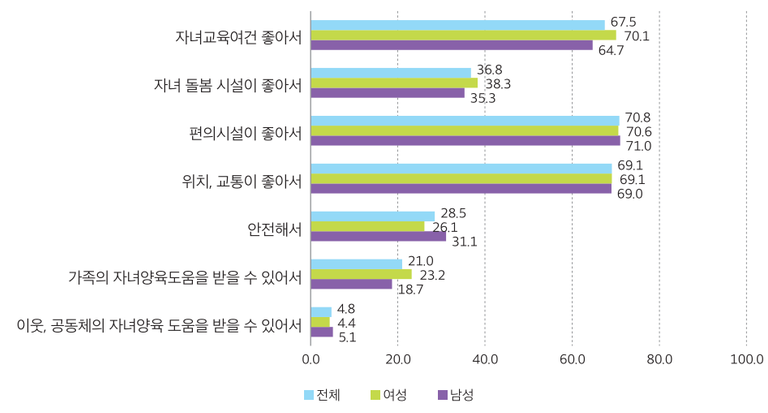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선호 이유: 전체 및 성별

-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7가지 선호 이유를 제시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편의시설이 좋아서(의료, 문화, 쇼핑 등)'**(70.8%)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남녀 모두 **'편의시설이 좋아서'**(여성 70.6%, 남성 71%), '자녀 교육여건이 좋아서(학교, 학군, 학원 등)'(여성 70.1%, 남성 64.7%), '위치, 교통이 좋아서(직장, 양육시설 접근성 등)'(여성 69.1%, 남성 69%)의 이유로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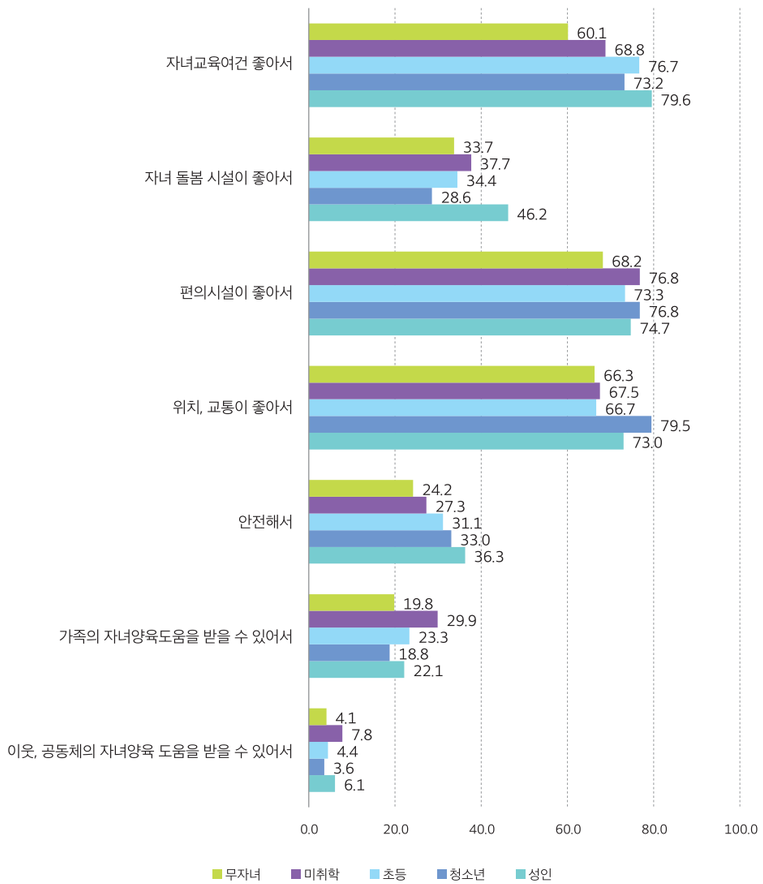


단위(%)

주: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인 여성 672명, 남성 723명)

• **서울에서의 자녀 양육 선호 이유: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 발달단계별로 **무자녀 부부와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는 **'편의시설이 좋아서**(의료, 문화, 쇼핑 등)'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했음(무자녀 68.2%, 미취학 76.8%)
-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와 성인 자녀인 부모는 '자녀교육 여건이 좋아서**(학교, 학군, 학원 등)'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했음(초등 76.7%, 성인 79.6%)
-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는 '위치, 교통이 좋아서**(직장, 양육시설 접근성 등)'(79.5%)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고 응답했음



단위(%)

주: 1)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음
2)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서울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인 무자녀 754명, 미취학 74명, 초등 87명, 청소년 103명, 성인 377명)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양육친화공간 '서울가족플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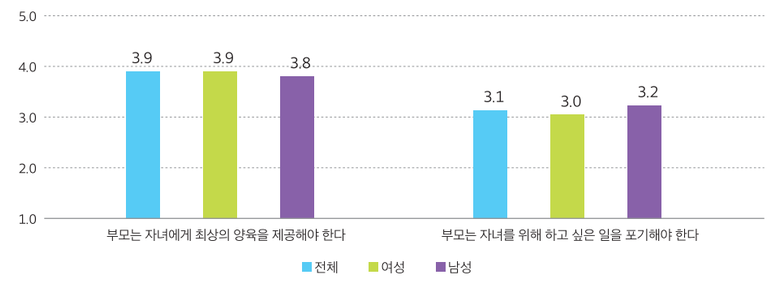
서울시는 2024년에 '스페이스살림'의 명칭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하였다. '서울가족플라자'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정책 지원 공간이자 가족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명칭 변경과 함께 공간의 편의성과 개방성을 높여 '서울특별시 제1호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엄마아빠 VIP존 3호' 등 부모와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족센터도 서울가족플라자에 제2센터를 개소하였다. 서울시는 서울가족플라자를 서울시의 대표적 양육친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자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190

부모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 **부모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전체 및 성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1점**으로 '보통'(3점)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3.2점)의 동의 수준이 여성(3점)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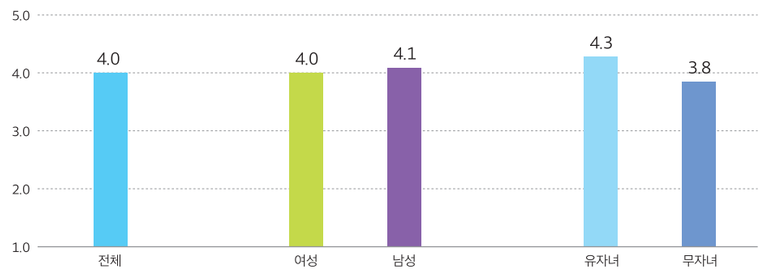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긍정적, 부정적 자녀관

• **긍정적 자녀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4개 문항으로 조사한 긍정적 자녀관(범위: 1-5점)은 20-64세 서울 시민 평균 **4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4.1점)이 여성(4점)보다 긍정적 자녀관의 평균이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4.3점)**이 무자녀 집단(3.8점)보다 긍정적 자녀관의 평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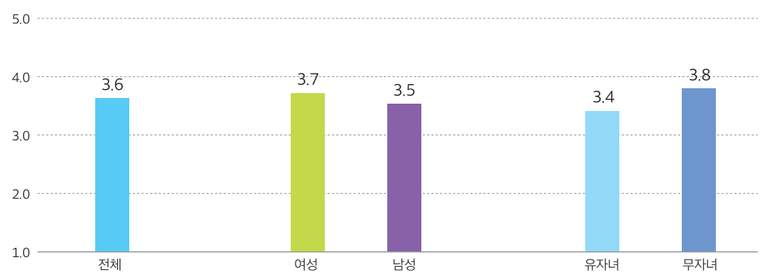


단위(점)

주: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 4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부정적 자녀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4개 문항으로 조사한 부정적 자녀관(범위: 1-5점)은 20-64세 서울 시민 평균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7점)**이 남성(3.5점)보다 부정적 자녀관의 평균이 높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무자녀 집단(3.8점)**이 유자녀 집단(3.4점)보다 부정적 자녀관의 평균이 높았음



단위(점)

주: 자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4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 클로즈업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긍정적, 부정적 자녀관을 예측하는 요인은?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결혼한 적이 없고, 자녀가 없는 20-39세 비혼(미혼) 응답자의 긍정적, 부정적 자녀관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자녀관과 부정적 자녀관은 각각 4문항의 평균을 활용하였으며,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으므로 각각 분석하였다.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긍정적 자녀관>

- ☑ 가족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할수록
- ☑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 ☑ 부모가 될 의향이 있을수록
- ☑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 ☑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 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 ☑ 부모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 ☑ 한국 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한다고 생각할수록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음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부정적 자녀관>

- ☑ 부모가 될 의향이 없을수록
- ☑ '부모는 자녀에게 최상의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 ☑ 한국 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부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음

* 헬리콥터 부모 역할: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이재림, 2022)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예비' 양육자 응원에 대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메시지 강화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심층 분석 결과, 한국 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한다고 인식할수록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가 부모 역할을 응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청년 시민의 자녀관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부모 역할을 응원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청년이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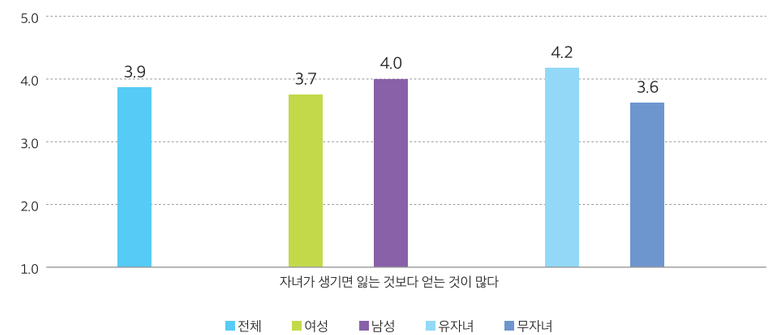
서울시의 경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양육자를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에 양육자뿐 아니라 비혼(미혼) 청년을 포함한 '예비 양육자'를 함께 응원하고 있음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한 것도 현재의 양육자 이외에 미래의 양육자를 포함하기 위함이었으나, 이러한 방향성이 비혼(미혼) 청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혼(미혼) 청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전달 방식과 채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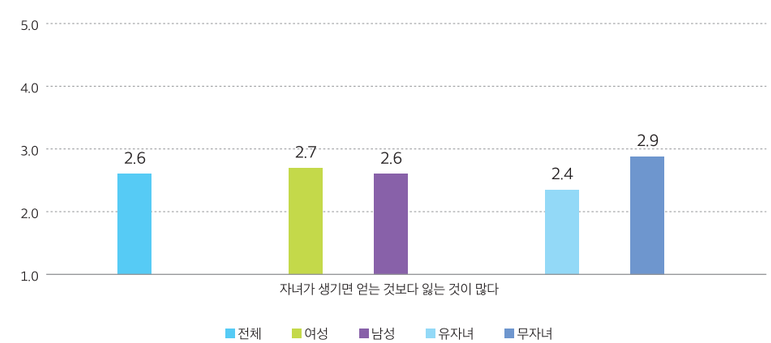
부모됨의 득과 실

• **부모됨의 득과 실: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이 여성(3.7점)보다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에 동의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4.2점)이 무자녀 집단(3.6점)보다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에 동의하였음

- '자녀가 생기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무자녀 집단(2.9점)**이 유자녀 집단(2.4점)보다 '자녀가 생기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에 상대적으로 동의하였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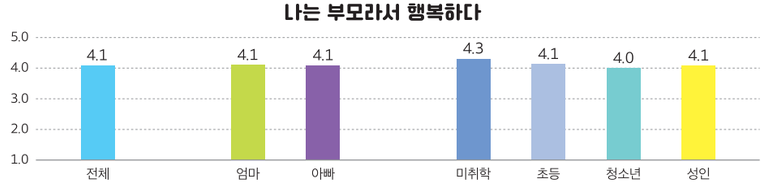
3 부모로서의 경험

부모로서의 행복 및 후회

• **부모로서의 행복:**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서울시 부모가 '부모라서 행복하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행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4.3점)**가 청소년인 부모(4점)보다 '부모라서 행복하다'에 동의하였음

나는 부모라서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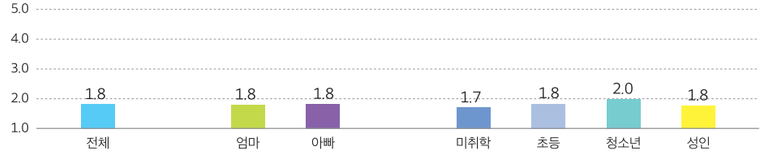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 **부모됨에 대한 후회:**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서울시 부모가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1.8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성별 및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나는 부모가 된 것을 후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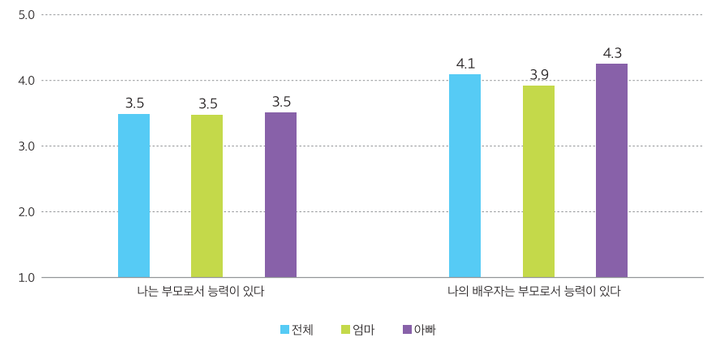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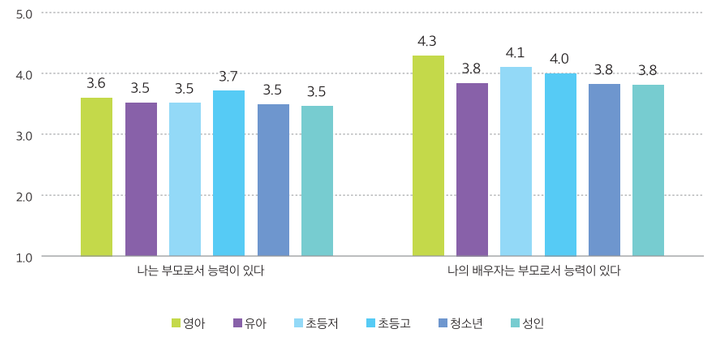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부모로서의 능력 및 노력

• **부모로서의 능력:**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서울시 부모가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으며, 성별 및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 부모가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즉, **본인의 부모로서의 능력보다 배우자의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아빠**(4.3점)가 엄마(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아, 아빠가 배우자(즉 엄마)의 부모로서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영아인 부모(4.3점)**가 다른 연령대 부모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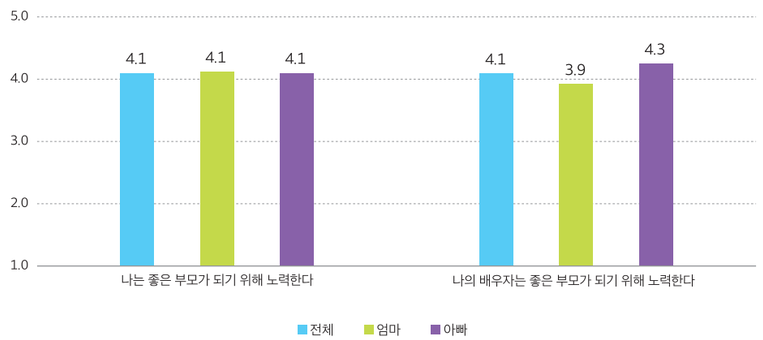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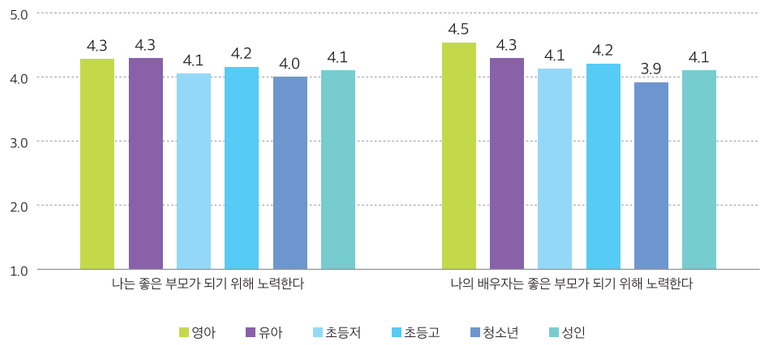
단위(점)

주: 1) '영아'는 만 0-2세 자녀의 부모, '유아'는 만 3세-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저'는 초등학교 1-3학년 재학 자녀의 부모, '초등고'는 초등학교 4-6학년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2)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자녀가 있는 엄마 344명, 아빠 346명, 영아 25명, 유아 52명, 초등저 41명, 초등고 49명, 청소년 112명, 성인 411명의 응답임
3)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엄마 309명, 아빠 323명, 영아 24명, 유아 49명, 초등저 39명, 초등고 47명, 청소년 104명, 성인 369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응답자 632명)

• 부모로서의 노력: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서울시 부모가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성별 및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 부모가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아빠**(4.3점)가 엄마(3.9점)보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 아빠가 배우자(즉 엄마)의 노력을 더 높게 평가했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영아인 부모**(4.5점)가 청소년인 부모(3.9점)보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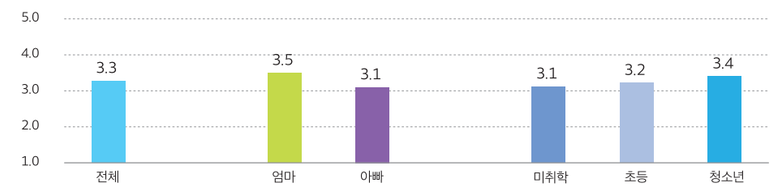
단위(점)

주: 1) '영아'는 만 0-2세 자녀의 부모, '유아'는 만 3세-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저'는 초등학교 1-3학년 재학 자녀의 부모, '초등고'는 초등학교 4-6학년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녀가 있는 엄마 344명, 아빠 346명, 영아 25명, 유아 52명, 초등저 41명, 초등고 49명, 청소년 112명, 성인 411명의 응답임
3) '나의 배우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엄마 309명, 아빠 323명, 영아 24명, 유아 49명, 초등저 39명, 초등고 47명, 청소년 104명, 성인 369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632명)

양육 스트레스 및 부모 역할의 어려움

• 양육 스트레스: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범위: 1-5점)는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 부모의 성별로는 **엄마(3.5점)**가 아빠(3.1점)보다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음**
-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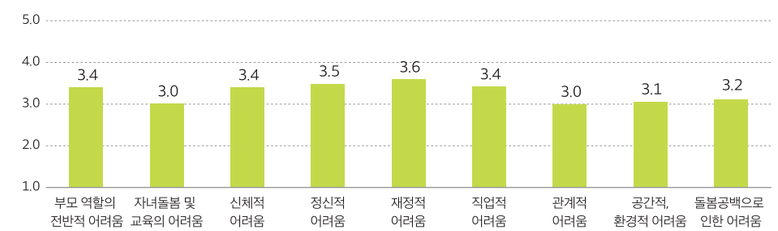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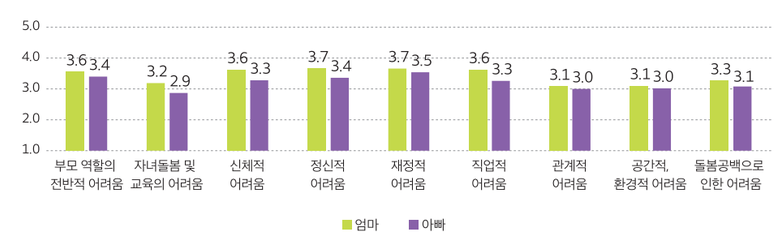
단위(점)

주: 1) 김기현, 강희경(1997)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의 7문항 평균을 사용하였음
2)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45명, 아빠 179명; 미취학 77명, 초등 90명, 청소년 112명)

• 부모 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의 **'부모 역할의 전반적 어려움'**(범위: 1-5점)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았음**
- 영역별로는 **'재정적 어려움**(양육비, 사교육비 부담 등)'의 평균이 **3.6점**으로 **가장 높았음**
- 대부분의 영역에서 **엄마**가 아빠보다 **부모 역할의 어려움 수준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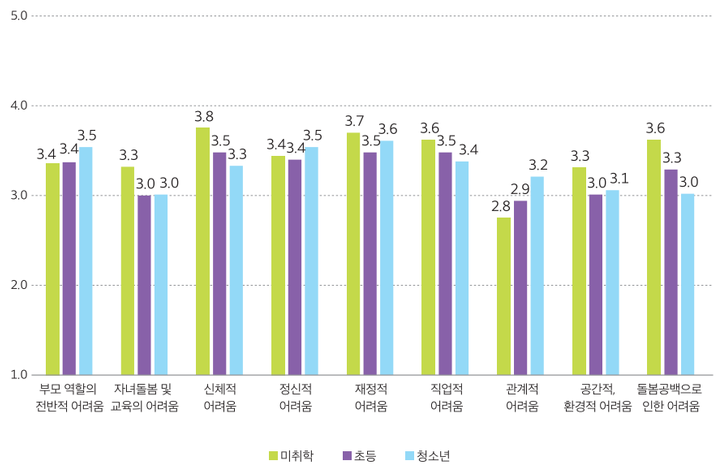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45명, 아빠 179명)

• **부모 역할의 영역별 어려움: 미성년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는 **'신체적 어려움**(피로감, 휴식/수면 부족 등)'(3.8점), **'재정적 어려움**(양육비, 사교육비 부담 등)'(3.7점), **'직업적 어려움**(일-가정 양립 어려움, 경력단절, 근로시간 부족 등)'(3.6점),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자녀가 질병 등으로 등원/등교하지 못할 때의 돌봄공백, 근로 시간과 하원/하교 시간의 충돌, 방학기간 돌봄공백 등)'(3.6점) 순으로 높았음
-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신체적 어려움'**(3.5점), **'재정적 어려움'**(3.5점), **'직업적 어려움'**(3.5점)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3.6점) 수준이 가장 높았음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첫째 자녀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자)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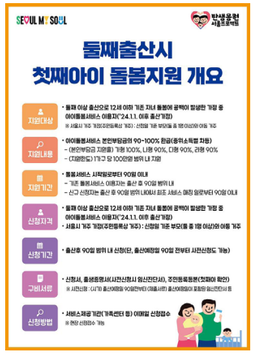
서울시는 미취학 아동을 둔 양육자의 돌봄공백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생후 6개월-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202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정 보육, 타기관 보육 등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 사이에 하루 4시간, 월 60시간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스마트 서울뷰.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탄생. https://scpm.seoul.go.kr/seoul-policy/evt0048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둘째 출산 가정 첫째 자녀 돌봄 지원

서울시는 2024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서울시 거주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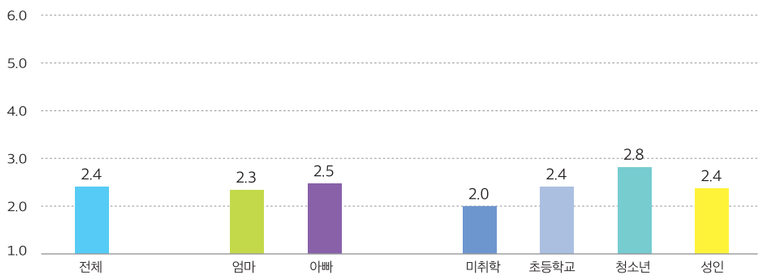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4. 2. 29.). 둘째 낳으면 첫째 돌봄, 등하원·원동행… 서울형 아이돌봄 강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423

자녀와의 갈등

• **자녀와의 갈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귀하와 첫째 자녀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범위: 1-6점)에 대한 서울시 부모의 평균은 **2.4점으로 '심각하지 않다'(2점)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3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아빠(2.5점)**가 엄마(2.3점)보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2.8점)가 다른 자녀 연령대보다 첫째 자녀와의 갈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귀하와 첫째 자녀와의 갈등(관계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양육자 지원 정책을 청소년기 부모로 확대할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분석 결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모로서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 자녀 관계 및 부모 역할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양육자 지원 정책은 부모전이기, 영유아기, 아동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해결,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등 아동기 양육에 그치지 않는 양육자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저출생 대응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소년 양육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아버지가 인지하는 자녀와의 갈등 수준이 어머니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아버지를 위한 부모 역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가족센터의 서울가족학교에서는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교실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참여자는 대다수가 어머니인데, 청소년기 아버지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기존의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때때로 아버지용으로 특화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가로 양육 스트레스 감소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서울가족학교의 일환으로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부터는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25개 자치구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석하기 이전과 이후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지식을 비교한 결과, 양육 스트레스는 26.5% 감소, 양육효능감은 21.5% 향상, 양육지식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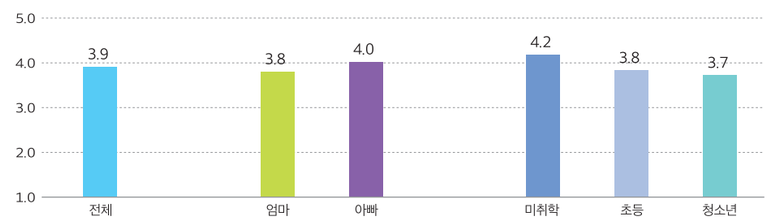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가족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HSUyVStGn/?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lODBiNWFlZA==

부부의 부모 역할 분담

• **엄마, 아빠의 역할 분담: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이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범위: 1-5점)는 진술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아빠**(4점)가 엄마(3.8점)보다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에 더 동의하였음. 즉, 엄마가 덜 동의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배우자와 나는 자녀와 관련된 일을 상황에 맞게 분담한다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 170명, 아빠 136명; 미취학 73명, 초등 86명, 청소년 104명)

2024
서울가족정책

성별이 다른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시 '가족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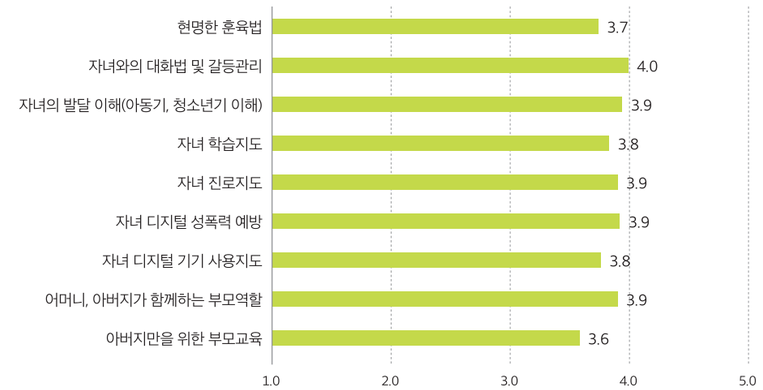
서울시는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편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엄마아빠VIP존'의 일환으로 '가족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가족 화장실'은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부모, 조부모도 아동과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었다. 이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주양육자로서 외출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가족 화장실은 2024년 7월 기준 31개이며, 공공화장실 증축 및 신축 시 '가족 화장실'을 조성하도록 제도화하여 2026년까지 10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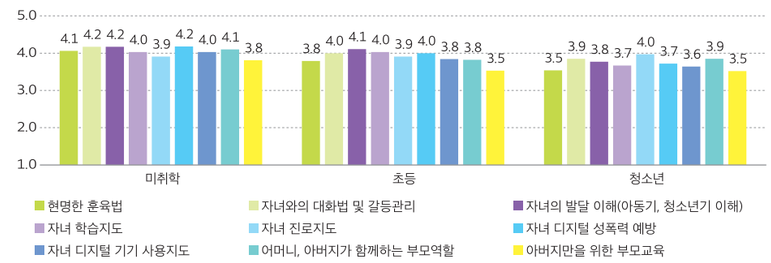
자료: 1) 경향신문(2023. 7. 15.). "아이랑 외출이 편해지겠어요"… 서울시, 한강공원 등에 '가족 화장실' 확대.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7051531001
2) 서울특별시의회(2024. 7.). 연중기획 / 초저출생 시리즈 ⑥ 아이와 함께 행복을 짓는 가족 공간.
http://webzine.smc.seoul.kr/2024/07/17.html

부모 교육 주제별 요구도

• **부모 교육 주제별 요구도: 미성년 자녀 부모 전체 및 자녀 발달단계별**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부모 교육의 9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주제별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범위: 1-5점)의 **평균이 4점**으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는 **'자녀 디지털 성폭력 예방'**(4.2점),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4.2점), '자녀의 발달 이해(아동기, 청소년기 이해)'(4.2점) 순으로 높았음
-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자녀의 발달 이해(아동기, 청소년기 이해)'**(4.1점), '자녀 디지털 성폭력 예방'(4점), '자녀 학습지도'(4점),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4점) 순이었음
-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는 **'자녀 진로지도'**(4점), '자녀와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3.9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는 부모 역할'(3.9점)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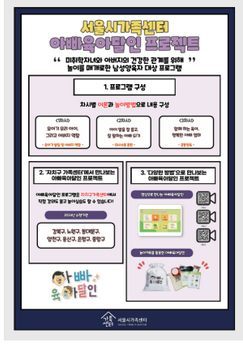


주: 1)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2) '아버지만을 위한 부모 교육' 항목은 아빠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42명, 초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51명, 청소년 자녀가 있는 65명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양육자 324명)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서울시가족센터는 아빠의 양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취학 자녀가 있는 남성 양육자가 '유아기 발달 및 아버지 역할', '자녀와의 의사소통 훈련', '부부 공동양육'에 대해 3회차에 걸쳐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남성 양육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육아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영상과 놀이키트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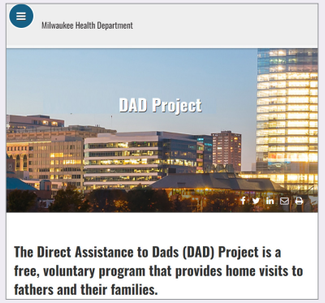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가족센터 보도자료(2024. 7. 10.). "서울아빠 육아달인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족센터, 2024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개시.
https://familyseoul.or.kr/node/23222

해 / 외 / 사 / 례

세계는 지금 '아빠 교육' 중!

1) 미국 | DAD Project (가정방문 및 자조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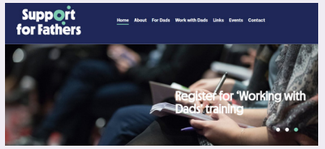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시는 '아빠가 아빠를 돕는다(Father Helping Fathers)'라는 슬로건 하에 예비 아빠 및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아빠를 가정방문하여 양육에 대해 교육하는 DAD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양육법 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교육, 가족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결 등이 이뤄진다. 또한, 아빠 자조모임(Focus on Fathers)을 주 1회 개최하여 아빠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서로를 지원하는 그룹 형성을 돕고 있다.



자료: Milwaukee Health Department. DAD Project.
https://city.milwaukee.gov/Health/Services-and-Programs/DAD

2) 호주 | Support for Fathers (아버지교육 포털)

호주는 'Support for Fathers' 사이트를 통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아빠를 위한 감정코칭(Dads Turning in to Kids), 양육 참여(The Fathering Project) 등의 정보와 함께 지역별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 upport for Fathers. https://supportforfathers.com.au/

3) 동유럽 | Father Schools (아버지학교)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성불평등 지수가 높은 동유럽의 아르메니아, 몰도바 등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아버지학교(Father Schools)를 설립하여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임신한 파트너의 출산 준비, 기저귀 등의 육아용품을 담은 '아빠 가방' 꾸리는 법, 영유아를 안는 방법 등이다. 아버지학교 이외에도 아빠 클럽(father's clubs),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father-child activities), 진짜 아빠 챌린지(21 days of real father challenge) 등을 실시하여 아빠의 양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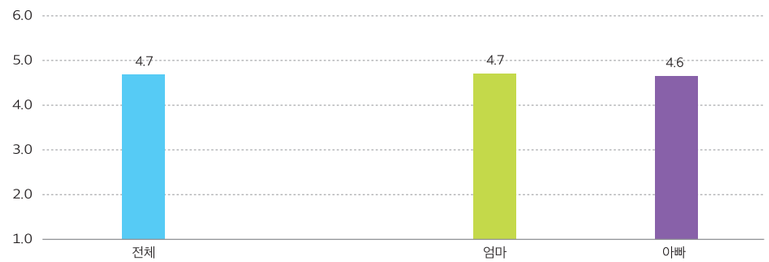
자료: UN Women (2021. 6. 20.). Involved fathers mean happier families.
https://eca.unwomen.org/en/news/stories/2021/06/feature-story-involved-fathers-mean-happier-families

성인 자녀와의 친밀감

• **성인 자녀와의 친밀감: 성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에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의 첫째 자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범위: 1-6점)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 **4.7점**으로 **'많이 가깝다'(5점)**에 근접하였음
- 성별로는 **엄마**(4.7점)가 아빠(4.6점)보다 성인 자녀와 느끼는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나의 첫째 자녀와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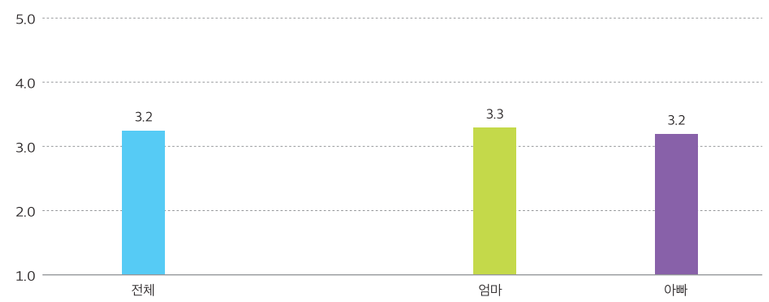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엄마 223명, 아빠 188명)

성인 자녀의 부모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 **부모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성인 자녀의 부모 전체 및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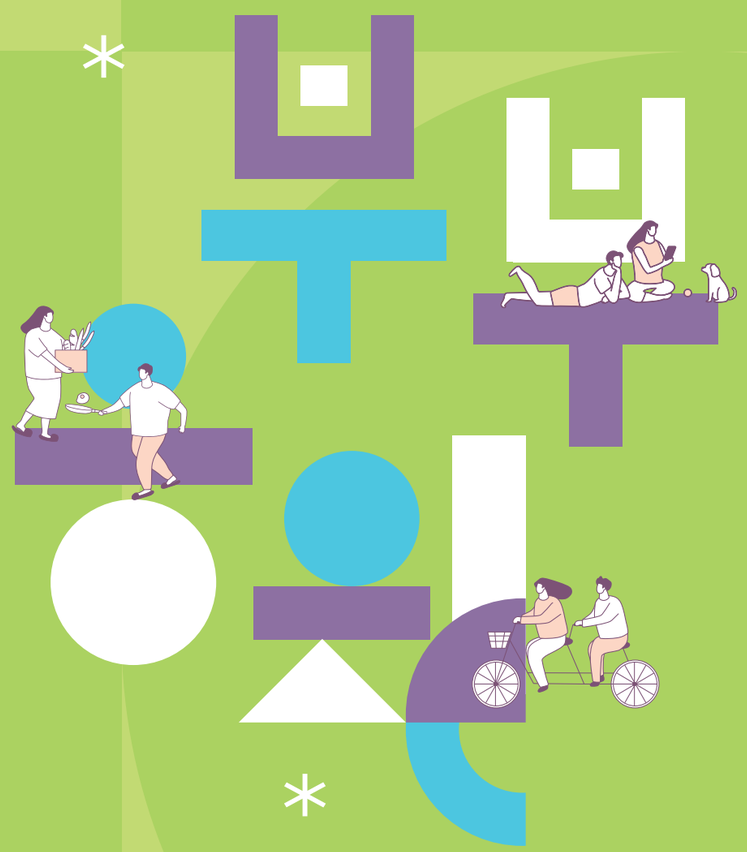
-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서울시 부모가 인식한 자신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범위: 1-5점)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았음**. 여기서 헬리콥터 부모 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함(이재림, 2022; LeMoyne & Buchanan, 2011)
- 부모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주: 헬리콥터 부모 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이재림, 2022; LeMoyne & Buchanan, 2011)를 의미하며, 헬리콥터 부모 역할 수준을 측정하는 Lemoyne와 Buchanan(2011)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강시은, 이재림(2017)의 척도 7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엄마 233명, 아빠 188명)

PART 3



CONTENTS

1. 결혼 생활 및 부부 관계 ····· 88
2.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 100
3. 결혼에 대한 태도 ·····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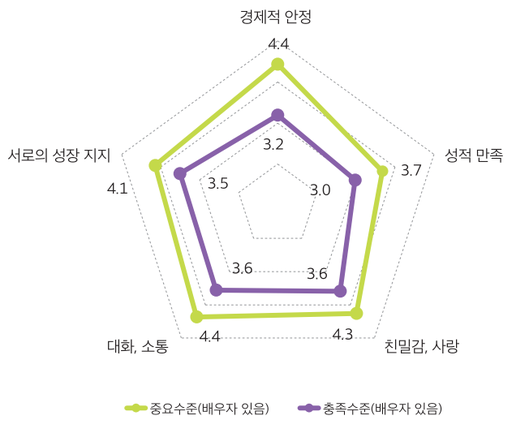
1 결혼 생활 및 부부 관계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및 충족 수준

•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및 충족 수준: 유배우자 전체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결혼 생활의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결혼 생활에서 다음을 충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은 '경제적 안정'(4.4점), '대화, 소통'(4.4점), '친밀감, 사랑'(4.3점), '서로의 성장 지지'(4.1점), '성적 만족'(3.7점)의 순이었음
- 성별 차이는 '경제적 안정'(여성 4.5점, 남성 4.4점), '성적 만족'(여성 3.5점, 남성 3.9점)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다음을 얼마나 충족하고 계십니까?'**(범위: 1-5점)라고 질문하였음. 앞서 질문한 중요 수준의 평균과 비교할 때 모든 항목의 **충족** 수준이 중요 수준보다 **낮았음**
-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경제적 안정'**(1.2점 차이)이었고, 이어 '대화, 소통'(0.8점 차이), '성적 만족'(0.7점 차이), '친밀감, 사랑'(0.7점 차이)의 순서였음
- 성별 차이는 '대화, 소통'(여성 3.5점, 남성, 3.6점) 이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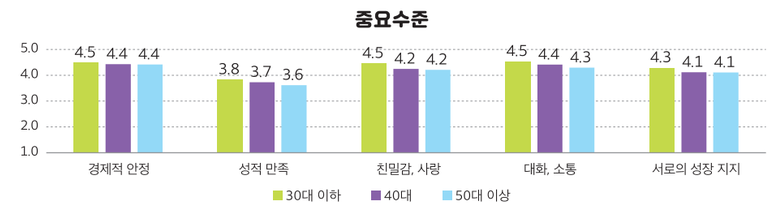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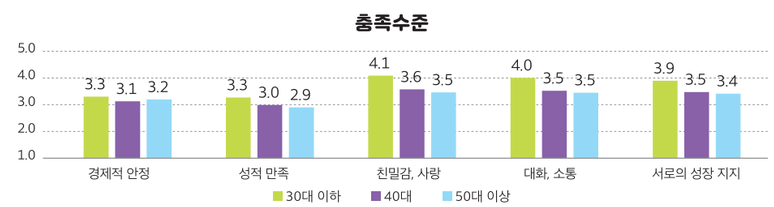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및 충족 수준: 연령대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결혼 생활의 **중요 수준** 중 **'친밀감, 사랑'**은 **40대 이상**(4.2점)이 30대 이하(4.5점)보다 **낮았고**, **'대화, 소통'**(30대 이하 4.5점, 50대 이상 4.3점)과 **'서로의 성장 지지'**(30대 이하 4.3점, 50대 이상 4.1점)는 **50대 이상**이 30대 이하에 비해 낮았음
- 결혼 생활의 **충족 수준** 중 **'성적 만족'**, **'친밀감, 사랑'**, **'대화, 소통'**, **'서로의 성장 지지'**는 40대 이상이 30대 이하보다 **낮았음**
- '경제적 안정'의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 '성적 만족'의 중요 수준은 연령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중년기 부부, 소통과 친밀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배우자가 있는 40대 이상 집단에서는 '대화, 소통', '친밀감, 사랑'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지만, 충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중년기 부부들이 서로 간의 대화나 소통, 친밀감 등을 결혼 생활에서 기대 수준만큼 충족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격차는 부부 관계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이상의 부부를 위한 부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족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결혼지속연수가 짧은 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비 및 신혼부부 이외에 중년기 부부의 관계 강화 교육도 가족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중년기 부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해 부부 교육 이외에도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가족센터의 가족여가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여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년기 부부가 자녀의 부모가 아닌 배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부 여가 및 취미 프로그램, 부부 데이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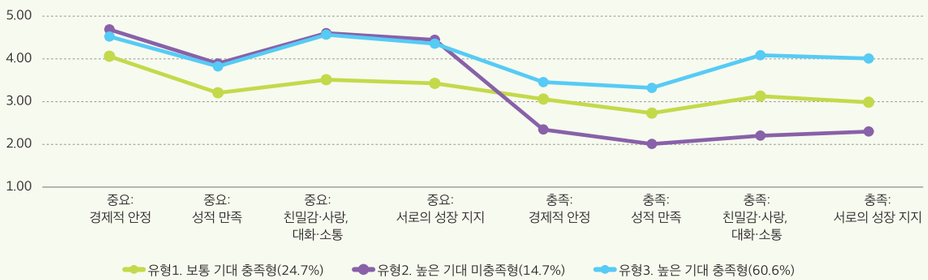
2024 서울가족 클로즈업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유형화

결혼 생활의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은 어떻게 분류될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응답한 결혼 생활의 4가지 영역 ① 경제적 안정, ② 성적 만족, ③ 친밀감·사랑, 대화·소통, ④ 서로의 성장 지지의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을 분류지표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세 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보통 기대 충족형'(24.7%)**은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이 모두 '보통'인 집단으로, 높지 않은 수준의 기대가 충족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은 기대 미충족형'(14.7%)**은 결혼 생활의 4개 영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충족 수준은 낮은 집단으로, 기대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이다. **'높은 기대 충족형'(60.6%)**은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집단으로, 영역별 중요 수준과 충족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까?

- ☑ 여성일 때
-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 ☑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 ☑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 ('보통 기대 충족형'보다) **'높은 기대 충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 ☑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 ('보통 기대 충족형'보다) **'높은 기대 미충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 ☑ 자녀가 없을 때
- ☑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이 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 ☑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 ☑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 ('높은 기대 미충족형'보다) **'높은 기대 충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음**

요약하면, '높은 기대 충족형'은 '보통 기대 충족형' 및 '높은 기대 미충족형'과 비교하여 여성일 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나와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높은 기대 미충족형'**은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어떤 유형이 부부 관계가 좋을까?

- ☑ 배우자와의 친밀감
- ☑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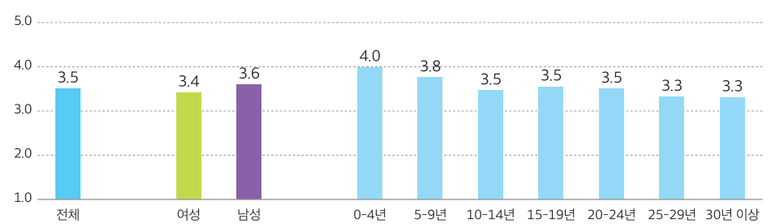
> 높은 기대 충족형 > 보통 기대 충족형 > 높은 기대 미충족형

배우자와의 친밀감,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의 평균은 '높은 기대 충족형'이 가장 높았고, '보통 기대 충족형'이 다음이었으며, '높은 기대 미충족형'이 가장 낮았다. 즉,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배우자와 거리감을 느끼고 부부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기혼 서울 시민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범위: 1-5점)은 **평균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충분'(4점) 사이였음
▶ 성별로는 **남성**(3.6점)이 여성(3.4점)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결혼지속연수가 0-4년**인 집단(4점)이 25년 이상인 집단(25-29년 3.3점; 30년 이상 3.3점)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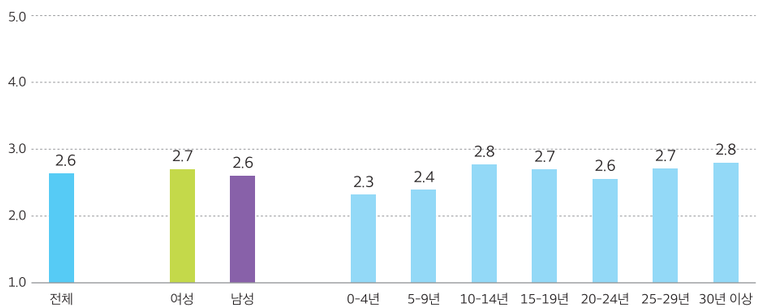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기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범위: 1-5점)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 사이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결혼지속연수가 30년 이상**인 집단(2.8점)이 0-4년인 집단(2.3점)보다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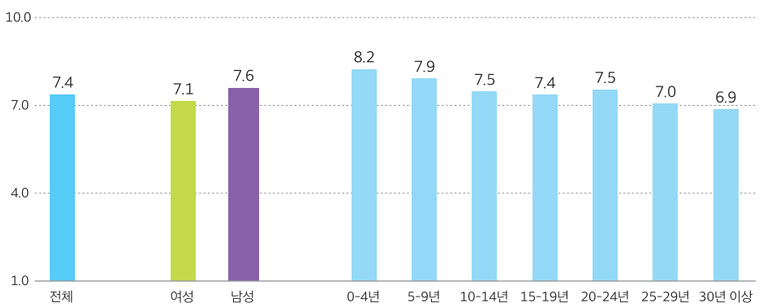
단위(점)

주: 연인 및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Stanley와 동료들(2004)의 척도 중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기혼 서울 시민에게 최근 1개월 동안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범위: 1-10점) 질문한 결과 **평균**은 **7.4점**으로 높은 편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7.6점)이 여성(7.1점)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행복**했다고 인식했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가 0-4년**인 집단(8.2점)이 25년 이상인 집단(25-29년 7점; 30년 이상 6.9점)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했다고 인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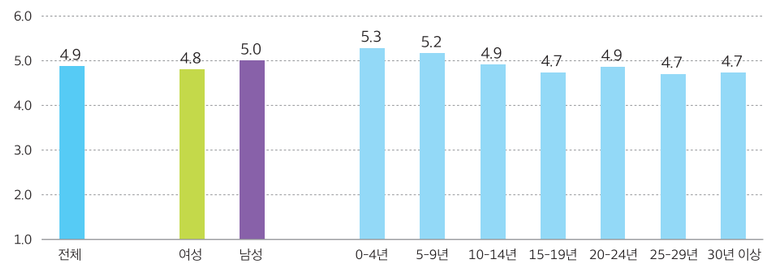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 754명)

• **배우자와의 친밀감: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기혼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친밀감(범위: 1-6점) 수준은 **평균 4.9점**으로 높았음
- 성별로는 **남성**(5점)이 여성(4.8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 결혼지속연수별로는 **결혼지속연수 0-4년**인 집단(5.3점)이 15-19년(4.7점), 25년 이상인 집단(4.7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배우자와의 친밀감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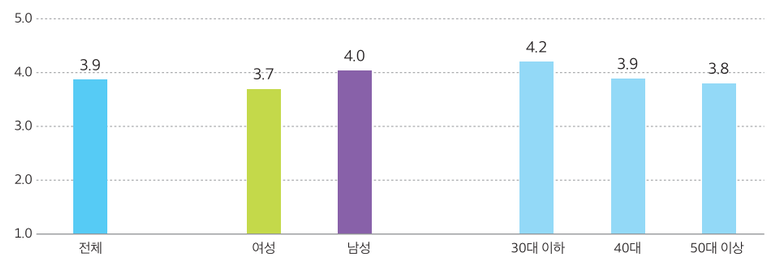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 754명)

결혼에 대한 만족 및 후회

•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함: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나는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했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이 여성(3.7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었음
- 연령대별로 **30대 이하**(4.2점)는 40대(3.9점)와 50대 이상(3.8점)보다 **'결혼하기를 잘했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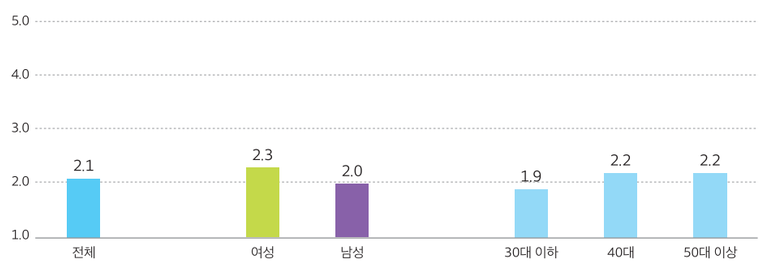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 결혼에 대한 후회: 전체, 성별, 연령대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2.1점**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았음
- 성별로는 **남성**(2점)이 여성(2.3점)보다 동의 수준이 **낮았음.** 즉 남성이 여성보다 덜 후회하였음
- 연령대별로 **30대 이하**(1.9점)는 40대(2.2점)와 50대 이상(2.2점)에 비해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았음**
- 결혼에 대한 만족과 후회를 종합해보면, 30대 이하 집단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고, 결혼한 것에 대해 덜 후회하였음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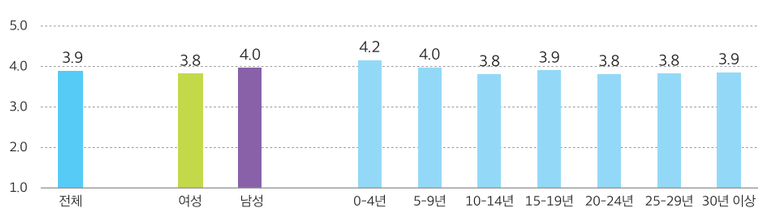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노력: 본인 및 배우자

•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본인의 노력: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했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이 여성(3.8점)보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결혼지속연수가 0-4년**인 집단(4.2점)은 10년 이상인 집단(3.8점)보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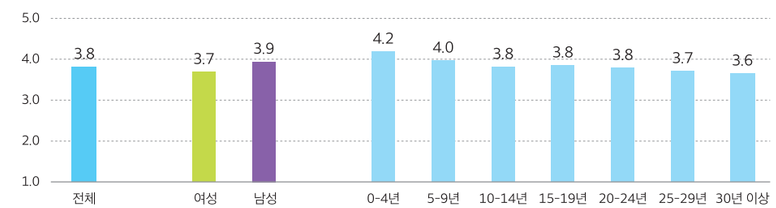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배우자의 노력: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8점**으로, '대체로 그렇다'(4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9점)이 여성(3.7점)보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종합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나'와 '배우자' 모두**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음
- **결혼지속연수가 0-4년인 집단**(4.2점)은 25-29년(3.7점)과 30년 이상(3.6점)인 집단보다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나의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부부의날 기념 프로그램

강북구가족센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축제 '커플페스타'

강북구가족센터는 결혼을 준비 중인 커플 또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위한 축제 '커플 페스타'를 2024년 5월에 개최하였다. 커플페스타는 부부관계 전문가 및 가계재무 전문가의 토크콘서트, 부부의 날 기념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자료: 패밀리서울. [강북구] "Marriage Begins" 커플 페스타! COUPLE FESTA https://familyseoul.or.kr/node/22820

강동구가족센터:
부부의날 기념 쇼츠 챌린지 '사랑의 순간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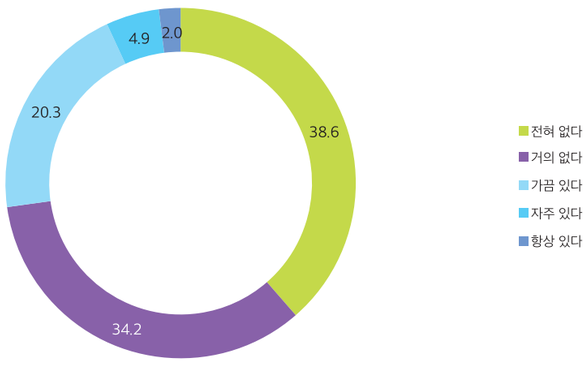
강동구가족센터는 5월 21일 부부의날을 기념하여 '사랑의 순간을 담다'라는 쇼츠 챌린지(영상 공모전)를 2024년 5월에 실시하였다. 강동구 부부의 소중한 순간을 60초 이내의 영상으로 공모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다 하나의 가족축제'에서 '쇼츠 전시회'를 통해 부부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였다. 해당 영상은 강동구가족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 강동구가족센터 유튜브(2024. 5. 14.). "제5회 부부의 날_쇼츠 챌린지_ 사랑의 순간을 담다"
https://www.youtube.com/watch?v=VVKkgRB8rNY
2) 서울복지신문(2024. 4. 15.). "강동구, '제5회 부부의 날 기념' 쇼츠 공모전 개최"
https://www.sw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4704

이혼 고민 경험

• **이혼 고민 경험: 전체**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 중 **27.2%**는 지난 1년 간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가끔', '자주', '항상' 있었음**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2024 서울가족정책

부부를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맞춤형 부부컨설팅 '신혼의 발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가족센터마다 차별적인 가족상담특화사업을 실시한다. 강남구가족센터는 가족상담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신혼의 발견' 프로그램을 2024년 4월에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부부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기 부부를 대상으로 개인별 성격 및 기질 검사, 부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다.

자료: 강남구청 보도자료(2024. 4. 9.). "강남구, 다양화된 가족 겨냥한 5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3575/view.do?mid=ID01_0313

결혼검진

'결혼검진'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회기와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는 회기로 구성된 초단기 상담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우철 교수를 중심으로 가족센터에서 확산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4년에 10개 가족센터(강북, 관악,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서초, 성동, 송파, 은평)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료: 미선임파서블 유튜브(2023 12. 8). "나 오늘은... 결혼 얘기 하고 싶어서 빵을 샀어..."
https://www.youtube.com/watch?v=LystmW83BWw

해 / 외 / 사 / 례

영국 | 유자녀 부부 갈등 감소를 위한 Reducing Parental Conflict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부모의 갈등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Reducing Parental Conflic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가 스스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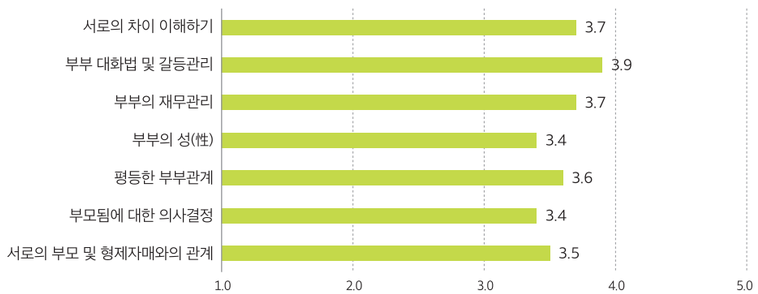
- 부부의 소통 기술, 갈등 관리 방법 등 부부 교육 프로그램
- 현장 실무자(사회복지사, 교사 등)에게 부부갈등 해결방안 교육
- 부모갈등 전문가 개입을 위한 도구(toolkit) 개발
-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 지원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자료: 1) GOV.UK (2021. 11. 21.). Reducing Parental Conflict.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reducing-parental-conflict-programme-and-resources
2) Early Intervention Foundation. Reducing Parental Conflict Hub. https://reducingparentalconflict.eif.org.uk/
3) National Centre for Family Hubs. Reducing Parental Conflict.
https://www.nationalcentreforfamilyhubs.org.uk/toolkits/reducing-parental-conflict/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

•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 유배우자 전체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희망하는 부부 교육 7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요구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부부 대화법 및 갈등 관리'**(평균 3.9점),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평균 3.7점), **'부부의 재무관리'**(평균 3.7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질문한 **'부모됨에 대한 의사결정'**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희망한다'(4점)의 사이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그래프를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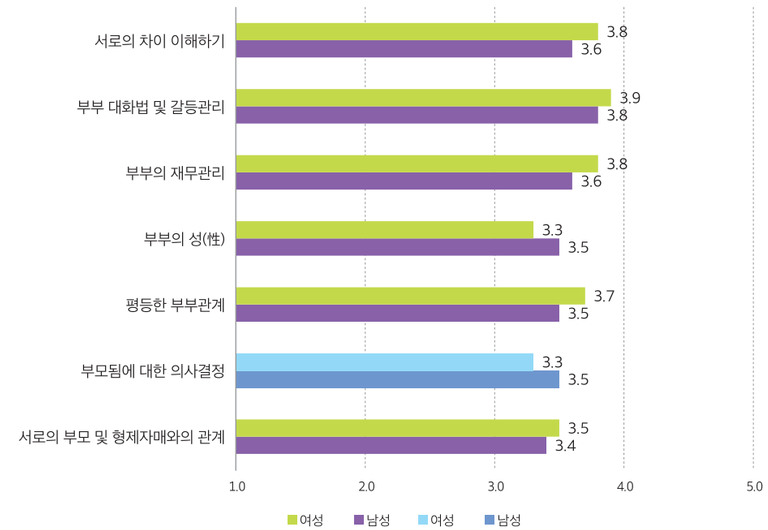


단위(점)

주: '부모됨에 대한 의사결정(예: 아이를 가질 것인가, 언제 가질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항목은 자녀가 없는 유배우자 122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122명)

• 부부 교육 주제별 요구도: 성별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여성 3.8점, 남성 3.6점), **'부부의 재무관리'**(여성 3.8점, 남성 3.6점), **'평등한 부부관계'**(여성 3.7점, 남성 3.5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 배우자가 있는 **남성**은 여성보다 **'부부의 성(性)'**(여성 3.3점, 남성 3.5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 그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주: '부모됨에 대한 의사결정(예: 아이를 가질 것인가, 언제 가질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항목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여성 71명, 남성 51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는 응답자 1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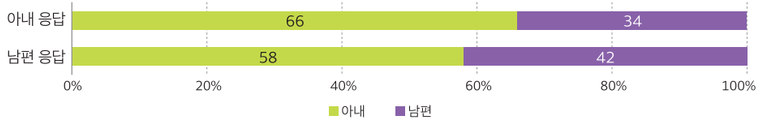
2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가사 및 돌봄 분담

• **배우자와의 가사 등 집안일 분담: 성별**

- 가사 등 집안일 전체를 100%로 하고 아내와 남편의 수행 비율을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은 **아내:남편 = 66:34**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아내:남편 = 58:42**라고 생각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내가** 가사를 남편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여성이 응답한 아내의 분담율이 더 높았음

배우자와의 가사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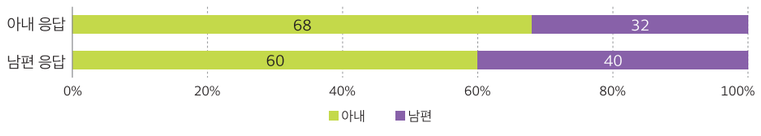
단위(%)

주: 가사 등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분담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본인의 분담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분담 비율의 평균임. 남편의 분담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분담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본인의 분담 비율의 평균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및 교육 분담: 성별**

- 자녀 돌봄 및 교육 전체를 100%로 하고 아내와 남편의 수행 비율을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은 **아내:남편 = 68:32**라고 생각하였고, **남성**은 **아내:남편 = 60:40**이라고 생각하였음
-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내가** 자녀 돌봄 및 교육을 남편보다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여성이 응답한 아내의 분담율이 더 높았음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및 교육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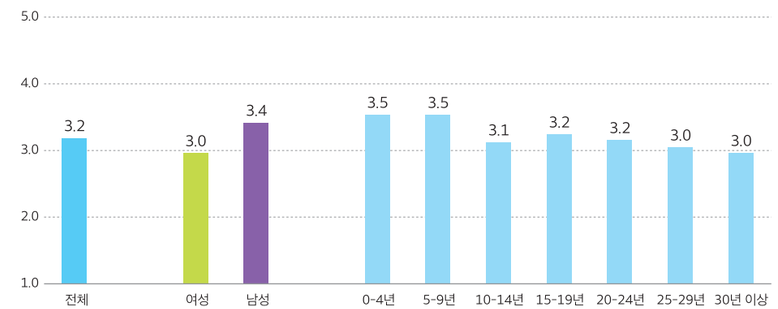
단위(점)

주: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아내의 분담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본인의 분담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분담 비율의 평균임. 남편의 분담 비율은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의 분담 비율과 남성이 응답한 본인의 분담 비율의 평균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내 136명, 남편 170명)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

•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 전체, 성별, 결혼지속연수별**

- 기혼 서울 시민이 인식한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범위: 1-5점)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 수준이었음
- **남성**(3.4점)이 여성(3점)보다 가사 및 돌봄 분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였음
- **결혼지속연수가 0-4년**(3.5점), **5-9년**(3.5점)인 집단이 10년 이상인 집단에 비해 가사 및 돌봄 분담이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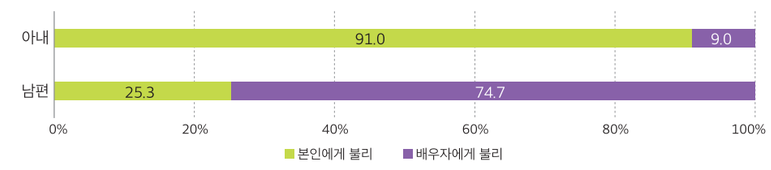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 **공평하지 않다면 누구에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별**

-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 수준이 보통 이하인 서울 시민에게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에게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남편의 74.7%는 아내에게 더 불리**하다고 하였고, **아내의 91%는 본인이 더 불리**하다고 응답하였음
- 아내와 남편 모두 가사 및 돌봄 분담이 아내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아내가 더욱 그렇게 생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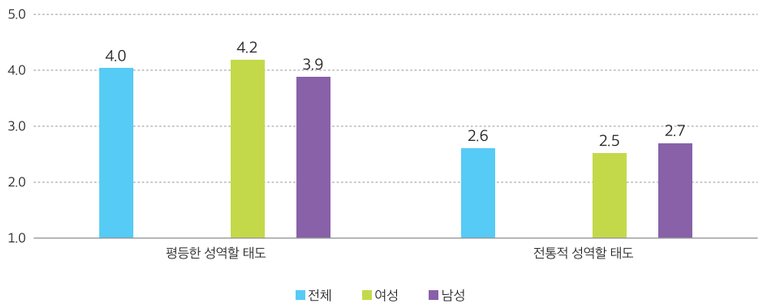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 분담이 '전혀 공평하지 않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 '보통이다'인 아내 234명, 남편 174명)

가정 내 성 역할 태도

• 평등한 성 역할 태도, 전통적 성 역할 태도: 전체 및 성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평등한 성 역할 태도**(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4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고, 여성(4.2점)이 남성(3.9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전통적 성 역할 태도**(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고, **남성**(2.7점)의 전통적 성 역할 태도의 평균이 여성(2.5점)보다 **높았음**



단위(점)

주: 1) 평등한 성 역할 태도는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여자와 남자는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전통적 성 역할 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자여야 한다',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여자의 책임이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4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54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가사 및 돌봄 분담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 방안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은 평등한 성 역할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실제 가사 및 돌봄에서는 여전히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내가 가사와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분담이 아내에게 더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제공자라는 전통적 성 역할 분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에게 가사 및 돌봄 부담이 편중되어 있었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성평등 인식과 실제 행동의 간극을 좁히고 부부의 공평한 가사분담 및 공동육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한 지 10년 이상인 경우 공평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부부가 결혼 초기의 공평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에서 분담 및 공평성 유지 전략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서울가족학교는 예비·신혼부부교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10년 이상인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부교실 신설을 제안한다. 부부교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을 계산해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실천전략을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해 볼 수 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도록 스페인의 가사분담 측정 애플리케이션의 예를 소개한다.

해 / 외 / 사 / 례

스페인 | 가사분담 시간 측정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페인 정부는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일에 할애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가사분담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사노동 시간을 측정하여 실제 생활에서의 가사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이 가사분담 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 1) The Olive Press (2023. 5. 16.). "Spain's Ministry of Equality to launch app to find out if men and women do the same household chores" https://www.theolivepress.es/spain-news/2023/05/16/spains-ministry-of-equality-to-launch-app-to-find-out-if-men-and-women-do-the-same-household-chores/
2) CNN World (2023. 5. 18.). "Do men shun household chores? Spain is launching an app to find out" https://edition.cnn.com/2023/05/18/europe/spain-household-chores-app-scli-intl-wellness/index.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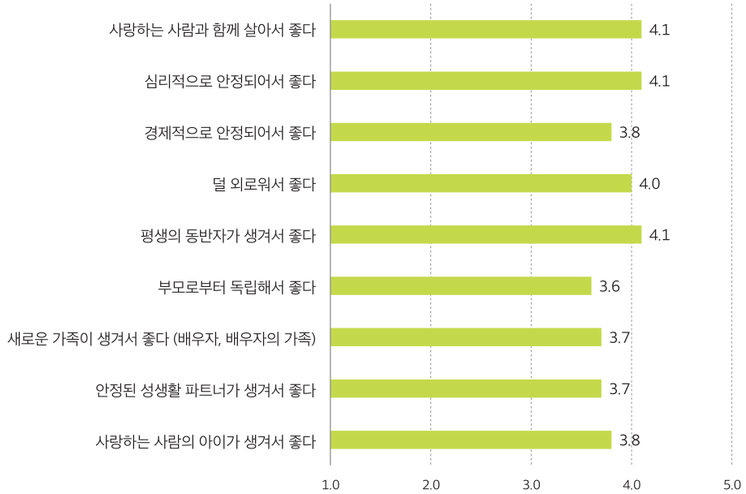
3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따르는 이점

• 결혼에 따르는 이점: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결혼에 따르는 9가지 측면의 이점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평균 4.1점),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평균 4.1점), **'평생의 동반자가 생겨서 좋다'**(평균 4.1점)의 평균이 높은 편이었음
- 결혼에 따르는 이점 중에서도 **정서적 만족감과 친밀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음

결혼하면 ○○○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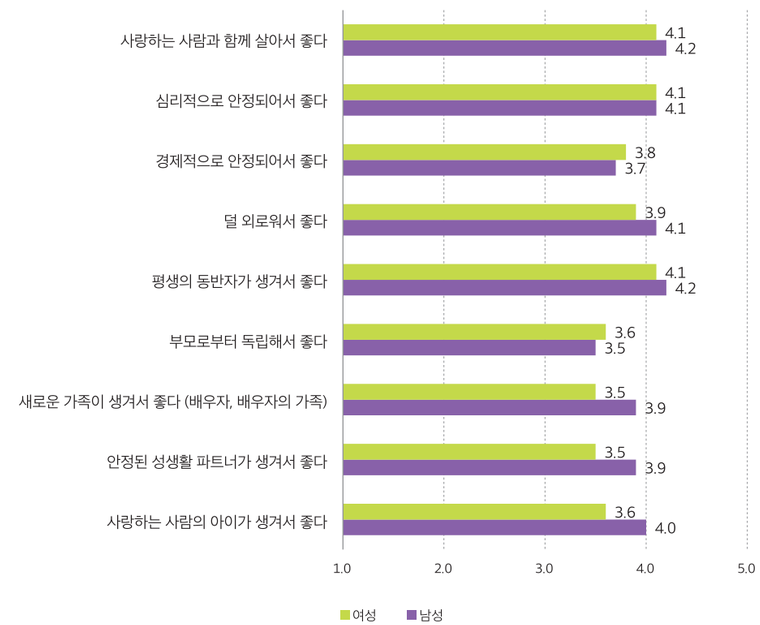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결혼에 따르는 이점: 성별

- 여성과 남성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대부분 남성의 동의 수준이 여성보다 약간 더 높아,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남성이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성별 차이가 컸던 항목**은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다(배우자, 배우자의 가족)'**(여성 3.5점, 남성 3.9점), **'안정된 성생활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여성 3.5점, 남성 3.9점),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가 생겨서 좋다'**(여성 3.6점, 남성 4점)였음
-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좋다'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면 ○○○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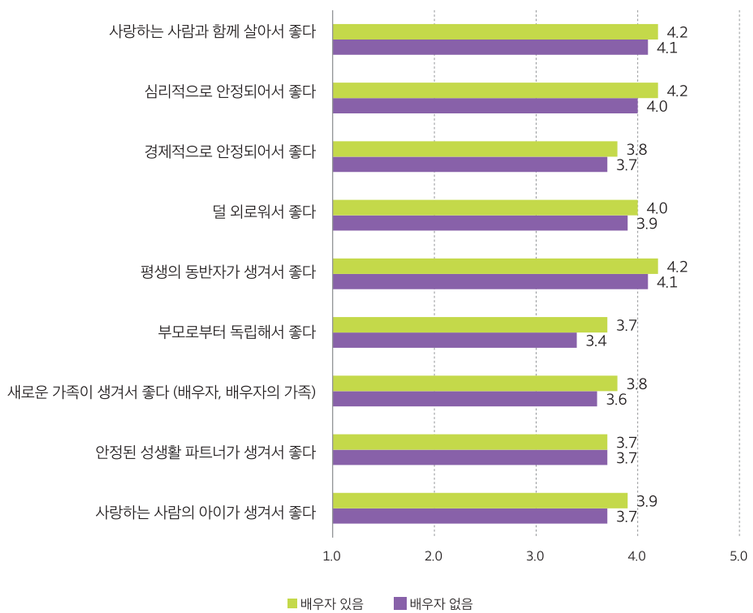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결혼에 따르는 이점: 배우자 유무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과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이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보다 약간 더 **높았음**.
  즉, **결혼에 따르는 이점에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이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서 좋다', '안정된 성생활 파트너가 생겨서 좋다' 항목에 대한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면 ○○○해서 좋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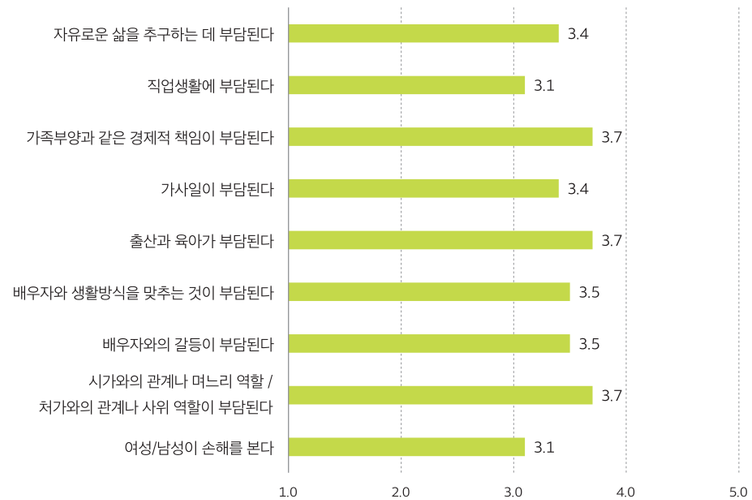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결혼에 따르는 부담

• 결혼에 따르는 부담: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결혼에 따르는 9가지 측면의 부담에 동의하는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한 결과, **'가족부양과 같은 경제적 책임이 부담된다'**(평균 3.7점), **'출산과 육아가 부담된다'**(평균 3.7점), **'시가(처가)와의 관계나 며느리(사위) 역할이 부담된다'**(평균 3.7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결혼하면 ○○○이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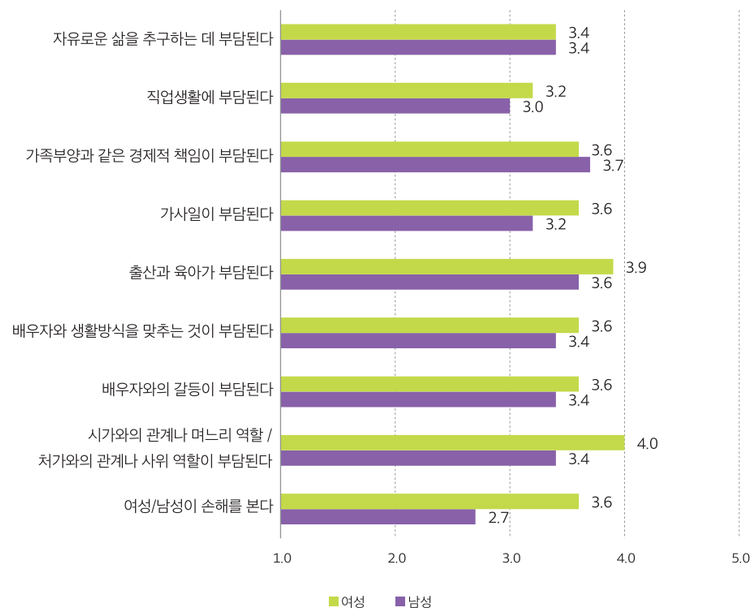
단위(점)

주: 성별에 따라 질문을 달리한 문항이 있음(여성: '여성이 손해를 본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결혼에 따르는 부담: 성별

- 결혼에 따르는 여러 측면의 부담에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 **특정 젠더에게 결혼이 손해**라는 점(여성 3.6점, 남성 2.7점), **배우자의 부모 및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여성 4점, 남성 3.4점), **가사일 부담**(여성 3.6점, 남성 3.2점)과 같은 **성 역할 분담 및 결혼 관련 젠더 이슈**에 대해 **여성**이 더 **동의**하였고, **성별 점수의 차이가 특히 컸음**
-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 부담된다' 항목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면 ○○○이 부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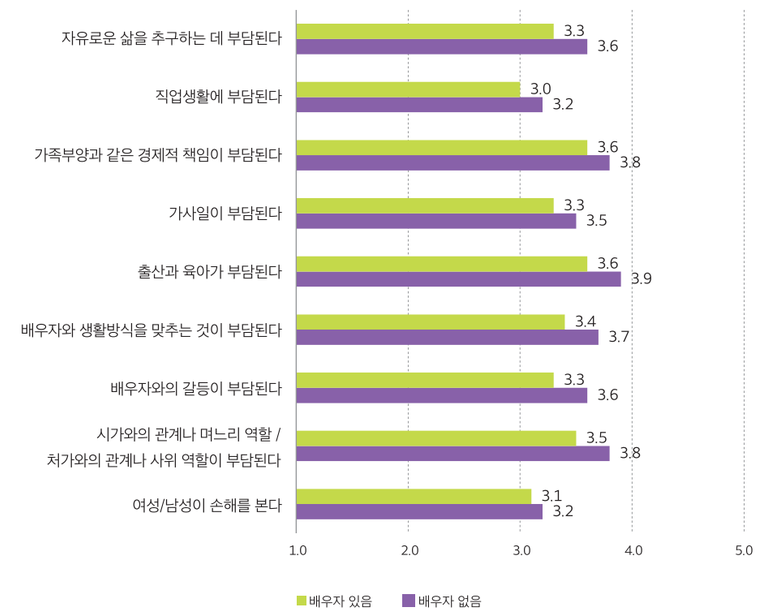
단위(점)

주: 성별에 따라 다음 문항은 표현이 달랐음(여성: '여성이 손해를 본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결혼에 따르는 부담: 배우자 유무별

-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과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의 응답 경향이 비슷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의 동의 수준이 배우자가 있는 서울 시민보다 약간 더 **높았음**.
  즉, **결혼에 따르는 부담에 배우자가 없는 서울 시민**이 **더 동의**하는 경향이었음

결혼하면 ○○○이 부담된다



단위(점)

주: 성별에 따라 질문을 달리한 문항이 있음(여성: '여성이 손해를 본다', '시가와의 관계나 며느리 역할이 부담된다'; 남성: '남성이 손해를 본다', '처가와의 관계나 사위 역할이 부담된다')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결혼에 따르는 부담 경감으로 친밀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서울 시민은 결혼에 따르는 다양한 측면의 이점에 동의했지만 경제적 부양, 출산 및 육아, 며느리(사위) 역할 등의 측면에서 결혼에 따르는 부담 또한 인식하였다. 이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향상하되, 결혼을 선택하려는 사람들과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담을 낮추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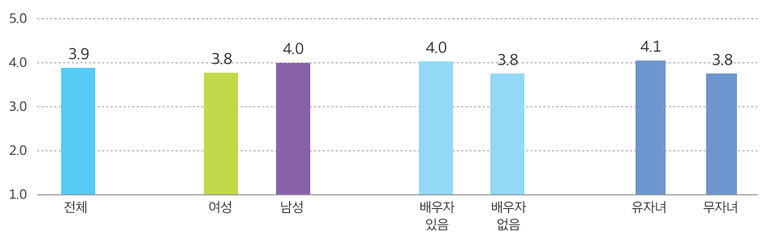
현재 한국 사회에는 결혼이 가진 이점에 동의하지만, 결혼에 따르는 부담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이 많다. 여기서 결혼에 따르는 부담은 대부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선호하지만 결혼에 따르는 임신, 출산, 육아가 부담되어 결혼을 꺼리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결혼과 부모됨을 분리하여 무자녀 부부로의 삶을 지원하는 접근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됨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결혼에 따르는 부담으로 인해 친밀성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의미

• **자녀는 부부 관계를 굳건하게 한다: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자녀는 부부 관계를 굳건하게 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은 여성(3.8점)보다 동의 수준의 **높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4점)은 배우자가 없는 집단(3.8점)보다 **동의**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유자녀 집단**(4.1점)은 무자녀 집단(3.8점)보다 **동의**하였음

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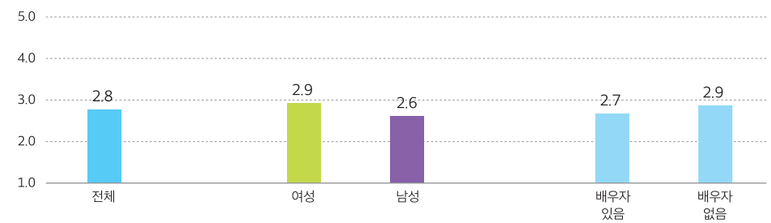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분거 부부, 이혼, 재혼, 졸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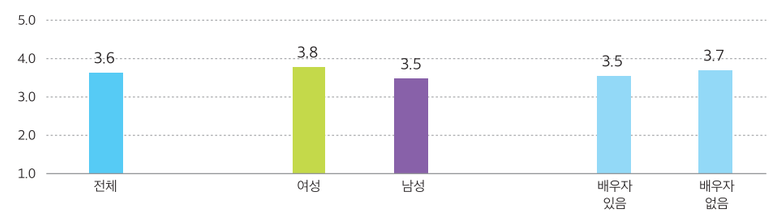
• **부부의 분거 및 이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사이였음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의 분거(여성 2.9점, 남성 2.6점)와 이혼(여성 3.8점, 남성 3.5점)에 **동의하였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부부의 분거(유배우자 2.7점, 무배우자 2.9점)와 이혼(유배우자 3.5점, 무배우자 3.7점)에 **동의하였음**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괜찮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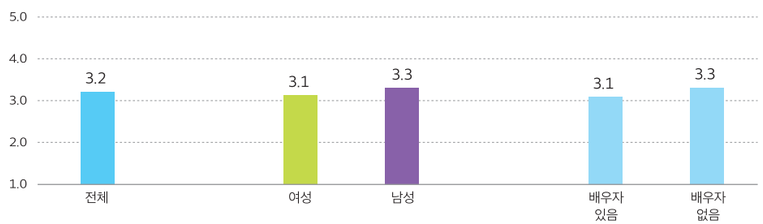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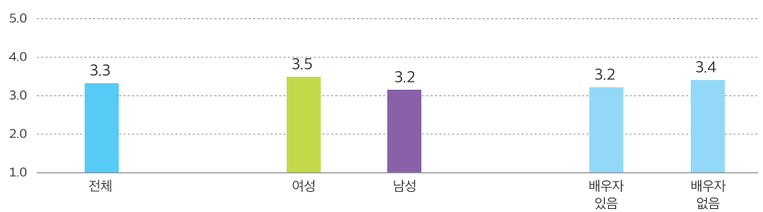
• **재혼 및 졸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사별·이혼 후 재혼하는 것이 좋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졸혼하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도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재혼**(여성 3.1점, 남성 3.3점)에 동의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졸혼**(여성 3.5점, 남성 3.2점)에 **동의하였음**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재혼(유배우자 3.1점, 무배우자 3.3점)과 졸혼(유배우자 3.2점, 무배우자 3.4점)에 **동의하였음**

사별·이혼 후 재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졸혼하는 것도 괜찮다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해 / 외 / 사 / 례

미국 | 이혼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에 동의하는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이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이혼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이혼하는 부모는 법원이 승인한 이혼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혼 부모 교육이 운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혼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미네소타대학교의 'Parents Forever',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의 'Children in Between'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면 프로그램을 온라인 형태로 구현한 다회기 이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시 법원이 제작한 자녀 양육안내(동영상 교육) 수강 및 참석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다. 그러나 이 교육은 단시간 교육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대면교육이 사라지고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한 부모 두 사람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공동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료: 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The Center for Divorce Education. Children in Between. https://divorce-education.com/classes/children-in-between-class/
3) 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 Parents Forever Online.
https://extension.umn.edu/courses-and-events/parents-forever-online#being-successful-with-co-parenting-628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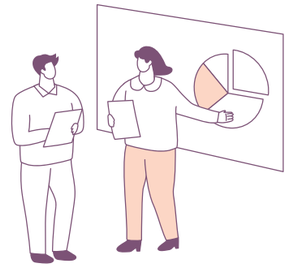
PART 4

가족

CONTENTS

1. 일과 가족 ····· 116
2. 전반적 가족 관계 ····· 120
3. 가족서비스 이용 ····· 126
4. 미래지향적 가족 정책: 방향 및 쟁점 ····· 132

1 일과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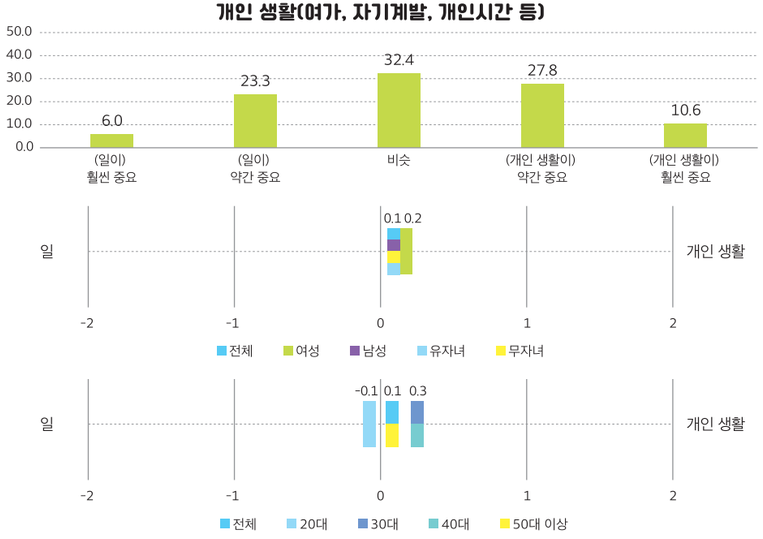


일 vs. 개인 생활 vs. 가족 생활

• **일 vs. 개인 생활: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일(직장, 취업, 진로)'과 '개인 생활(여가, 자기 계발, 개인 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과 개인 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개별 응답보기에 대해서는 일과 개인 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32.4%), '(개인 생활이) 약간 중요하다'(27.8%), '(일이) 약간 더 중요하다'(23.3%)의 순이었음
-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1점**으로 두 가지가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경향이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0.3점) 및 **40대**(0.3점)가 20대(-0.1점)보다 **개인 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및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일(직장, 취업, 진로) vs. 개인 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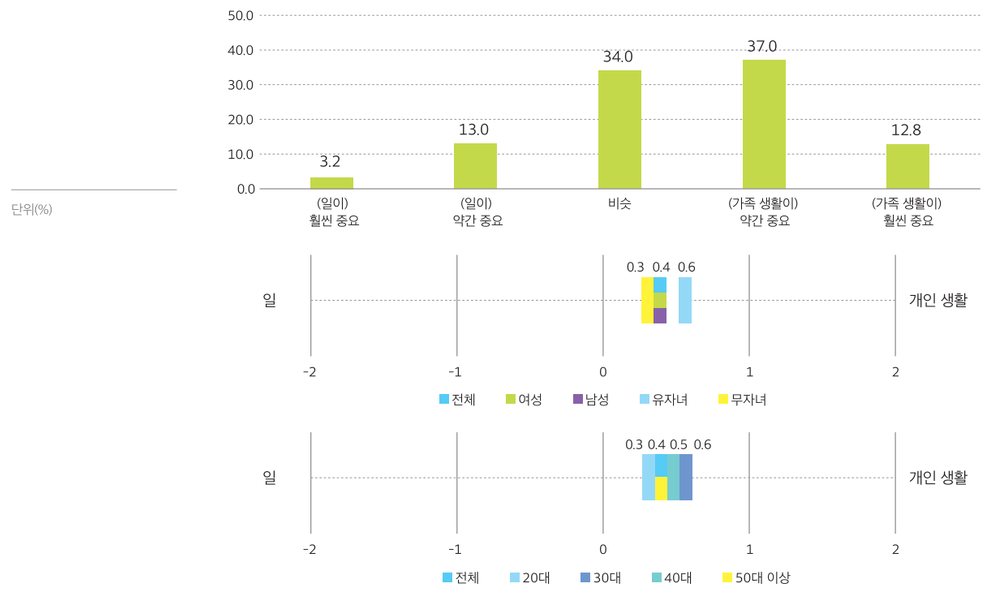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일 vs. 가족 생활: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일(직장, 취업, 진로)'과 '가족 생활(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생활 등)'을 양쪽에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가족 생활이) 약간 중요하다'(37%)**에 이어 **일과 가족 생활의 중요도가 '비슷하다'(34%)**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일과 가족 생활이 '비슷하다'(0점)와 가족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1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0.6점)이 무자녀 집단(0.3점)보다 가족 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30대**(0.6점)가 20대(0.3점)보다 가족 생활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일(직장, 취업, 진로) vs. 가족 생활(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생활 등)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 전체**

- 서울 시민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성**(범위: 1-4점)은 **평균 2.5점**으로,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2점)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3점)의 중간이었음
- **근로 장소 유연성**(범위: 1-4점)은 **평균 2점**으로, 근로 장소를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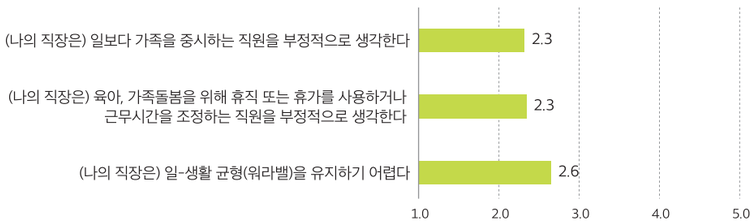
단위(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 및 근로 장소 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함 (역코딩 후 1 = 전혀 조정할 수 없다, 2 = 대체로 조정하기 어렵다, 3 =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4 = 항상 조정할 수 있다)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 1,215명)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전체**

- 근로자인 서울 시민에게 현재의 직장이 얼마나 가족 친화적인지 3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음
- '(나의 직장은) 일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직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3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나의 직장은) 육아, 가족돌봄을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직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3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에 가까웠음
- '(나의 직장은)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유지하기 어렵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았음**
- 세 문항이 모두 **2점대**라는 점에서 서울 시민 근로자는 **본인 직장의 조직 문화가 비교적 가족 친화적이라고 인식**하였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일자리가 있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아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한 응답자 1,168명)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시는 2024년 6월에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임신·출산·양육 등을 장려하거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단축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할 때 포인트를 지급하며,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립 포인트의 양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등급으로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매년 추가 적립 및 단계 상향이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https://www.pointseou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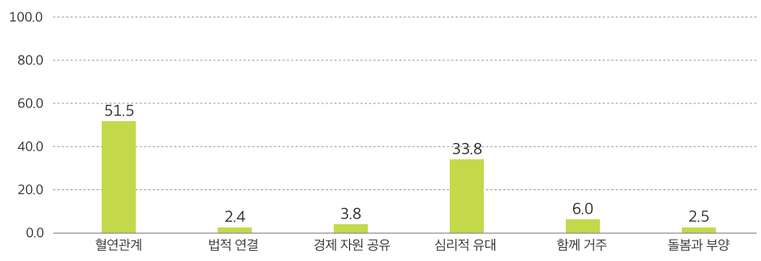
2 전반적 가족 관계

가족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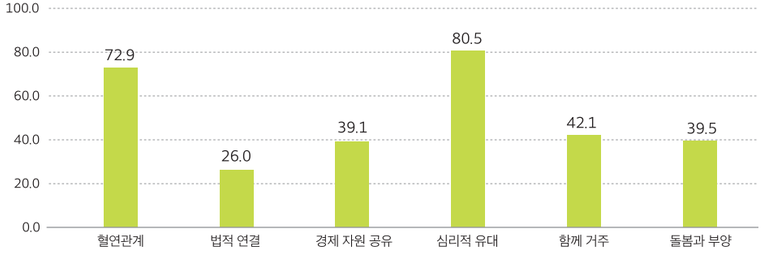
• 가족의 속성: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가족의 속성** 6가지를 제시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 2, 3순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것은 **'혈연관계'**(51.5%)였으며, 그다음은 **'심리적 유대'**(33.8%)였음
- 1, 2, 3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 '심리적 유대'(80.5%)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혈연관계'(72.9%)였음

1순위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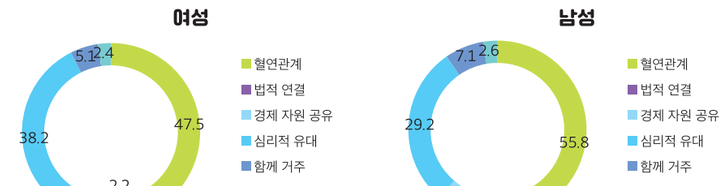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가족의 속성: 성별

-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1순위 항목은 '혈연관계'였으며, 그다음은 '심리적 유대'가 차지하였음
- **'혈연관계'**를 1순위로 선택한 남성의 비율(55.8%)이 여성(47.5%)에 비해 높았음
- **'심리적 유대'**를 1순위로 선택한 여성의 비율(38.2%)이 남성(29.2%)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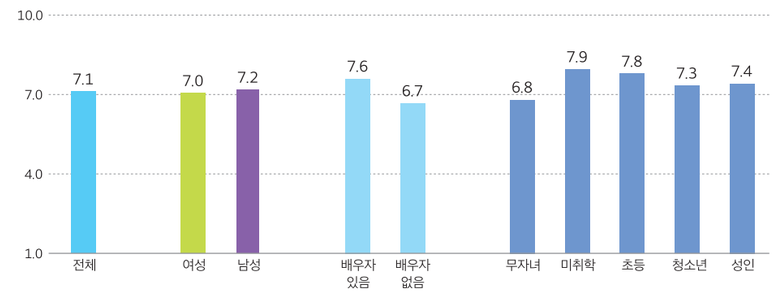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 생활 행복

• 가족 생활 행복: 전체, 성별, 배우자 유무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가족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질문한 결과(범위: 1-10점) **평균은 7.1점**으로, 가족 생활이 **약간 행복했다**고 응답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배우자 유무별**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7.6점)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6.7점)보다 **가족 생활이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유자녀 집단**(7.5점)이 무자녀 집단(6.8점)보다 **가족 생활이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이 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초등학생인 집단(7.8점), 성인인 집단(7.4점), 청소년인 집단(7.3점) 순이었음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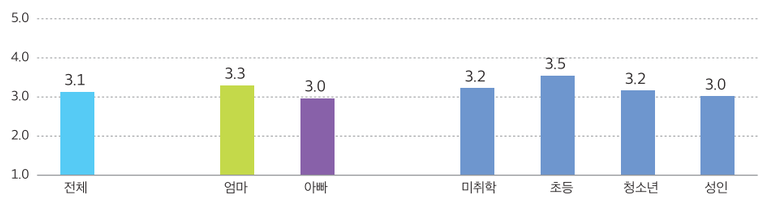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부모-자녀 공유시간 충분성

•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본인과 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범위: 1-5점) 질문한 결과 **평균은 3.1점**으로,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3.3점)이 남성(3점)보다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즉 **엄마**가 아빠보다 자신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집단**(3.5점)이 청소년인 집단(3.2점)과 성인인 집단(3점)보다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본인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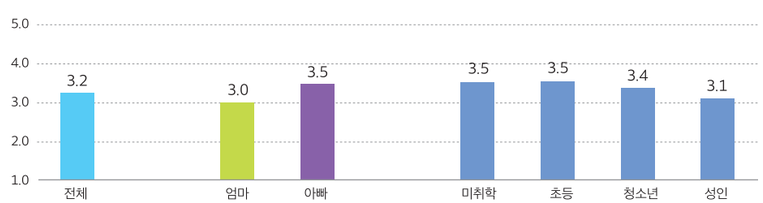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부모 전체, 성별, 자녀 발달단계별**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유하는 시간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범위: 1-5점) 질문한 결과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평균 3.2점)
- **성별**로는 **남성**(3.5점)이 여성(3점)보다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즉 **남편이 생각한 아내-자녀 공유시간 충분성**의 평균이, 아내가 생각한 남편-자녀 공유시간의 충분성 평균보다 높았음
- **자녀 발달단계별**로는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집단**(3.5점)과 **초등학생인 집단**(3.5점)이 성인인 집단(3.1점)보다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음

배우자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충분성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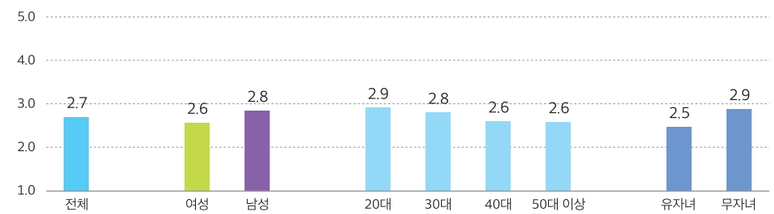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엄마 309명, 아빠 323명; 미취학 73명, 초등 86명, 청소년 104명, 성인 369명)

부모 부양 및 돌봄에 대한 태도

• **노부모-성인 자녀 동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범위: 1-5점)에 **'보통'(3점)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동의하였음**(평균 2.7점)**
- **성별**로는 **남성**(2.8점)이 여성(2.6점)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2.9점)와 **30대**(2.8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무자녀 집단**(2.9점)이 유자녀 집단(2.5점)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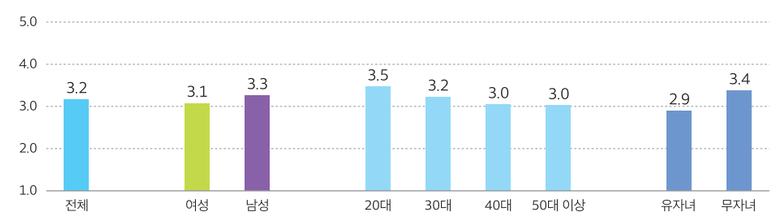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노부모 경제적 부양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응답한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2점**으로, **'보통'(3점)**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3.3점)이 여성(3.1점)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5점)와 **30대**(3.2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무자녀 집단**(3.4점)이 유자녀 집단(2.9점)보다 자녀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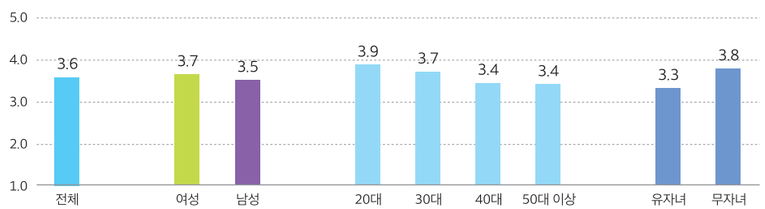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자녀의 성별과 노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응답한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7점)이 남성(3.5점)보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9점)와 **30대**(3.7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무자녀 집단**(3.8점)이 유자녀 집단(3.3점)보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든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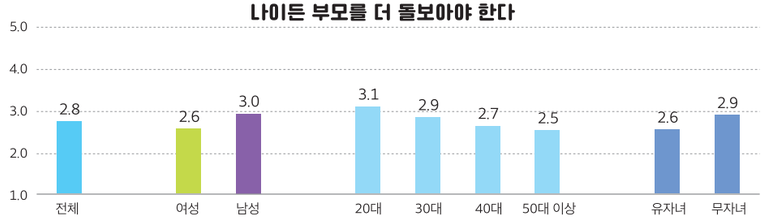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비혼(미혼) 자녀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이 응답한 '(자녀가 둘 이상일 때)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더 돌보아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았음**
- **성별**로는 **남성**(3점)이 여성(2.6점)보다 상대적으로 동의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1점)와 **30대**(2.9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동의하였음
- **자녀 유무**별로 **무자녀 집단**(2.9점)이 유자녀 집단(2.6점)보다 상대적으로 동의하였음

(자녀가 둘 이상일 때)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나이든 부모를 더 돌보아야 한다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가족센터, 다양한 노인 돌봄 제공자의 역량강화 지원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는 자녀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서울 시민의 인식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며느리가 주로 노부모를 돌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성인 자녀가 공동으로, 또는 번갈아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등 돌봄제공자가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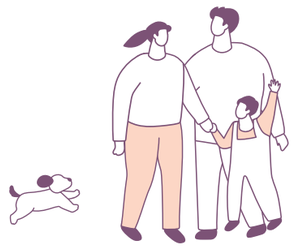
돌봄제공자는 성인 자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가족돌봄청년 중에는 손자녀가 조부모를 돌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령 배우자가 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돌봄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 노인이 아내를 돌볼 때 더 심각한 어려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가족형태 및 파트너십의 다양성 증가에 따라 돌봄 제공자가 동거인, 친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사회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 돌봄 기관 및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왔다. 하지만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일 등은 여전히 가족이 수행한다. 노화 및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의학적 정보뿐만 아니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차원의 의사결정, 형제자매 등 가족 간의 돌봄 분담에 대한 의사소통, 죽음과 상속에 대한 준비 등도 여전히 가족의 역할이다.

가족센터는 자녀 양육기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년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노인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에 대한 경험이 축적된 가족센터는 노인 돌봄 가족의 역량 강화에 노하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 돌봄 제공자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개인 및 가족이 돌봄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예방, 완화하는 교육이나 이들의 강점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자료: 서울시가족센터(2023. 12. 20.). [이슈리포트 Vol. 7] 돌봄과 가족센터. https://familyseoul.or.kr/node/22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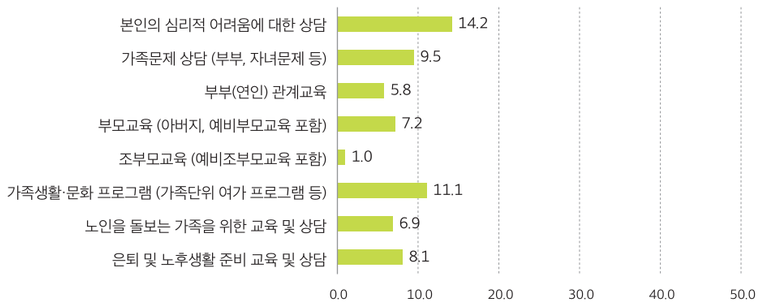
3 가족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경험: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8가지 유형의 가족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해 본 적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본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의 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음
- 다음으로는 '가족 생활·문화 프로그램(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등)'(11.1%), '가족문제 상담(부부, 자녀문제 등)'(9.5%), '은퇴 및 노후생활 준비 교육 및 상담'(8.1%), '부모 교육(아버지, 예비부모 교육 포함)'(7.2%)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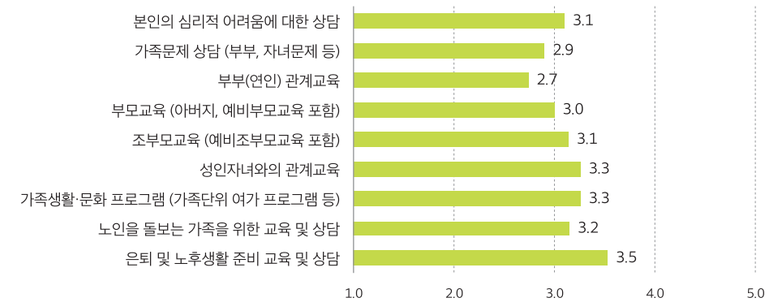
단위(%)

주: '조부모 교육(예비조부모 교육 포함)', '성인 자녀와의 관계교육' 항목은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 411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이용 의향: 전체**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9가지 유형의 가족서비스를 제시하고 이용할 의향(범위: 1-5점)을 조사한 결과, **'은퇴 및 노후생활 준비 교육 및 상담'**의 평균이 **3.5점**으로 **가장 높았음**
- 이어서 '성인 자녀와의 관계교육'(3.3점), '가족 생활·문화 프로그램'(3.3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3.2점) 순으로 이용 의향이 있었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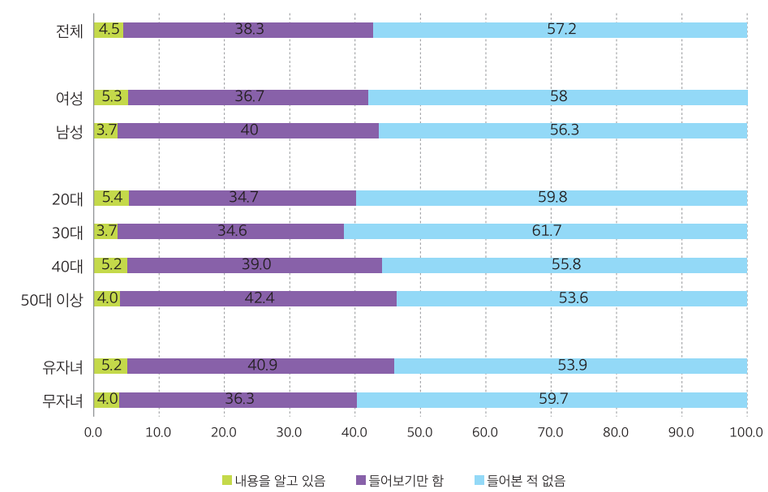
주: '조부모 교육(예비조부모 교육 포함)', '성인 자녀와의 관계교육' 항목은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 411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센터 인지도

• **가족센터 인지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유무별**

- 20-64세 서울 시민의 가족센터 인지도는 가족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57.2%였고, 들어보기는 했으나 서비스의 내용을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38.3%였음. 응답자의 **4.5%만이 가족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알고 있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 집단**(46.1%)이 무자녀 집단(40.3%)보다 가족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귀하는 가족센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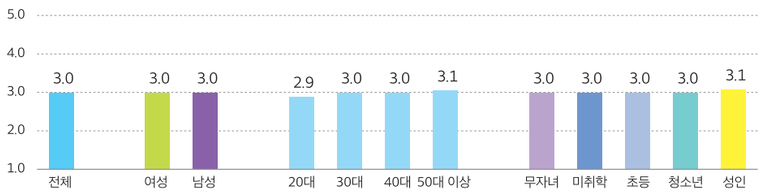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센터 이용 의향

• 가족센터 이용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자녀 발달단계별

- 20-64세 서울 시민에게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범위: 1-5점)을 질문한 결과, 평균 3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 성별, 연령대별, 자녀 발달단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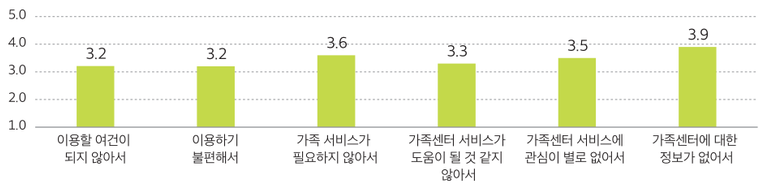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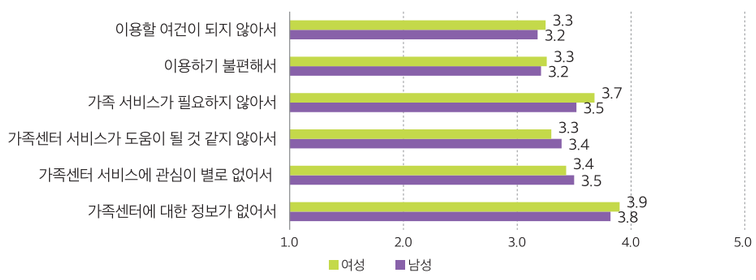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 전체 및 성별

- 가족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범위: 1-5점)를 조사한 결과 **'가족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등)'(평균 3.9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가장 높았음**
- 성별로는 여성(3.7점)이 남성(3.5점)보다 **'가족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그 외 문항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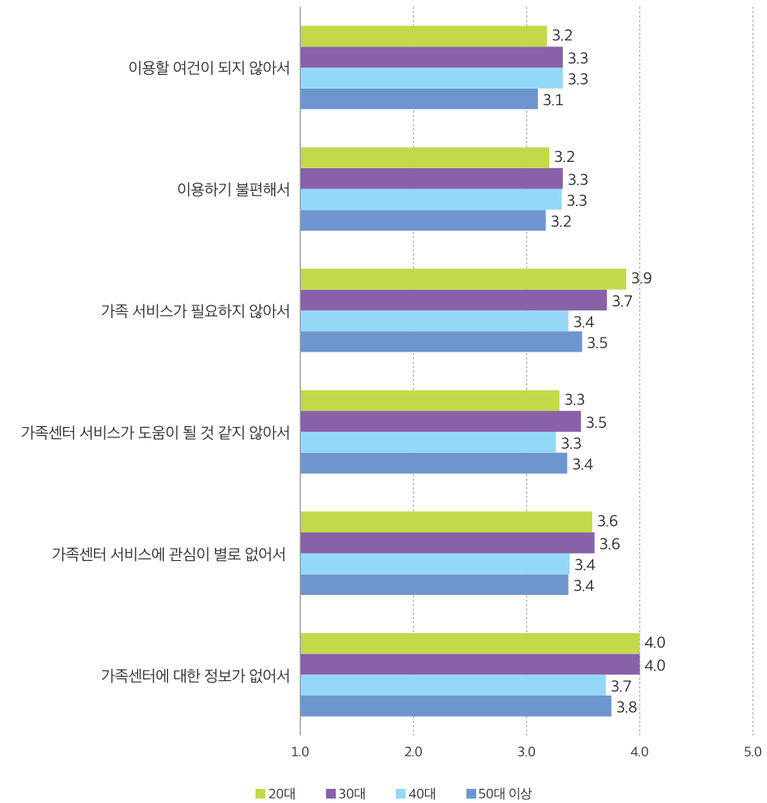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여성 557명, 남성 554명)

• 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없거나 보통인 이유: 연령대별

- 연령대별로는 **20대**(3.9점) 및 **30대**(3.7점)가 40대(3.4점) 및 50대 이상(3.5점)보다 **'가족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등)'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그 외 문항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가족센터 이용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20대 245명, 30대 231명, 40대 250명, 50대 이상 385명)

2024
서울가족정책

「2023 서울가족보고서」 5개 언어로 발간

서울시와 서울시가족센터는 2015년부터 매년 「서울가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매년 실시하는 서울가족서베이를 통해 서울가족의 현주소를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서울가족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가의 정책 및 서비스 제언까지 포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연구보고서와는 달리 가독성이 높은 디자인과 친근한 문체로 작성되어 다양한 독자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에는 한국어 「서울가족보고서」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요약본이 발간되었다. 이는 서울가족의 현황과 선도적인 서울시 가족 정책을 국제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어 읽기에 능숙하지 않은 이주배경 서울 시민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해외 기관에 이 보고서를 배포한다면 서울시 가족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패밀리서울(2024. 1. 19.). 2023 서울가족보고서(2023 Seoul Family Report).
https://familyseoul.or.kr/node/22144

해 / 외 / 사 / 례

독일 | 독일가족보고서 및 베를린가족보고서

독일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15년부터는 2~3년 간격으로 『가족보고서(Familienreport)』를 발간하여 독일 가족의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하고, 가족 정책 및 가족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는 5월 15일 세계 가족의 날을 맞아 『2024 가족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발현된 가족의 강점과 미래에 대한 부모들의 자신감이 소개되었다.

독일은 가족보고서 외에도 '이혼 가족(Post-Separation Family-PSF)' 조사, '아버지 보고서(Väterreport)' 등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개별 보고서로 발간하여 근거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가족서베이도 표본 크기를 늘리고 다양한 가족 및 특정 가족 구성원을 충분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가족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더욱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울가족보고서의 모체인 『베를린가족보고서(Der Berliner Familienbericht)』는 독일 가족보고서와 별개로 4-5년을 주기로 발간되고 있다. 가족 친화적인 베를린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 베를린가족보고서(Berliner Familienbericht 2020)』에서는 성장하는 도시에서 가족 생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베를린 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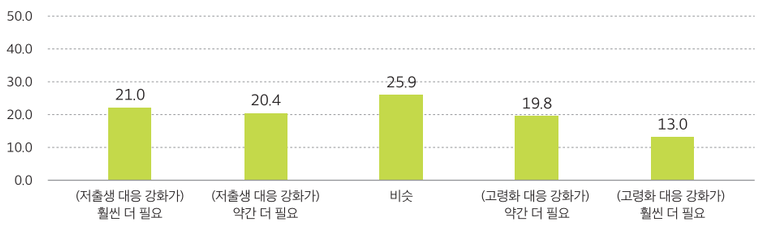
자료: 1) Berliner Beirat für Familienfragen(2020). Familienbericht 2020.
2) BMFSFJ(2021). Väterreport. Update 2021.
3) BMFSFJ(2024). Familienreport 2024 zeigt: Familien geben Halt.
4) DJI(2024). Familienkonstellationen und Betreuungssituation von Familien nach einer Trennung in Deutschland besser erfassen.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09-familienkonstellationen-und-betreuungssituation-von-familien-nach-einer-trennung-in-deutschland-besser-erfassen.html

4 미래지향적 가족 정책: 방향 및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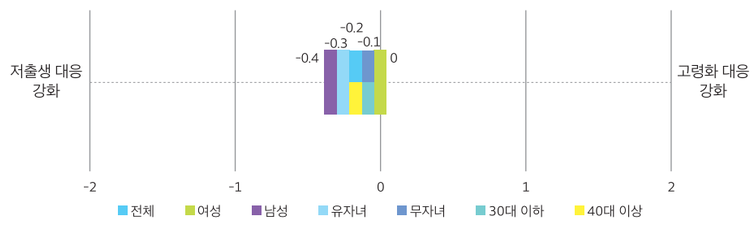
저출생 대응 vs. 고령화 대응

• **저출생 대응 vs. 고령화 대응:**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가족 정책의 방향에 대한 20-64세 서울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저출생 대응 강화'와 '고령화 대응 강화'를 양쪽에 두고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저출생 대응 강화'**가 **더 필요**하다('약간 더 필요', '훨씬 더 필요')는 응답의 비율(41.4%)이 '고령화 대응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응답(32.8%)보다 높았음
- 5가지 응답보기 중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응이 **비슷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25.9%**로 개별 응답 중 **가장 높았음**
- '저출생 대응 강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응답에 -2점, '고령화 대응 강화'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두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비슷하다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0.4점)**이 여성(0점)보다 **'저출생 대응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0.3점)**가 무자녀(-0.1점)보다 **'저출생 대응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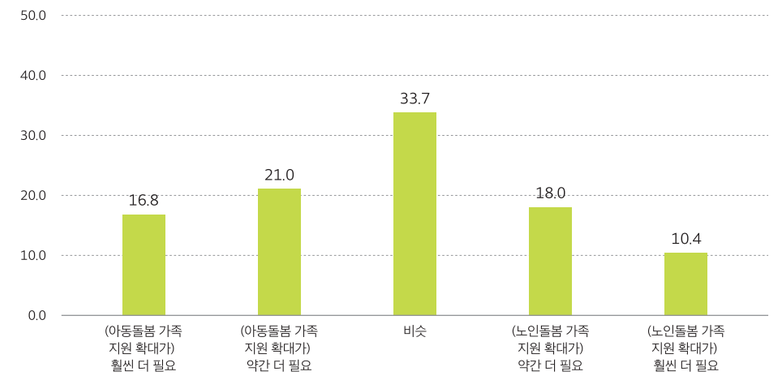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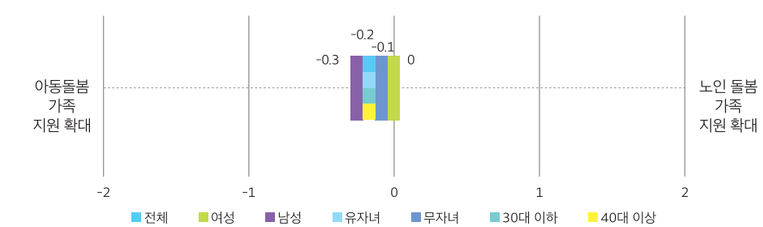
아동돌봄 가족 지원 vs. 노인 돌봄 가족 지원

• **아동돌봄 가족 지원 vs. 노인 돌봄 가족 지원:**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아동돌봄 가족 지원 확대'**와 **'노인 돌봄 가족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33.7%)이 가장 높았음
- 어느 한쪽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중에서는 **'아동돌봄 가족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약간 더 필요', '훨씬 더 필요')는 응답의 비율(37.8%)이 '노인 돌봄 가족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28.4%)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두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0.3점)**이 여성(0점)보다 **'아동돌봄 가족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0.2점)**가 무자녀(-0.1점)보다 **'아동돌봄 가족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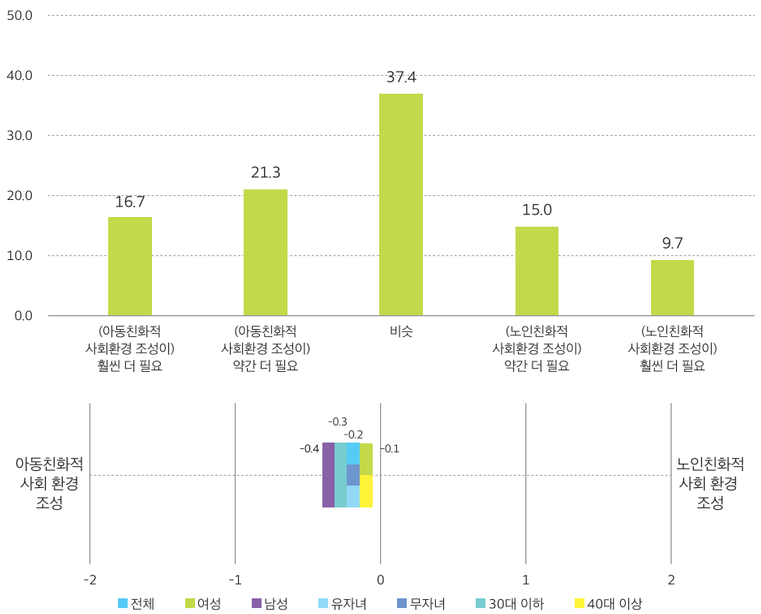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vs.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vs.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전체, 성별, 자녀유무별, 연령대별**

-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37.4%)이 가장 높았음
- 어느 한쪽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 중에서는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약간 더 필요', '훨씬 더 필요')는 응답의 비율(38%)이 '노인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24.7%)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2점으로, 두 사회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비슷하다**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0.4점)**이 여성(-0.1점)보다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자녀 유무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0.3점)**가 40대 이상(-0.1점)보다 **'아동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아동 및 노인 모두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아동과 노인 모두를 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및 제품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김덕주, 조미림, 2013). 2023년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필요성 조사 결과, 생활도로(32.6%), 근린공원(37.4%), 지하철 환승구간(28%) 등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공간으로 꼽혔다(서울특별시, 2023). 이런 점에서 최근 설치되고 있는 근린공원 내 '가족 화장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좋은 예이다.

서울시는 2023년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라매공원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 동대문구 화목경로당 등의 공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료: 1) 김덕주, 조미림(2013). 고령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연구.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 7**(2), 17-25.
2) 서울특별시(2023). 제2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4-2028).
3) 서울특별시(2024. 8. 12.). 공공공간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75124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확대

2023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의 동행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의미한다. 총 주차면이 3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 및 민간 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구 공공주차장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민간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3. 7. 27.). "여성우선주차장 사라진다! 이제는 '가족배려'로 전환"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8637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사회적 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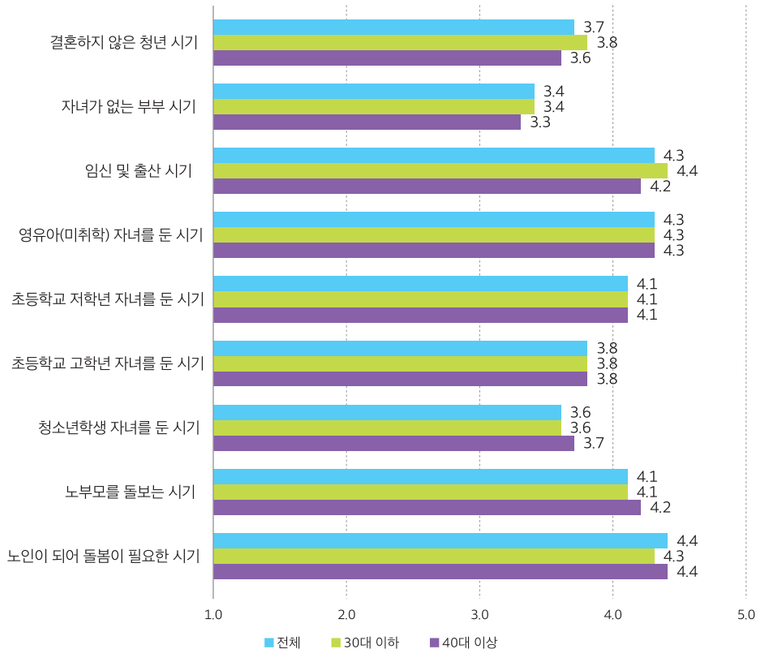
서울시는 어린이,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인구, 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적용된 공간은 놀이를 통한 비만해결 '예스!키즈존', 오감힐링 박스형 상담공간 '마음정원', 어르신들의 놀이터 '100세 마당', 청소년 마음 문제 해결 공간 '마음풀' 등이다.

자료: 서울특별시(2023. 10. 20.).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사회적 디자인'이 담긴 4곳은?"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9348

생애주기별 가족 정책의 필요도

• **생애주기별 가족 정책 및 서비스 필요도: 전체 및 연령대별**

- 생애주기별로 가족 정책 및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범위: 1-5점) 조사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노인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평균 4.4점)를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다음으로 '임신 및 출산 시기'(평균 4.3점),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평균 4.3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시기'(평균 4.1점)와 같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노부모를 돌보는 시기'**(평균 4.1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 모든 항목의 평균이 3.4점을 넘어 제시된 모든 생애주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경향이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40대 이상보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시기'(30대 이하 3.8점, 40대 이상 3.6점), '자녀가 없는 부부 시기'(30대 이하 3.4점, 40대 이상 3.3점), '임신 및 출산 시기'(30대 이하 4.4점, 40대 이상 4.2점)를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음
- 반면, **40대 이상**은 30대 이하보다 '노부모를 돌보는 시기'(40대 이상 4.2점, 30대 이하 4.1점)를 지원할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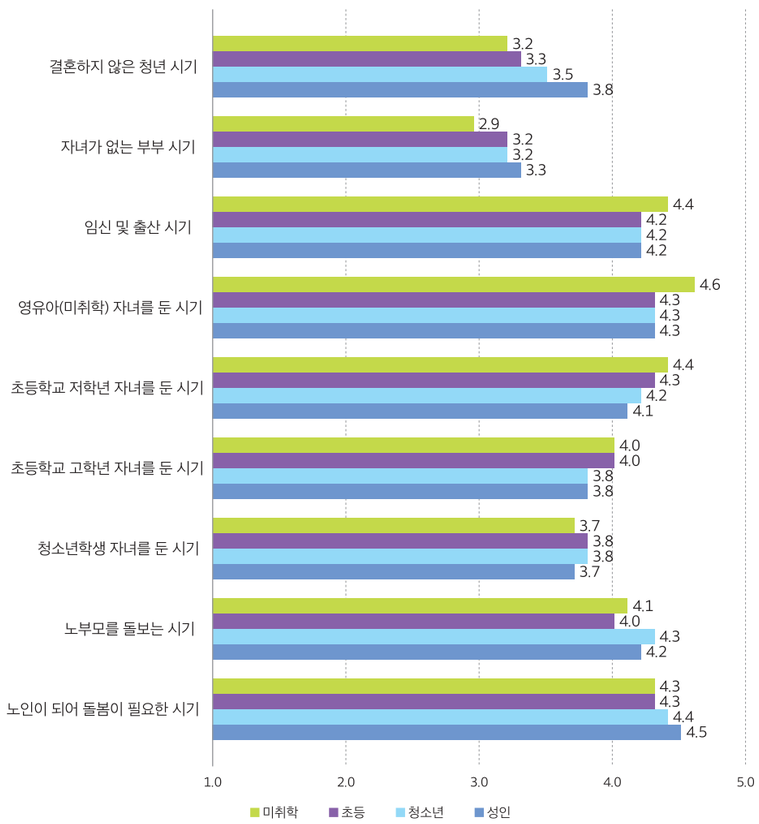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30대 이하 678명, 40대 이상 896명)

• 생애주기별 가족 정책 및 서비스 필요도: 자녀 발달단계별

- 자녀가 있는 서울 시민의 응답을 자녀 발달단계별로 살펴보면, 첫째 자녀가 **미취학인 부모는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4.6점), '임신 및 출산 시기'(4.4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시기'(4.4점) 순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시기'**(4.3점),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4.3점), **'노인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4.3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 첫째 자녀가 **청소년인 부모**는 **'노인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4.4점),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4.3점), '노부모를 돌보는 시기'(4.3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음
- 첫째 자녀가 **성인인 부모**는 **'노인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기'**(4.5점), '영유아(미취학) 자녀를 둔 시기'(4.3점), '임신 및 출산 시기'(4.2점), '노부모를 돌보는 시기'(4.2점),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보는 시기'(4.1점)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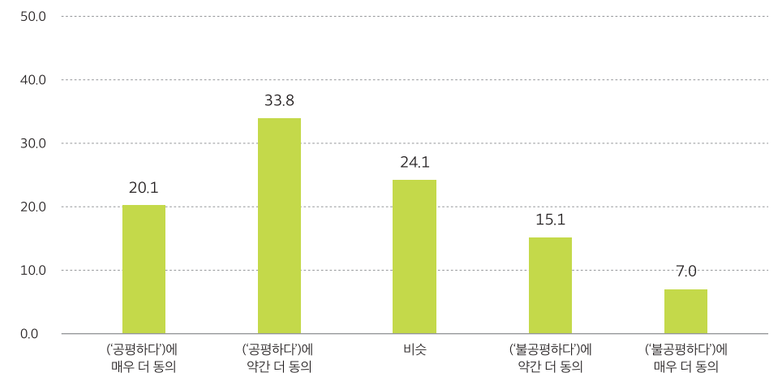
단위(점)

주: '미취학'은 미취학 자녀의 부모, '초등'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부모, '청소년'은 만 12-18세 이하 자녀(초등학생 제외)의 부모, '성인'은 만 19세 이상 자녀의 부모의 응답임(첫째 자녀 기준)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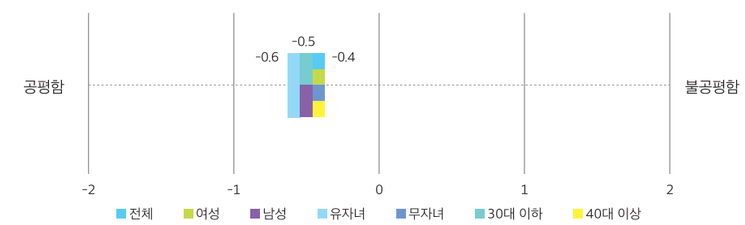
자녀 양육 및 노인 돌봄 가족 지원의 공평성

• 자녀 양육 가족을 더 지원하는 것은 공평한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지원이 더 필요하므로 **공평**하다'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가족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불공평**하다'를 양쪽에 두고 20-64세 서울 시민이 어떤 쪽에 더 동의하는지 조사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은 지원이 더 필요하므로 공평하다'**는 응답에 동의하는 비율('공평하다'에 '약간 더 동의' 및 '매우 동의')이 53.9%로 **높았음**
- ('공평하다'에) 매우 더 동의한다'는 응답에 -2점, ('불공평하다'에) 매우 더 동의한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공평하다에 '약간 더 동의'(-1점)와 '비슷하다'(0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0.5점)**이 여성(-0.4점)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음
- 자녀 유무별로는 **유자녀(-0.6점)**가 무자녀(-0.4점)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음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0.5점)**가 40대 이상(-0.4점)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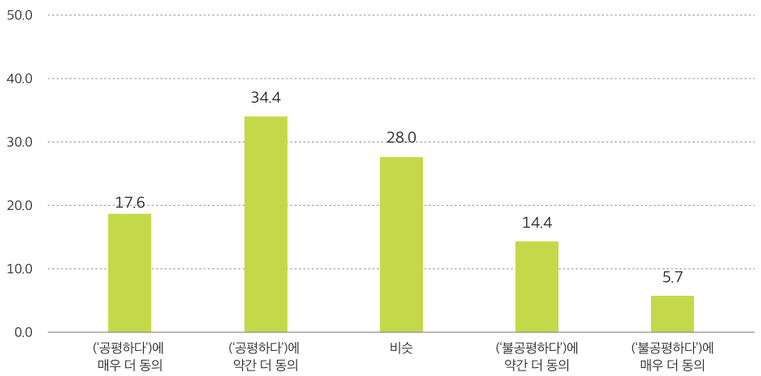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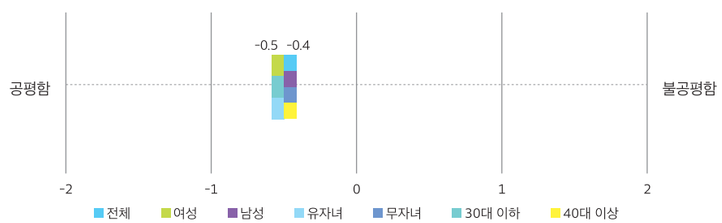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노인 돌봄 가족을 더 지원하는 것은 공평한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20-64세 서울 시민은 노인 돌봄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지원이 더 필요하므로 공평하다'**는 응답에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높았음**('공평하다'에 '약간 더 동의', '매우 더 동의' 52%)
-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공평하다에 '약간 더 동의'(-1점)와 '비슷하다'(0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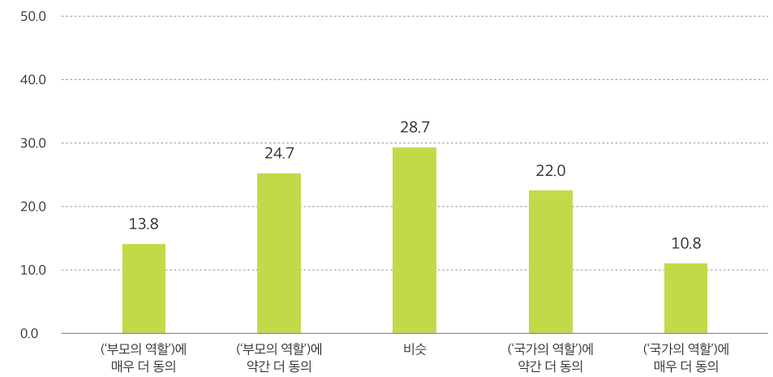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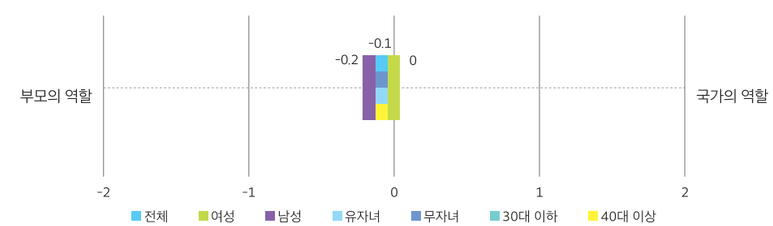
가족의 책임 vs. 국가의 책임

• 아동돌봄의 책임: 부모 vs. 국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아동돌봄은 부모와 국가 중 어느 쪽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부모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양쪽에 두고 조사한 결과, 20-64세 서울 시민은 **부모와 국가 공동의 역할**이라는 응답 비율(28.7%)이 가장 높았음
- 어느 한쪽의 역할이라는 응답 중에서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응답에 **동의**('약간 더 동의' 및 '매우 더 동의')하는 **비율**(38.5%)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응답(32.8%)보다 약간 **높았음**
- '부모의 역할'이라는 응답에 -2점, '국가의 역할'이라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1점으로 비슷하다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0.2점)**이 여성(0점)보다 **아동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음
- 자녀 유무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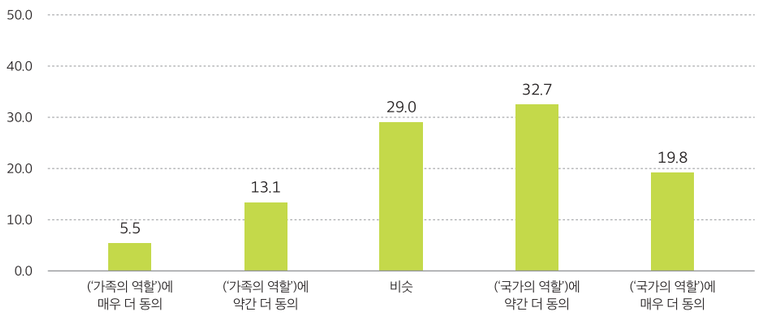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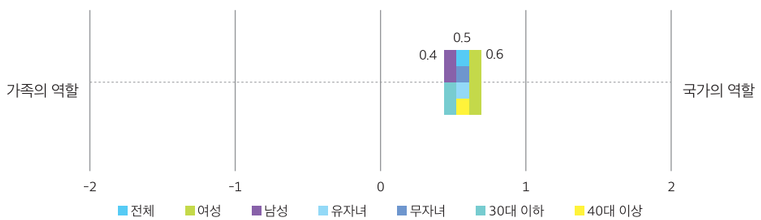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 **노인 돌봄의 책임: 가족 vs. 국가: 전체, 성별, 자녀 유무별, 연령대별**

- 노인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응답에 **동의**('국가의 역할'에 '약간 더 동의' 및 '매우 더 동의')하는 비율은 52.5%로 '가족의 역할'이라는 응답보다 **높았음**
- 전체 평균은 0.5점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0.6점)**이 남성(0.4점)보다 노인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음
- 자녀 유무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본격 추진

서울시는 2024년 6월 수립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등을 202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중증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2인 1조 투입, 휴일·심야 돌봄 월 최대 40시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 확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등을 추진한다.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4. 9. 9.). 전화 한통으로 맞춤 돌봄안내…'안심돌봄120' 10월 개통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191?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제도

서울시는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인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제공기관이 인증 대상이다. 인증 지표는 좋은 서비스, 좋은 일자리, 좋은 기관 3개 영역과 10개 지표, 31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인증기관 네트워크, 종사장 교육, 전문영역 자문 등의 인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인증시설은 255개소(데이케어센터 189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48개소, 방문요양 7개소)이다.

자료: 서울특별시(2024. 6. 5.).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좋은돌봄인증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498

2024 서울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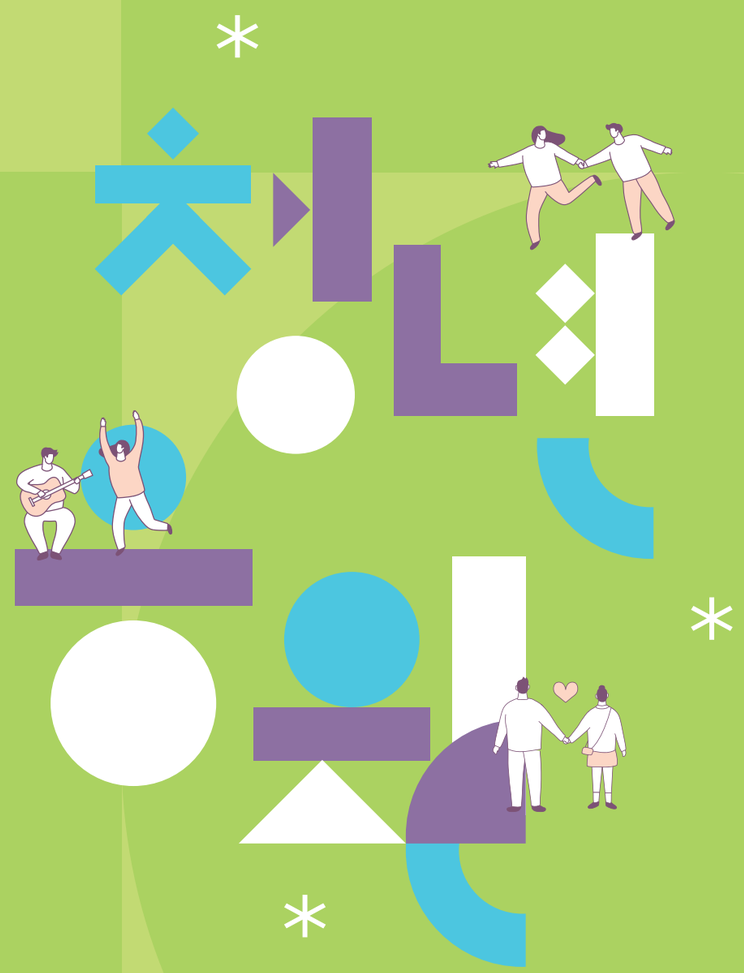
서울시 노인 돌봄 로봇 지원 확대

서울시는 노인의 안전, 건강, 돌봄과 함께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로봇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립요양원에서는 '배설케어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 지원 로봇', '웨어러블로봇'도 공급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1인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로봇'을 2023년에 430대 지원한 것에 이어 2024년에도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호 감지 시 생활지원사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안전관리기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4. 3. 6.). "말벗부터 배설케어까지… 로봇·AI로 어르신 돌봄 촘촘하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484

PART 5

2024 특별기획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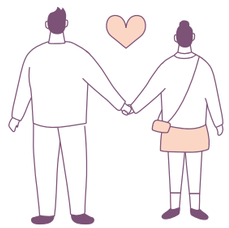
1. 연애 및 연인 관계 ····· 146

2. 결혼 의향 및 결혼에 대한 태도 ····· 154

3.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의 태도 ····· 162

4. 청년의 웰빙 및 부모 자녀 관계 ····· 168

1 연애 및 연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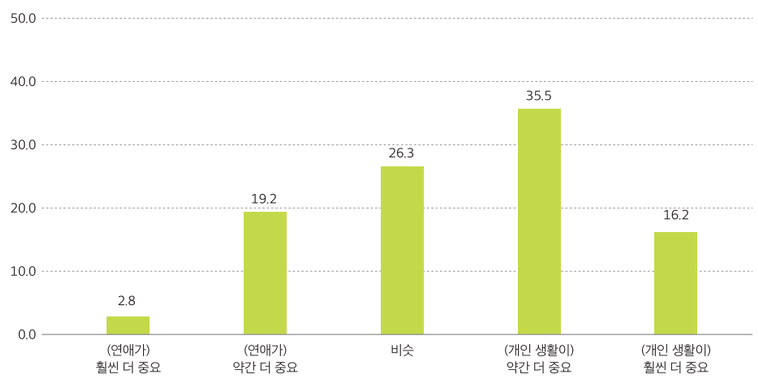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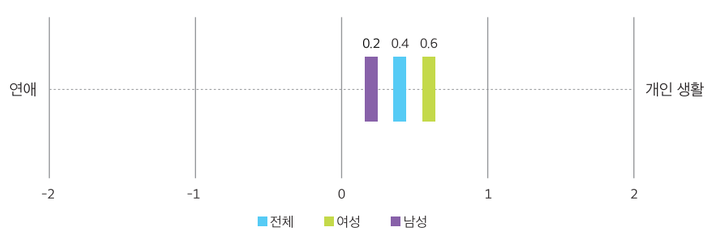
연애 vs. 개인 생활

• **연애 vs. 개인 생활:** 전체 및 성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연애하는 것'**과 **'개인 생활(여가, 자기 계발, 개인 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개별 응답보기에 대해서는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35.5%), '비슷하다'(26.3%), '(연애가) 약간 더 중요하다'(19.2%)의 순으로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연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는 경향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0.6점)이 남성(0.2점)보다 개인 생활을 더 중요시한다고 응답했음

단위(%)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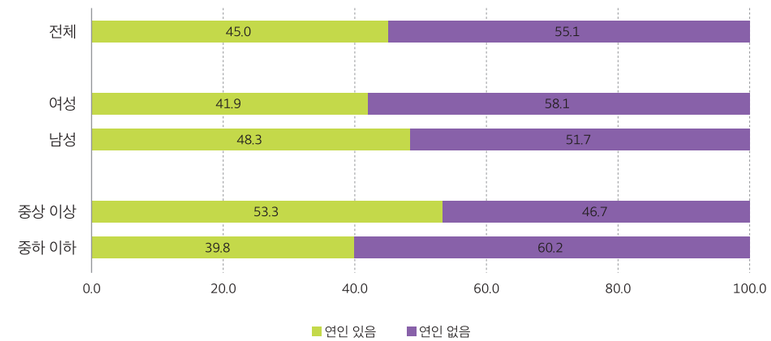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연애여부 및 연애의향

• **연애여부:** 전체, 성별, 주관적 계층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 중 55.1%가 연애하지 않으며, 연애 중인 비율(45%)보다 높게 나타났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53.3%)이 중하 이하인 집단(39.8%)보다 연애 중인 비율이 높았음

연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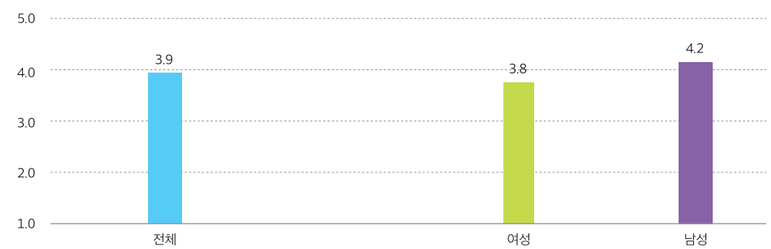
단위(%)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과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 **연애의향:**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이지 않은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언젠가 연애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9점**으로, 연애의향이 **대체로 있는** 편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4.2점)이 여성(3.8점)보다 연애의향이 있었음

(언젠가) 연애할 의향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이지 않은 20-30대 여성 168명, 남성 137명)

연인 관계 행복도 및 친밀감

• 연인 관계 행복도: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최근 1개월 동안 **연인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범위: 1-10점) 질문한 결과 **평균은 7.8점**으로, 연인과의 관계를 **대체로 행복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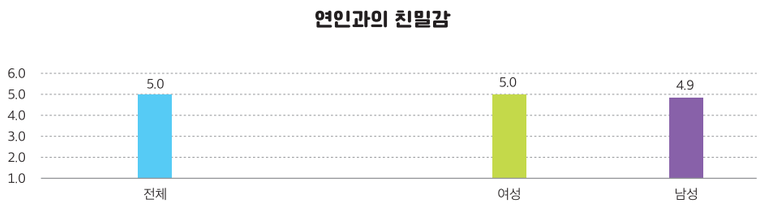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다시 보기 **3장 부부 응원: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

- 20-64세 기혼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도**(범위: 1-10점)는 **평균 7.4점**으로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보고한 연인 관계 행복도의 평균보다 0.4점 낮았음
- 성별로는 **남편**(7.6점)이 아내(7.1점)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행복**했다고 인식했음. 연인 관계 행복도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임

• 연인과의 친밀감: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연인과의 친밀감**(범위: 1-6점) 수준은 **평균 5점**으로, 연인과 **많이 가깝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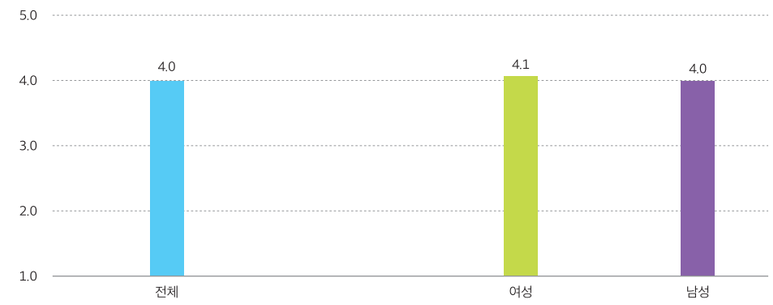
다시 보기 **3장 부부 응원: 배우자와의 친밀감**

- 20-64세 기혼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친밀감**(범위: 1-6점) 수준은 **평균 4.9점**으로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보고한 연인과의 친밀감 평균과 거의 같았음
- 성별로는 **남편**(5점)이 아내(4.8점)보다 배우자와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음. 연인과의 친밀감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임

연인 관계 평등 수준

• 연인 관계 평등 수준: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인식한 **연인 관계 평등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점**으로, 연인과의 관계가 **대체로 평등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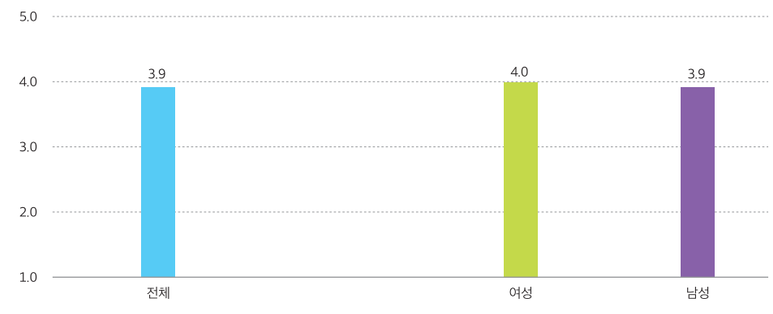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

•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범위: 1-5점)은 **평균 3.9점**으로, 연인과의 **대화가 충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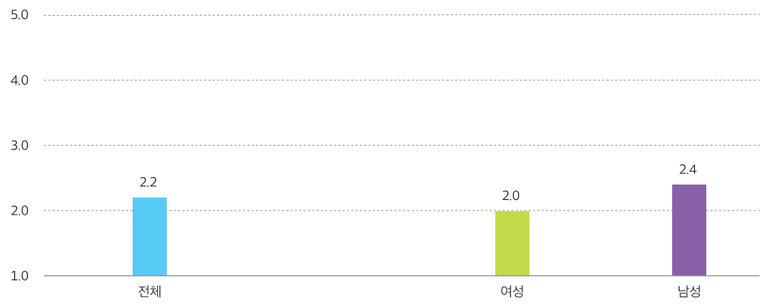
다시 보기 **3장 부부 응원: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

- 20-64세 기혼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대화 충분성**(범위: 1-5점)은 평균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충분'(4점)의 사이였음.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보고한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의 평균보다 0.4점 낮았음
- 성별로는 남편(3.6점)이 아내(3.4점)보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연인과의 대화 충분성은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임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부정적 상호작용**(범위: 1-5점) 수준은 **평균 2.2점**으로 **낮은 편**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2.4점)이 여성(2점)보다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음



단위(점)

주: 연인 및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하는 Stanley와 동료들(2004)의 척도 중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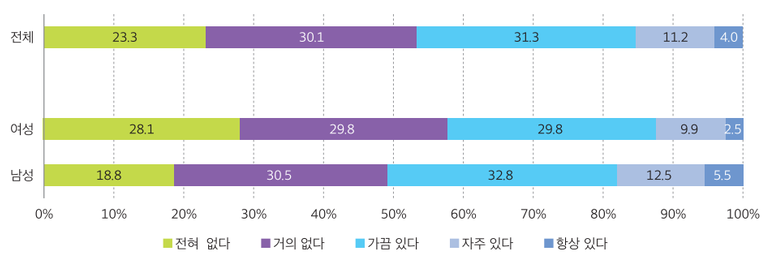
다시 보기 3장 부부 응원: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

- 20-64세 기혼 서울 시민의 **배우자와의 부정적 상호작용**(범위: 1-5점)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3점)의 사이였음.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보고한 연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평균보다 0.4점 높았음
- 성별로는 기혼 여성(2.6점)과 남성(2.7점)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연애 중인 비혼(미혼)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 상호작용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한 것과 대조적임

연인과의 이별 고민 경험

• 이별 고민 경험: 전체 및 성별

- 연애 중인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 중 **46.5%**가 연인과 **이별을 고민해본 적 있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항상 있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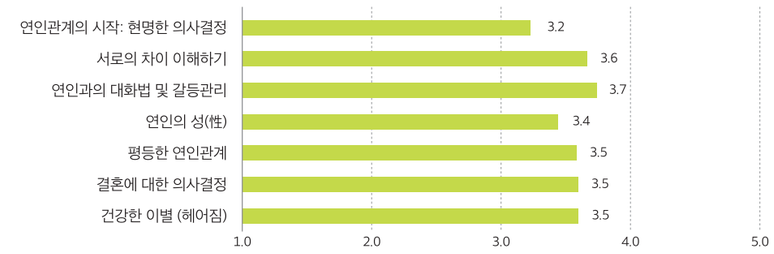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연인 관계 교육 주제별 요구도

• 연인 관계 교육 주제별 요구도: 전체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연인 관계 교육 주제별 요구도(범위: 1-5점)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보통'(3점)과 '대체로 희망'(4점)의 사이 정도였음
- **'연인과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평균 3.7점)와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평균 3.6점)의 평균이 좀 더 높았으나 '평등한 연인 관계',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 '건강한 이별(헤어짐)'의 평균(3.5점)도 큰 차이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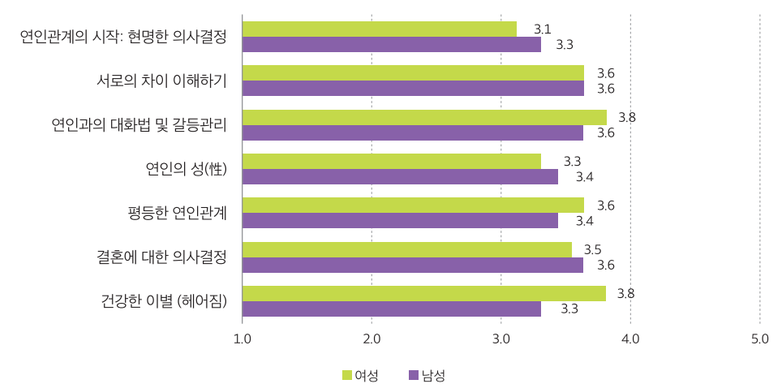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연인 관계 교육 주제별 요구도: 성별

- 20-30대 비혼(미혼) **여성**은 **'연인과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3.8점)와 **'건강한 이별(헤어짐)'**(3.8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남성**은 **'연인과의 대화법 및 갈등관리'**(3.6점),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3.6점),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3.6점)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성별 평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문항으로 **'건강한 이별(헤어짐)'**(여성 3.8점, 남성 3.3점)이 있었음.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였음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여성 289명, 남성 265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평등한 연인 관계, 건강한 이별 등 건강한 연인 관계를 위한 교육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은 10가지 연인 관계 교육 주제 중 '연인과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와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연인과의 대화법 및 갈등 관리',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와 더불어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성은 '건강한 이별(헤어짐)'과 '평등한 연인 관계'을 희망하였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한 이별(헤어짐)'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았는데, 이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별살인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가족센터의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은 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 20-30대 비혼(미혼) 여성들이 건강한 이별의 주제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연인관계교육 프로그램에 결혼과 관계없이 건강한 연인 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부부교실은 커플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 주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 / 외 / 사 / 례

미국 | 연애여부, 결혼여부 상관없는 개인 단위 Within My Reach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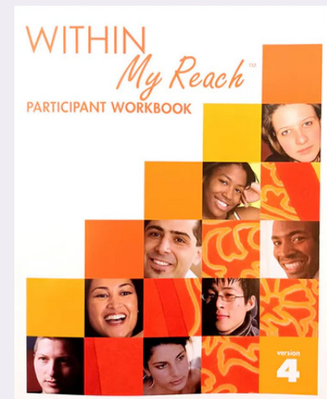
Within My Reach는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및 청년 대상 관계교육 프로그램으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커플교육 프로그램인 PREP(Prevention & Relationship Education Program)에서 파생된 개인 단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연애여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 단위 교육과 커플 단위 교육은 각각 장점이 있다. PREP과 같은 커플 단위 교육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플관계에서의 효과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반면 Within My Reach와 같은 개인 단위 프로그램은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 단계에 대해 개입할 수 있으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연애 중이지 않거나, 파트너 혹은 배우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및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커플 단위로 교육하기 어려운 주제 또한 다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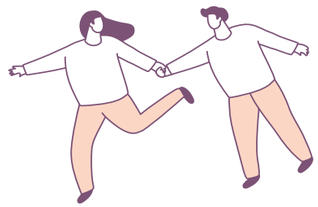
Within My Reach 프로그램은 연인 관계 이외에도 모든 종류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함양, 2)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해, 3) 연인 혹은 배우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 이해, 4) 결혼이나 동거, 출산 등 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Within My Reach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의사소통 방법, 갈등 관리, 의사결정, 건강한 관계 유지, 건강한 이별 등을 주제로 구성된다(Carlson et al., 2021; PREP, 202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tle et al., 2013; Carlson et al., 2021).

자료: 1) Antle, B., Sar, B., Christensen, D., Karam, E., Ellers, F., Barbee, A., & van Zyl, M. (2013). The impact of the within my reach relationship training on relationship skills and outcomes for low-income individual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9(3), 346-357.
2) Carlson, R. G., Taylor, D. D., Barden, S. M., Olejarczyk, J., & Glascoe, G. (2021). Effects of individual-oriented relationship education for paren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5(8), 1097-1106.
3) PREP. Within My Reach (Individuals). https://prepinc.com/collections/within-my-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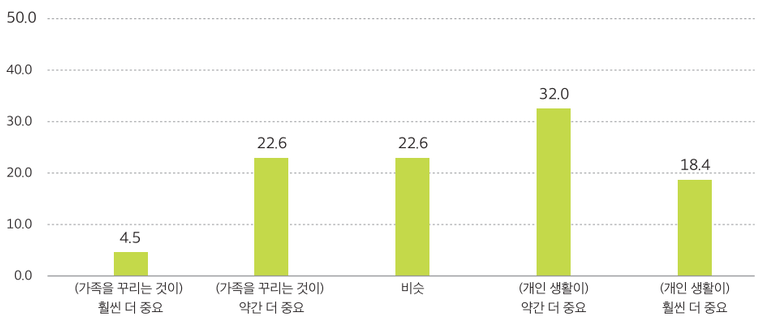
2 결혼 의향 및 결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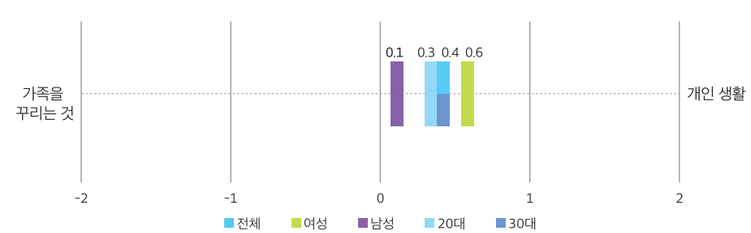


가족을 꾸리는 것 vs. 개인 생활

• **가족을 꾸리는 것 vs. 개인 생활: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내 가족을 꾸리는 것'과 '개인 생활(여가, 자기 계발, 개인 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 개별 응답보기별로는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32%), '비슷하다'(22.6%), '(가족을 꾸리는 것이) 약간 더 중요하다'(22.6%)의 순이었음
- '내 가족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 '개인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응답에 2점을 부여한 결과, 전체 평균은 0.4점으로 양쪽이 '비슷하다'(0점)과 '개인 생활이 약간 더 중요하다'(1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0.6점)이 남성(0.1점)보다 개인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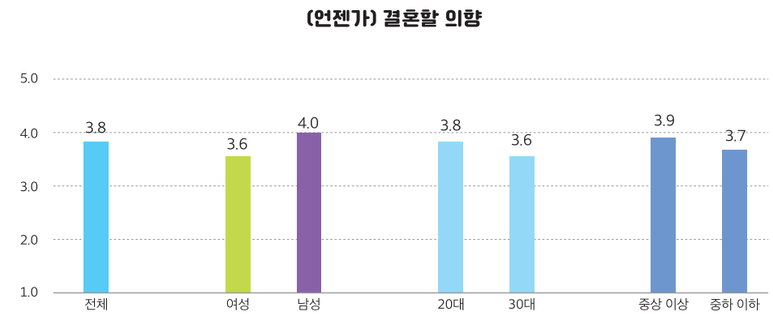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결혼 의향: 일반적 결혼 의향,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

• **일반적 결혼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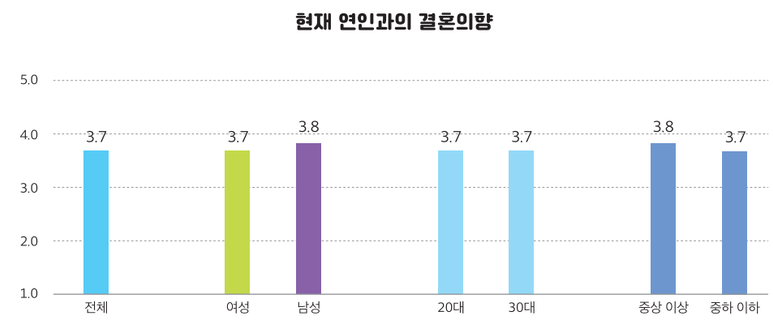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언젠가 **결혼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8점**으로, 결혼 의향이 **대체로 있는 편**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남성**(4점)이 여성(3.6점)보다 결혼 의향이 있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8점)가 30대(3.6점)보다 결혼 의향이 있었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3.9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3.7점)보다 결혼 의향이 있었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연애 중인 20-30대 서울 시민이 **현재 연인과 결혼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7점**으로, 현재 연인과의 결혼 의향이 **대체로 있는 편**에 가까웠음
-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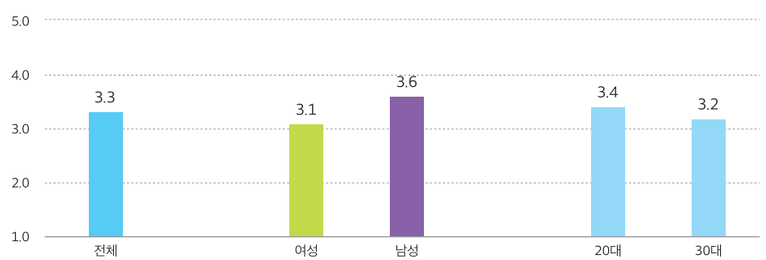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인 20-30대 여성 121명, 남성 128명; 20대 151명, 30대 98명; 중상 이상 112명, 중하 이하 137명)

결혼 및 비혼에 대한 태도

•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동의**하였음
- **성별**로는 **남성**(3.6점)이 여성(3.1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4점)가 30대(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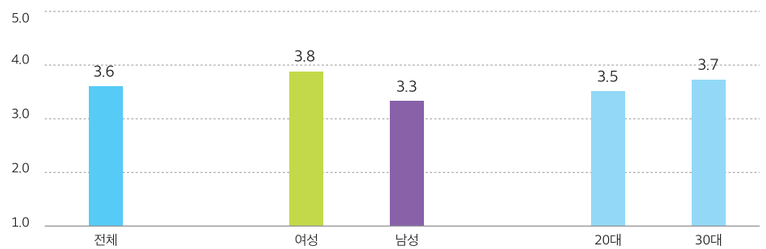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독신(비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6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여성**(3.8점)이 남성(3.3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3.7점)가 20대(3.5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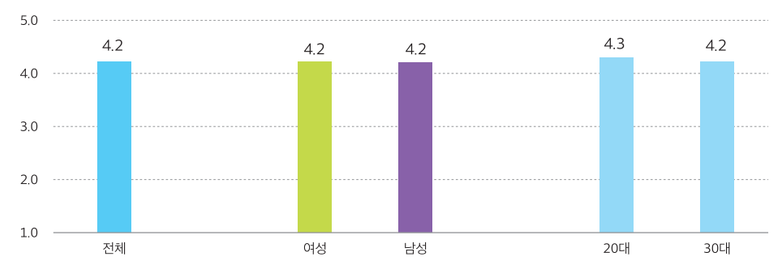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결혼의 전제조건에 대한 인식: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범위: 1-5점)에 동의한 수준은 **평균 4.2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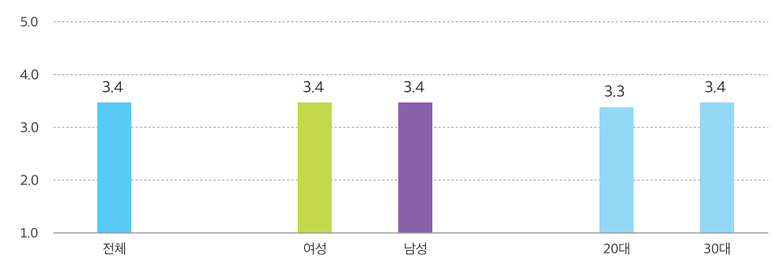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결혼에 따른 제약에 대한 인식: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범위: 1-5점)에 동의한 수준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동의**하였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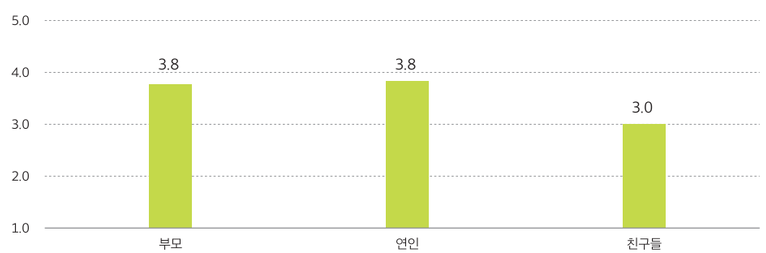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결혼에 대한 주변의 기대: 부모, 연인, 친구

• 결혼에 대한 주변의 기대: 전체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얼마나 기대하는지 (범위: 1-5점) 질문한 결과 **부모**(평균 3.8점), **연인**(평균 3.8점), **친구들**(평균 3.0점) 순으로 평균이 높았음

나의 ooo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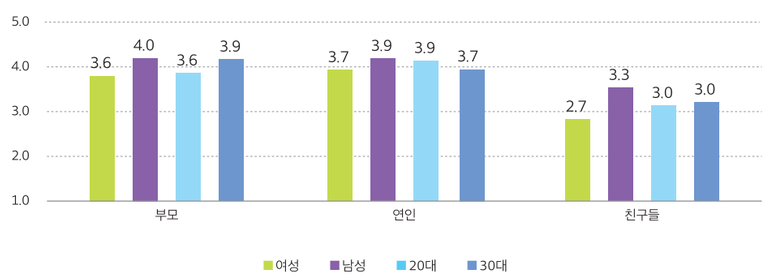
단위(점)

주: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응답자 548명, '나의 연인'은 현재 연애 중인 응답자 249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 결혼에 대한 주변의 기대: 성별 및 연령대별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여성 3.6점, 남성 4점), **연인**(여성 3.7점, 남성 3.9점), **친구**(여성 2.7점, 남성 3.3점) 등 **모든 항목**에서 주변인의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게 인식하였음
- **연령대별**로는 **부모**의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은 **30대**(3.9점)가 20대(3.6점)보다 높게 인식하였지만, **연인**의 결혼에 대한 기대 수준은 **20대**(3.9점)가 30대(3.7점)보다 높게 인식하였음

나의 ooo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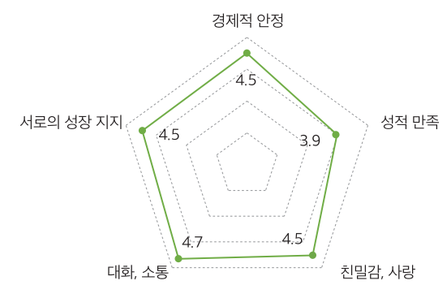
주: '나의 부모님'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여성 285명, 남성 263명, 20대 317명, 30대 231명, '나의 연인'은 현재 연애 중인 여성 121명, 남성 128명, 20대 151명, 30대 98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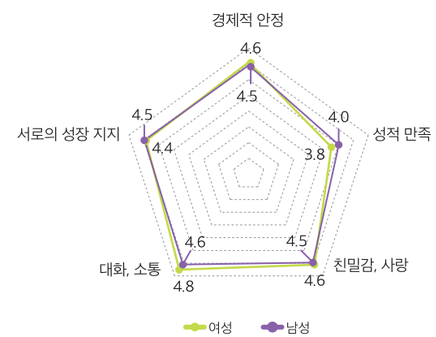
• 결혼 생활의 영역별 중요 수준: 전체 및 성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은 결혼 생활의 영역 중 **'대화, 소통'**(4.7점), **'친밀감, 사랑'**(4.5점), **'경제적 안정'**(4.5점), **'서로의 성장 지지'**(4.5점), **'성적 만족'**(3.9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성별**로 **여성**은 남성보다 **'대화, 소통'**(여성 4.8점, 남성 4.6점)이,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만족'**(여성 3.8점, 남성 4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전체



성별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다시 보기 **3장 부부 응원: 기혼 서울 시민의 결혼 생활 영역별 중요 수준**

- **배우자가 있는** 20-64세 서울 시민은 결혼 생활의 영역 중 **'경제적 안정'**(4.4점), **'대화, 소통'**(4.4점), **'친밀감, 사랑'**(4.3점), **'서로의 성장 지지'**(4.1점), **'성적 만족'**(3.7점)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이러한 결과와 비교하면 **20-30대 비혼(미혼)** 집단에서 모든 영역의 평균이 기혼 집단보다 높아 **결혼 생활의 각 영역을 더 중요하게 여김**을 알 수 있음. 다만 경제적 안정의 순위는 기혼자 집단에서 더 높았음
- **기혼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적 안정'**(여성 4.5점, 남성 4.4점)을,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만족'**(여성 3.5점, 남성 3.9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2024 서울가족 클로즈업

20-30대는 어떤 사람이 결혼할 의향이 더 있을까?: 계획된 행동 이론 적용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토대로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응답자 중 20-30대 비혼(미혼) 여성과 남성의 결혼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 서울가족보고서에서도 20-30대 비혼(미혼) 여성과 남성의 결혼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심층 분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토대로 변인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 Klobas, 2013)은 개인의 행동이 의향에 의해 결정되며, 의향은 실제 행동을 예측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의향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로 형성된다고 본다(구체적인 설명은 1장 탄생 응원 참고).

<20-30대 비혼(미혼) 여성>

배경요인	☑ 연령이 낮을수록
	☑ 연애 중일 때
태도	☑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규범	☑ 부모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계층이 (동일할 것이라 예측하는 집단에 비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할 때
	☑ 부모가 결혼 비용을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 여성의 결혼 의향이 더 있었음

<20-30대 비혼(미혼) 남성>

배경요인	☑ 연애 중일 때
태도	☑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점수가 낮을수록
주관적 규범	☑ 부모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 친구들이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지각된 행동 통제	☑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 남성의 결혼 의향이 더 있었음

다시 보기 2023 서울가족보고서

2023년에 20-30대 비혼(미혼) 여성과 남성의 결혼 의향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여성은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성 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연애 중일 때 결혼할 의향이 더 있었음
- 남성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관 점수가 높을수록, 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연애 중일 때 결혼할 의향이 더 있었음

자료: Ajzen, I., & Klobas, J. (2013). Fertility intention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emographic Research, 29, 203-232.

2024 서울가족정책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 '서울 마이웨딩'

서울시는 결혼식장 예약난 해소와 함께 예비부부의 결혼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울마이웨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 내 주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제공하거나 비품운영비를 지원한다. 공공예식장은 북서울 꿈의숲, 마곡광장, 남산골 한옥마을 등 총 24곳으로, 친환경 결혼식, 야간예식, 전통혼례 등 예비부부가 원하는 다양한 테마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며(성북예향제, 강북솔밭근린공원 제외),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비품운영비(의자, 테이블 등)를 지원한다.

자료: 1) 내 손안에 서울(2024 7. 4.). "공공예식장,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22곳 무료 대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1630
2) 내 손안에 서울(2024. 2. 19.). "미술관·한옥 등 서울 명소에서 나만의 결혼식을! 신청자 모집"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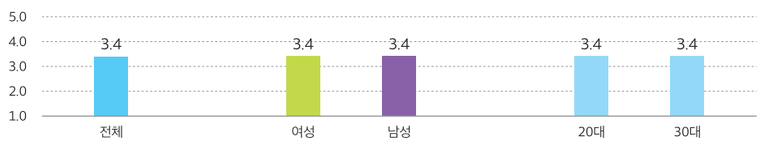
3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의 태도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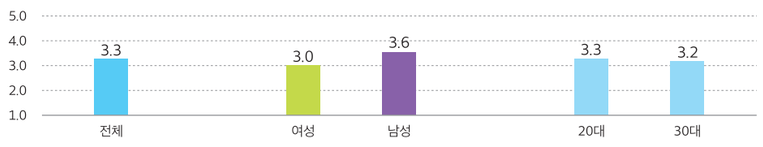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비혼 동거 의향

• **연인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 전체, 성별, 연령대별**

- 연애 중이지 않거나 연애 중이더라도 연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연인과 결혼하지 않고 동거할 의향**(범위: 1-5점)은 **평균 3.3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더 있었음**
- **성별**로는 **남성**(3.6점)이 여성(3점)보다 동거의향이 있었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하지 않고 언젠가) 연인과 동거할 의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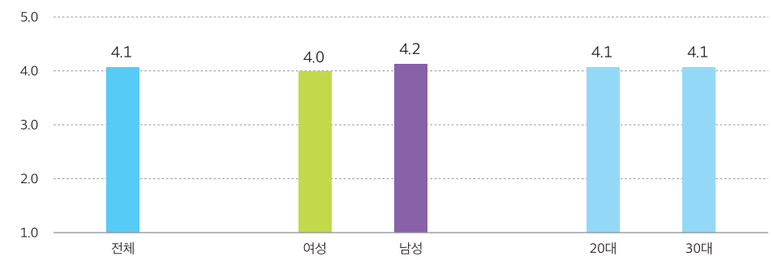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현재 연애 중이지 않거나, 연애 중이더라도 연인과 동거하고 있지 않은 539명; 여성 283명, 남성 256명; 20대 310명, 30대 229명)

혼전 성관계, 동성 결혼, 국제 결혼에 대한 태도

•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및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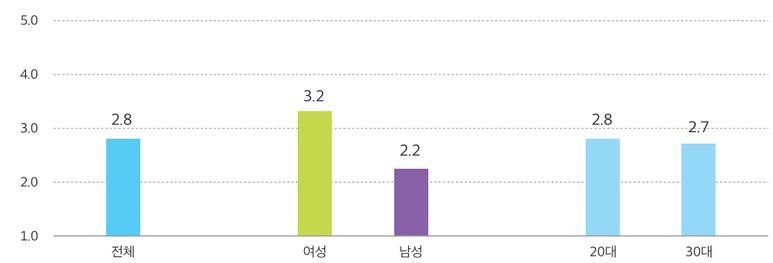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동성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동성(같은 성별)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2.8점**으로, **'보통'(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2점)이 남성(2.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으며, **남녀 차이가 컸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동성(같은 성별)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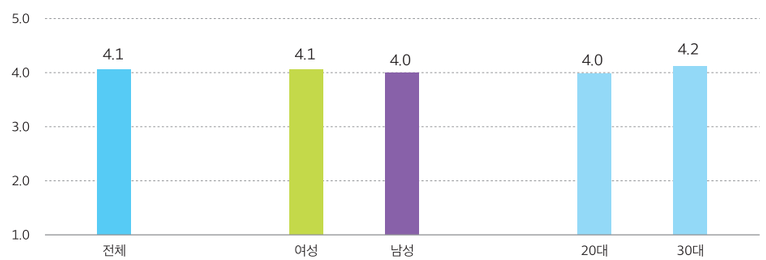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1인가구 공동체,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태도

• 국제 결혼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4.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4.2점)가 20대(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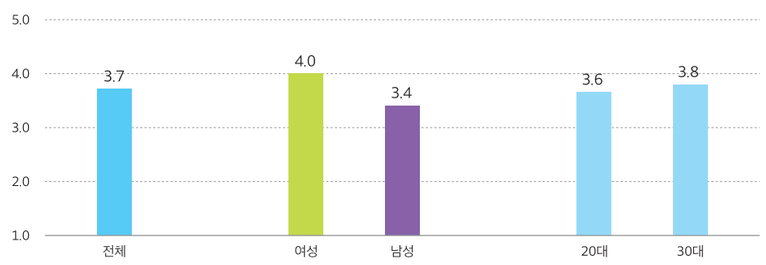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1인가구 공동체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1인가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에 가까웠음
- **성별**로는 **여성**(4점)이 남성(3.4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1인 가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것도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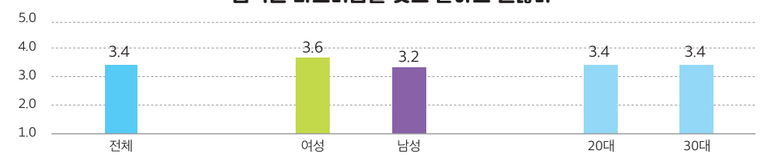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생활 동반자 관계 등에 대한 태도: 전체, 성별, 연령대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 동반자 관계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가도 괜찮다'(범위: 1-5점)에 동의하는 수준은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그렇다'(4점)의 중간이었음**
- **성별**로는 **여성**(3.6점)이 남성(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결혼을 하지 않고 생활 동반자 관계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살아도 괜찮다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2024 서울가족서베이 인사이트

다양한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필요

2024 서울가족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비혼 동거, 1인가구 공동체, 생활 동반자 관계 등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동의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비혼 동거 및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각각 평균 3.4점으로 '보통'(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1인가구 공동체에 대한 동의 수준은 3.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다.

서울시 청년에게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님은 잘 알려져 있다. 2024 서울가족서베이에서는 '독신(비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의 평균이 3.3점으로 독신(비혼)보다 결혼이 낫다는 진술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비혼)으로 살아도 괜찮다'의 평균은 3.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서울시 비친족가구의 수는 2023년 113,611가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4). 이 중 20-30대 비친족가구(가구주 연령 기준) 수는 65,858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혈연 및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생계 및 주거를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친밀한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주로 혈연 및 혼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 외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가구는 동거인의 법적 보호자나 연고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나 세제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등 법적 보호와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변수정 외, 2023).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파트너십 및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비친족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 외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1인가구뿐만 아니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료: 1) 통계청(2024). 인구총조사.
2) 변수정, 엄다원, 안문희(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 / 외 / 사 / 례

국가마다 다른 친밀한 파트너십 제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 프랑스 | 연대의무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1999년에 제정된 연대의무협약(이하 PACS)은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혼인관계가 아닌 동성 또는 이성인 2명의 성인이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생활공동체를 성립하는 계약이다. PACS를 통해 두 당사자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며, 상대방에 대해서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 인척관계 형성, 상속과 같은 배우자의 의무 및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과의 차이가 있다.

재산 관리 및 출산 등은 당사자 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의 경우, 협약을 맺을 때 협약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서로 절반의 권리를 부여하는 공유제를 실시할지, 혹은 각자가 관리할지는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의 경우,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PACS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단독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당사자의 주거권은 주택 임차계약으로 보호받으며, 임대료를 상대방의 상속으로 보상받거나, 가구 및 일상생활에 사용되던 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PACS는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권이 인정된다.

▶ 네덜란드 |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

등록동반자관계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아니며, 혼인 또는 등록동반자관계에 있지 않은 동성 또는 이성 2인 간에 성립하는 관계이다. 프랑스의 PACS 제도와는 다르게 등록동반자가 되면 혼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어 상대방의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권리, 인척관계, 상속 등이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은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가 준용되어, 서로 간 부양, 동거, 협조, 정조의 의무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가사에 대한 대리권, 상속권 또한 가진다.

재산과 관련하여 등록동반자관계를 등록하기 전 재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등록동반자 관계를 맺기 이전에 존재한 재산부터 맺은 이후에 취득한 재산까지 동반자 2인의 공동재산이 된다. 출산, 입양 등 등록동반자 당사자 간에 자녀가 생길 경우 이들 사이의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의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동반자관계는 두 당사자가 해소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없이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과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한 당사자의 사망, 실종선고 후 혼인 또는 등록동반자관계 체결, 등록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소된다. 해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부양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등이 가능하다.

▶ 벨기에 |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법정동거 제도는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의사에 따라 법정동거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해당 관계를 공식화하는 제도이다. 혼인 외의 결합으로 인정하여, 벨기에에서 함께 거주하고 공동생활을 원하는 모든 자(예: 동성·이성커플, 형제자매, 자녀, 친구 등)가 대상이 된다. 법정동거인 사이에 어떠한 가족법상의 신분관계는 창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산관계나 생활비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생활공동체 운용을 강조한다.

혼인과 달리 법정동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재산과 관련하여 생활비 부담, 일상 가사 및 자녀 양육, 교육을 위한 채무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부담한다. 만일 법정동거인 간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혼인 외 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법정동거인 2인 중 한 명의 혼인이나 사망, 혹은 한 명의 일방적인 해소 의사 또는 둘 간의 합치를 통한 해소 신고로 종료된다.

▶ 일본 | 파트너십 증명 제도(パートナーシップ証明制度)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시작된 일본 파트너십 증명 제도는 두 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해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파트너십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도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학업 중인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등록커플은 공공주거에 지원하거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커플이 받는 배우자 비자 신청, 세금 감면, 병원 방문 관리, 상속권, 자녀 법적 후견인 자격 등 결혼한 커플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제약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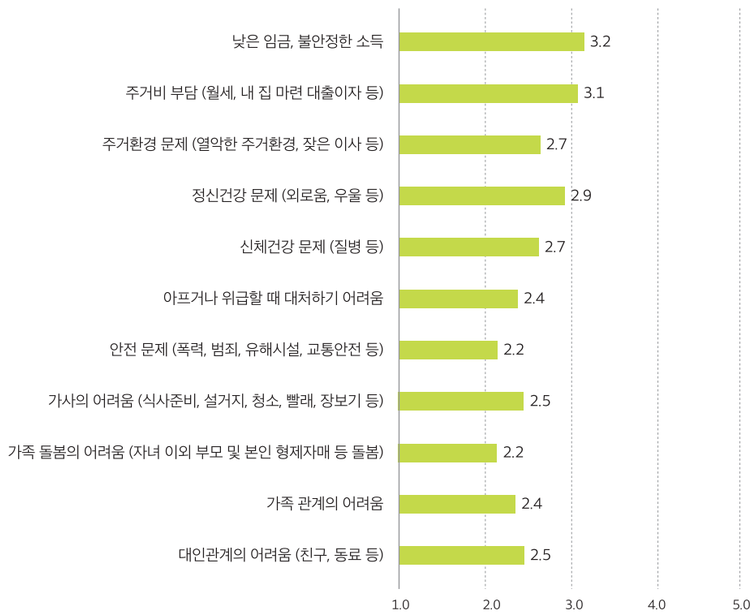
자료: 변수정, 엄다원, 안문희(2023).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청년의 웰빙 및 부모 자녀 관계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전체**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범위: 1-5점) 중 가장 평균이 높은 항목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소득'**(평균 3.2점)과 **'주거비 부담**(월세, 내 집 마련 대출이자 등)' (평균 3.1점)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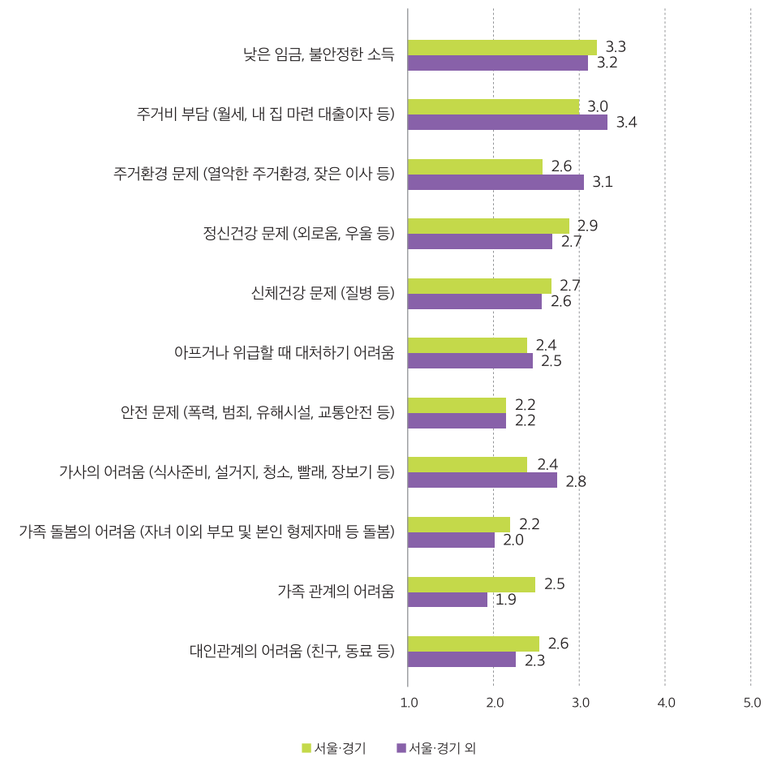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평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성장 지역별**

▸ **성인이 되기 전에 성장한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경기 외 지역에서 성장한 집단**이 서울·경기에서 성장한 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월세, 내 집 마련 대출이자 등)'(서울·경기 3점, 서울·경기 외 3.4점)과 **'주거 환경 문제**(열악한 주거 환경, 잦은 이사 등)'(서울·경기 2.6점, 서울·경기 외 3.1점)를 겪고 있었음

▸ 반대로 **서울·경기에서 성장한 집단**은 서울·경기 외 지역에서 성장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가족 관계의 어려움'**(서울·경기 2.5점, 서울·경기 외 1.9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친구, 동료 등)'(서울·경기 2.6점, 서울·경기 외 2.3점)을 겪고 있었음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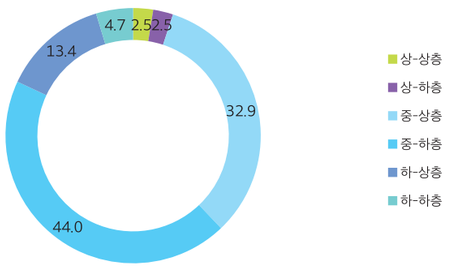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가 성인이 되기 전 서울·경기에서 성장한 442명, 서울·경기 외 지역에서 성장한 112명)

주관적 계층: 현재 및 미래 전망

• **현재 주관적 계층: 전체**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현재의 주관적 계층**(범위: 1-6단계)은 **'중-하층'**(44%)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중-상층'(32.9%)이었음
- **절대다수가 중산층**이라고 인식하였고(76.9%) 다음으로는 하층이었음(18.1%)

현재 주관적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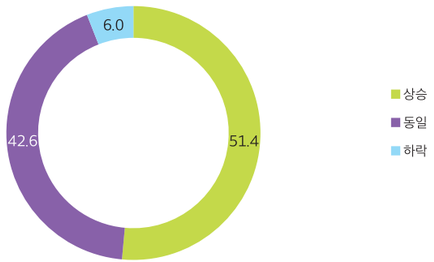
단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주관적 계층 변화(현재와 10년 후 전망의 차이): 전체**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응답한 **현재의 주관적 계층**(범위: 1-6단계)과 **10년 후 주관적 계층 전망**(범위: 1-6단계)**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 현재에 비해 미래의 주관적 계층을 **높게** 응답한 비율이 **51.4%**로 가장 높았고, 현재와 미래의 주관적 계층을 **동일하게** 응답한 비율은 **42.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현재에 비해 미래의 주관적 계층을 **낮게** 응답한 비율은 **6%**로 가장 적었음

주관적 계층 변화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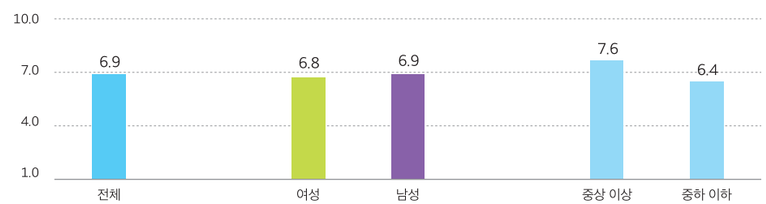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행복 및 우울

• **행복: 전체, 성별, 주관적 계층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범위: 1-10점) 질문한 결과, **평균 6.9점**으로, **약간 행복**한 수준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7.6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6.4점)보다 행복했다고 응답하였음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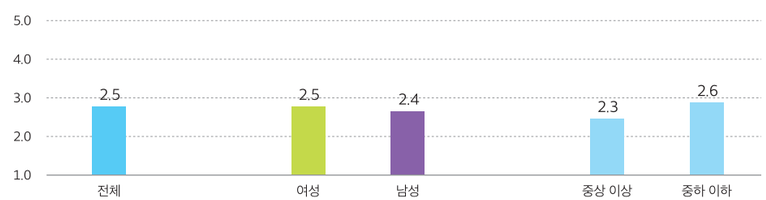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우울: 전체, 성별, 주관적 계층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의 **우울**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2.5점**으로, '별로 그렇지 않았다'(2점)과 '보통이었다'(3점)의 사이였음.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우울을 측정한 한국아동패널 연구(김지현 외, 2021)에서 어머니는 평균 1.86점, 아버지는 평균 1.9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 서울 시민의 우울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주관적 계층**이 **중하 이하인 집단**(2.6점)이 중상 이상인 집단(2.3점)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음**

우울



단위(점)

주: 우울(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Kessler와 동료들(2002)의 척도 6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2024
서울가족정책

고립·은둔청년의 부모를 위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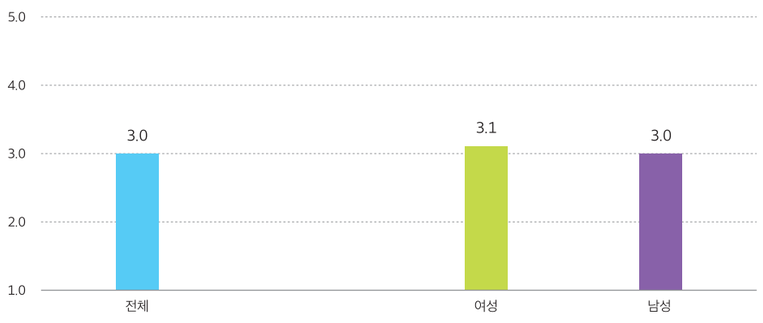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고립·은둔청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주 1회, 총 10주의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주제는 고립·은둔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소통법, 부모 정서·심리안정법 등이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자녀의 오랜 고립·은둔생활로 지친 부모가 마음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기획행정(2024. 7. 1.). "'청년의 고립이 가정의 고립'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부모 교육"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60566

일-생활 갈등

• **일-생활 갈등: 전체 및 성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보고한 **일-생활 갈등** 수준은 **평균 3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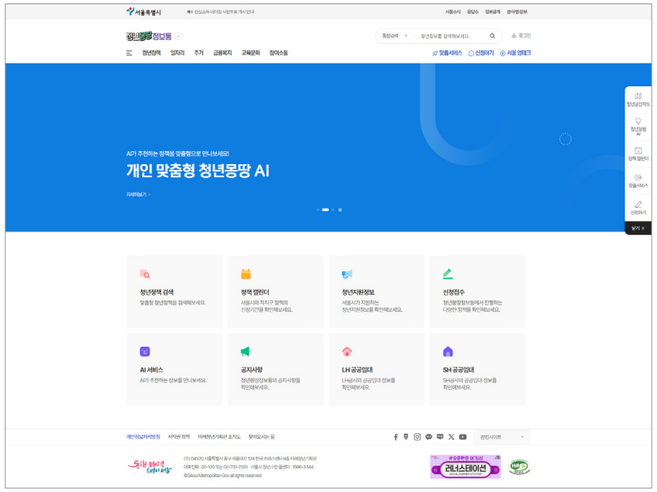
단위(점)

주: 일과 삶의 균형을 측정하는 김정운과 박정열(2008)의 척도 중 10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지난 일주일 간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했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근무했거나, 일자리가 있었던 20-30대 응답자 439명; 여성 228명, 남성 211명)

2024
서울가족정책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한눈에,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서울시는 청년 대상 정책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타지역의 정책 정보도 제공하며, 정책유형(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취업상태, 연령대, 모집현황 등 다양한 기준별로 해당 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책캘린더를 통해 연간, 월간 운영되는 청년정책의 기간 및 마감일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매주 1·3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정보풍풍 채널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의성 및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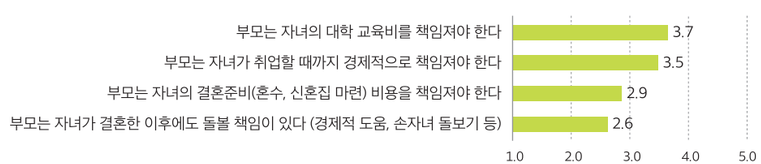


자료: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mainA.do

부모의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 **부모의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전체**

-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동의한 수준은 **평균 3.7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편에 가까웠음
-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5점**으로, **'보통'**(3점)과 **'대체로 동의'**(4점)**의 중간**이었음
-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혼수, 신혼집 마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9점**으로, **'보통'**이었음
-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봄 책임**이 있다(경제적 도움, 손자녀 돌보기 등)'(범위: 1-5점)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2.6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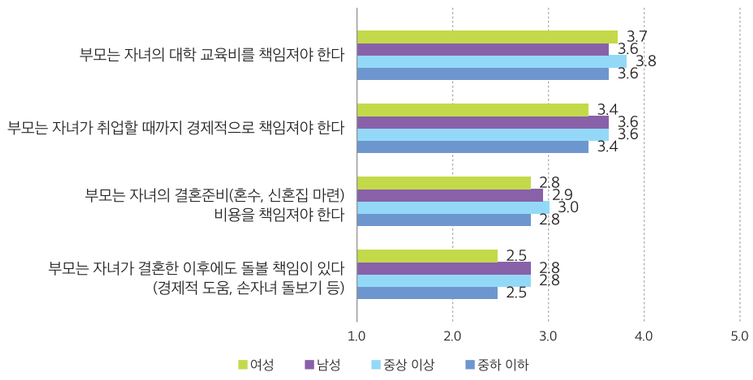


단위(점)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 **부모의 성인 자녀 지원에 대한 태도: 성별 및 주관적 계층별**

- **성별**로는 20-30대 **남성(2.8점)**이 여성(2.5점)보다 상대적으로 **결혼 이후 돌봄 지원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이 **자녀의 대학 교육비 지원**(중상 이상 3.8점, 중하 이하 3.6점), **취업 전 경제적 지원**(중상 이상 3.6점, 중하 이하 3.4점), **결혼준비 비용 지원**(중상 이상 3점, 중하 이하 2.8점), **결혼 이후 돌봄 지원**(중상 이상 2.8점, 중하 이하 2.5점) 등 **모든 항목**에서 중하 이하인 집단보다 부모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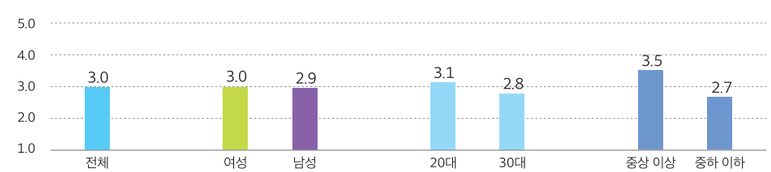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응답자 554명)

부모의 결혼 비용 지원 가능성

• **부모의 결혼 비용 지원 가능성: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결혼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범위: 1-5점)에 동의한 수준은 **평균 3점**으로, **'보통'**(3점)이라고 인식하였음
-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3.1점)가 30대(2.8점)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음
- **주관적 계층이 중상 이상**인 집단(3.5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7점)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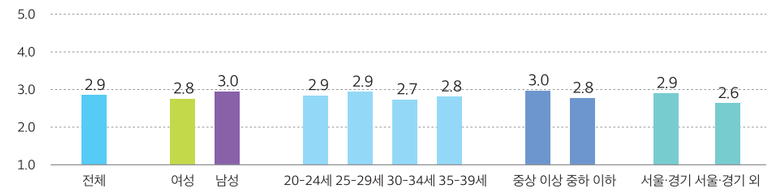
단위(점)

주: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20-30대 여성 285명, 남성 263명; 20대 317명, 30대 231명; 중상 이상 207명, 중하 이하 341명)

청년 자녀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 **청년 자녀가 인식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 전체, 성별, 연령대별, 주관적 계층별, 성장 지역별**

- 20-30대 비혼(미혼) 서울 시민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한 헬리콥터 부모 역할**(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양육태도)(범위: 1-5점) 수준은 **평균 2.9점**으로, **'보통'**(3점)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3점)**이 여성(2.8점)보다 부모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을 높은 수준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주관적 계층**은 **중상 이상**인 집단(3점)이 중하 이하인 집단(2.8점)보다 헬리콥터 부모 역할 평균이 높았음
- **성장 지역**에 따른 차이는 **서울·경기 집단**(2.9점)이 서울·경기 외 집단(2.6점)보다 헬리콥터 부모 역할 평균이 높았음



단위(점)

주: 1) 헬리콥터 부모 역할(helicopter parenting)이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으로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이재림, 2022; LeMoyne & Buchanan, 2011)를 의미하며, 헬리콥터 부모 역할 수준을 측정하는 Lemoyne와 Buchanan(2011)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강시은과 이재림(2017)의 척도 7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음
2) 주관적 계층은 6개(상-상층, 상-하층, 중-상층, 중-하층, 하-상층, 하-하층)의 응답을 중상 이상, 중하 이하로 분류하였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으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생존한 20-30대 여성 285명, 남성 263명; 20-24세 94명, 25-29세 223명, 30-34세 150명, 35-39세 81명; 중상 이상 207명, 중하 이하 341명; 서울·경기 437명, 서울·경기 외 111명)

부록

부록 1. 2024 서울가족 현황 ····· 178
부록 2. 2015-2023 서울가족보고서 ····· 198
부록 3.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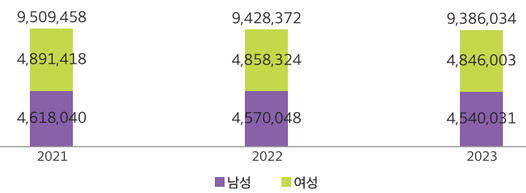
부록 1

2024 서울가족 현황

인구 및 가구

• 서울시 성별 인구(2021-2023년)

▸ 서울시 인구는 2023년에 총 9,386,034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4만 2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총인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남녀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93.7로, 전국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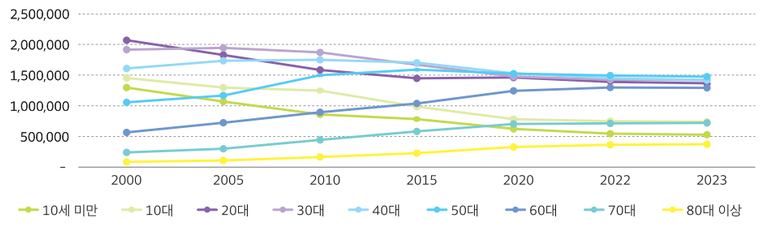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21-2023년)

▸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2023년 기준)는 50대가 1,474,789명으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합니다. 2021년부터 서울시는 전 연령대 중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40대 1,420,560명(15.2%), 30대 1,418,246명(15.2%), 20대 1,367,537명(14.6%), 60대 1,292,192명(13.8%), 10대 739,052명(7.9%), 70대 720,902명(7.7%), 10세 미만 528,944명(5.7%), 80대 이상 372,714명(4.0%)의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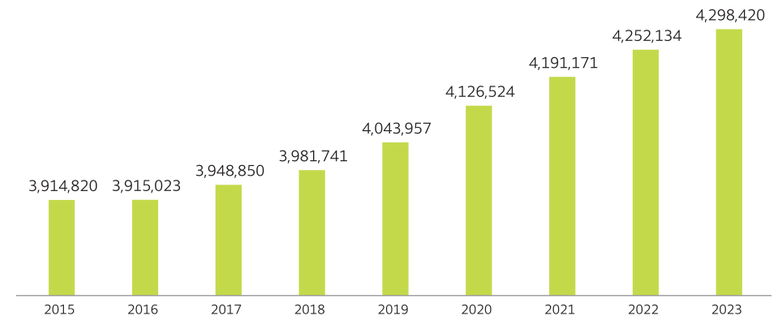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서울시 가구 수(2015-2023년)

▸ 서울시의 전체 가구 수는 4,298,420가구(2023년 기준)로 2022년과 비교해 1.1% 증가하였습니다.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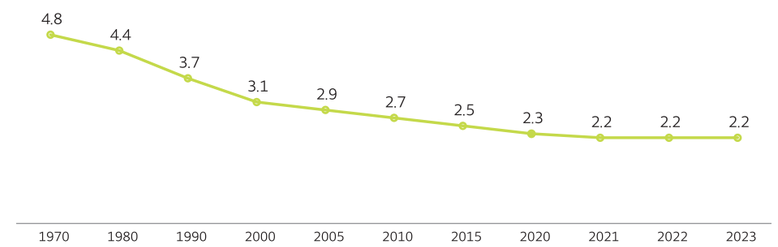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1970-2023년)

▸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3년에 2.2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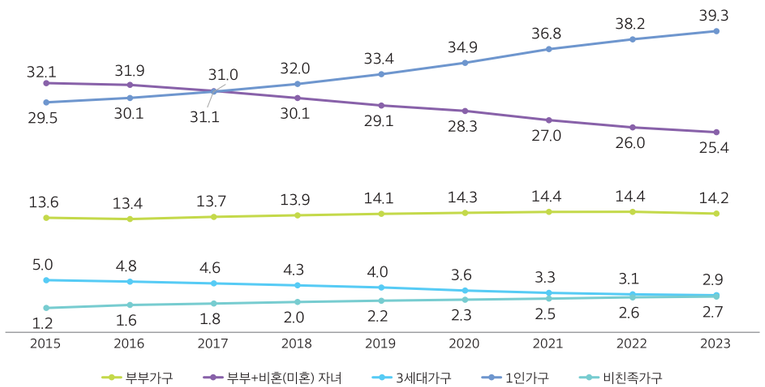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혼인 및 신혼부부

• 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수(2015-2023년)

▸ 가구형태별로는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인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1,627,480가구(39.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부부와 비혼(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1,050,876가구(25.4%),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586,879가구(14.2%), 3세대가구 121,065가구(2.9%), 비친족가구 113,611가구(2.7%)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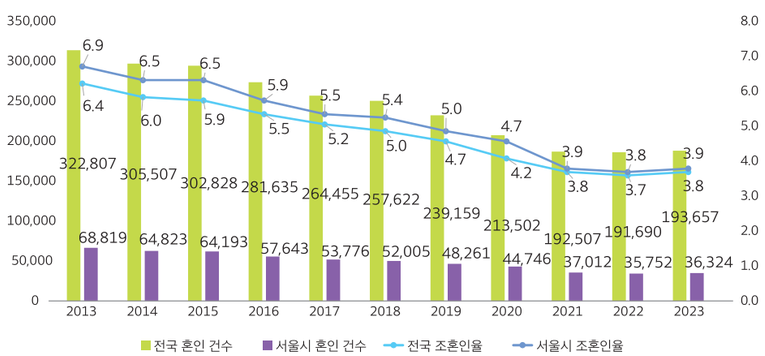


단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13-2023년)

▸ 서울시의 2023년 총 혼인 건수는 36,324건, 조혼인율은 3.9건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서울시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2023년에 소폭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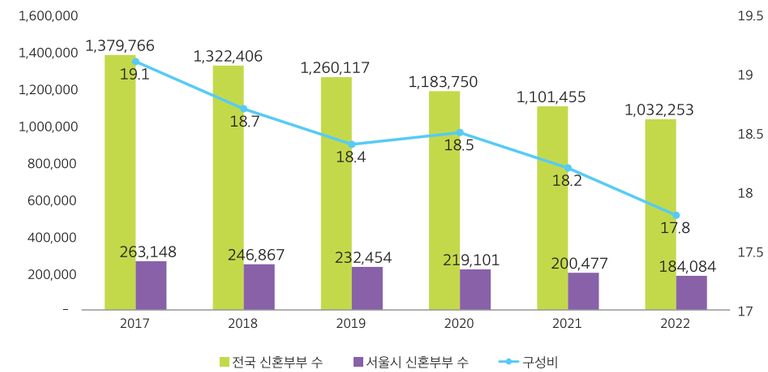


단위(건)

주: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 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신혼부부 수(2017-2022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2022년에 총 184,084쌍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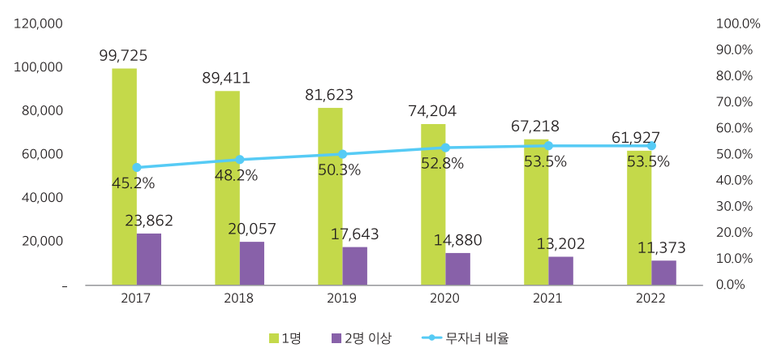


단위(쌍, %)

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한 부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 서울시 초혼 신혼부부 자녀 수(2017-2022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미만 경과) 중 53.5%(61,927쌍)는 자녀가 없습니다(2022년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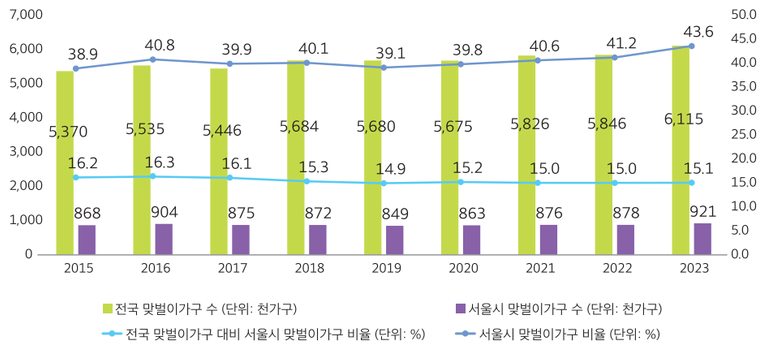
단위(쌍, %)

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한 부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맞벌이 가구

• 서울시 맞벌이 가구 수(2015-2023년)

▶ 전국 맞벌이 가구의 15.1%(약 92만 1,000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시 유배우자 가구의 43.6%가 맞벌이 가구입니다(2023년 기준). 서울시 맞벌이 가구의 수 및 비율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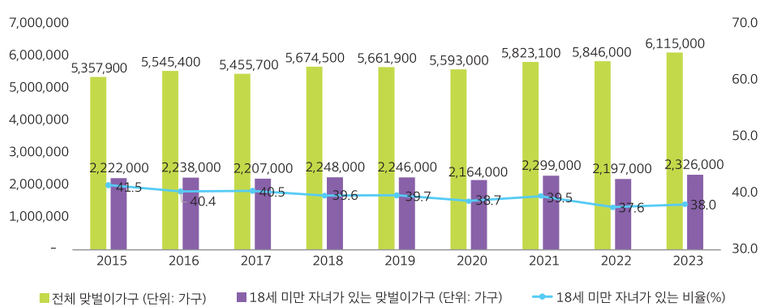


단위(천가구, %)

주: 1) 맞벌이 가구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가구주와 배우자)가 모두 취업자인 가구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 전국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비율(2015-2023년)

▶ 전국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38.0%(232만 6,000가구)입니다(2023년 기준). 즉, 맞벌이 가구 중에는 무자녀이거나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보다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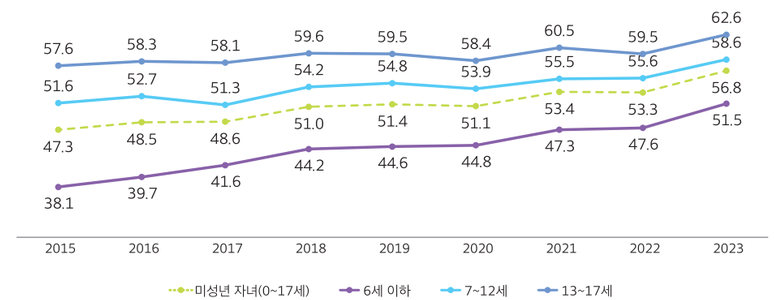


단위(가구, %)

주: 1)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 전국 막내 자녀 연령별 맞벌이 가구 비율(2015-2023년)

▶ 전국에서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대별로 보면, 전국에서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13-17세)인 가구의 62.6% > 막내 자녀가 7-12세인 가구의 58.6% > 막내 자녀가 6세 이하 자녀인 가구의 51.5%가 맞벌이 가구입니다(2023년 기준). 증가 추세를 보면, 막내 자녀가 영유아(6세 이하)인 가구 중 맞벌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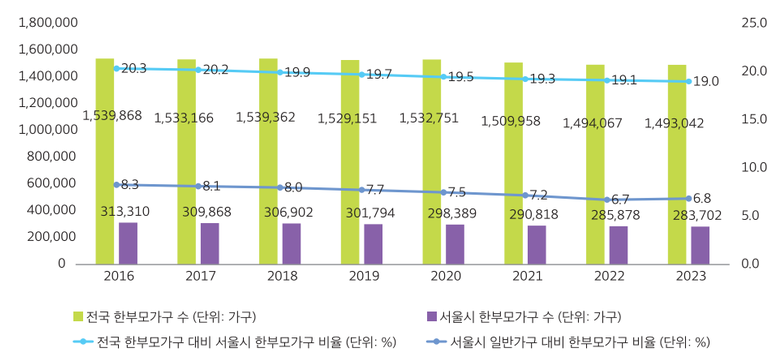
단위(%)

주: 1)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율임
2) 맞벌이 가구 비율 = (맞벌이 가구 / 유배우자 가구) × 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10월.

한부모가구

• 서울시 한부모가구 수(2016-2023년)

▶ 전국 한부모가구의 19.0%(283,702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6.8%에 해당합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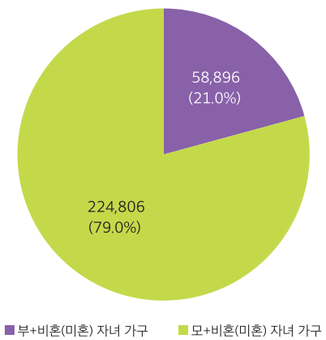


단위(가구, %)

주: 1) 한부모가구는 비혼(미혼) 자녀와 비혼(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비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로 이뤄진 가구를 의미함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한부모가구 부모 성별 분포(2023년)

▸ 서울시 한부모가구 중 79.0%(224,806가구)는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구이며, 21.0%(58,896가구)는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로 이뤄진 부자가구입니다(2023년 기준). 2022년에 비해 부자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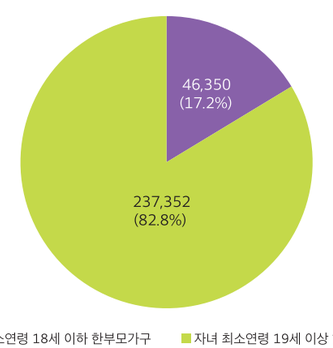


단위(가구)

주: 1) '부+비혼(미혼) 자녀 가구'는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로만 이루어진 가구, 아버지와 비혼(미혼) 자녀 이외에 기타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모두 포함함
2) '모+비혼(미혼) 자녀 가구'는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로만 이뤄진 가구, 어머니와 비혼(미혼) 자녀 이외에 기타 가구원으로 이뤄진 가구를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 서울시 한부모가구 자녀연령별 분포(2023년)

▸ 서울시 한부모가구의 82.8%(237,352가구)는 모든 자녀가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입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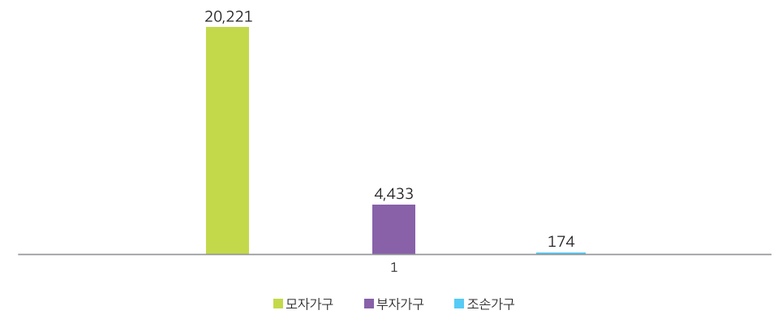


단위(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 한부모가구 유형별 서울시 한부모 수급 가구 현황(2023년)

▸ 서울시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는 2023년을 기준으로 모자가구가 81.4%(20,221가구), 부자가구가 17.9%(4,433가구), 조손 가구가 0.7%(174가구)를 차지합니다.



단위(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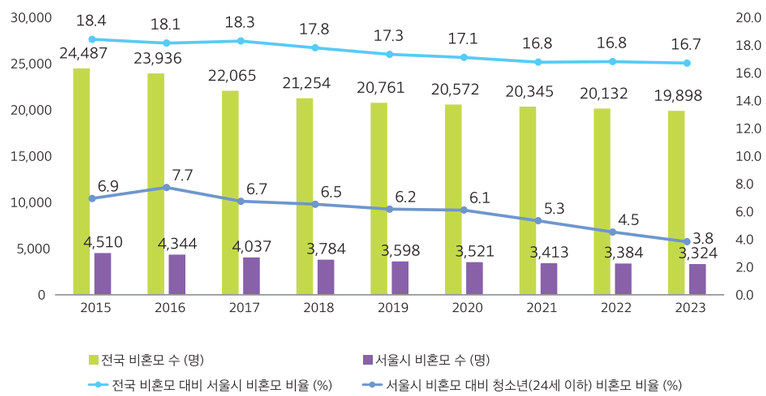
주: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 현황, 2023.

비혼모(부), 청소년모(부), 조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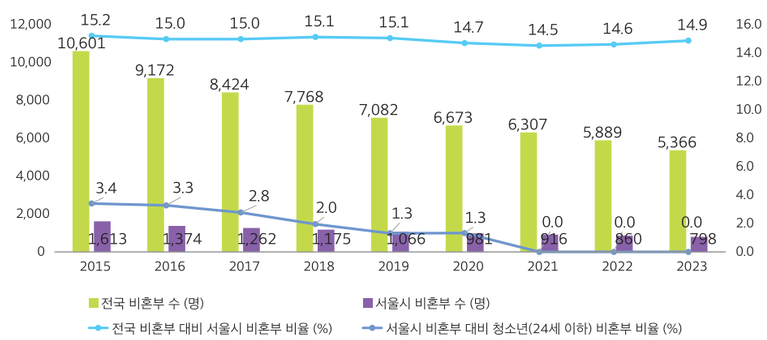
• 서울시 비혼모(부) 수(2015-2023년)

▸ 전국 비혼(미혼) 엄마의 16.7%(3,324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3.8%(127명)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비혼(미혼) 엄마입니다(2023년 기준).
전국 비혼(미혼) 아빠의 14.9%(798명)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4세 이하 청소년 비혼(미혼) 아빠는 없습니다.

서울시 비혼모 수(2015-2023년)



서울시 비혼부 수(2015-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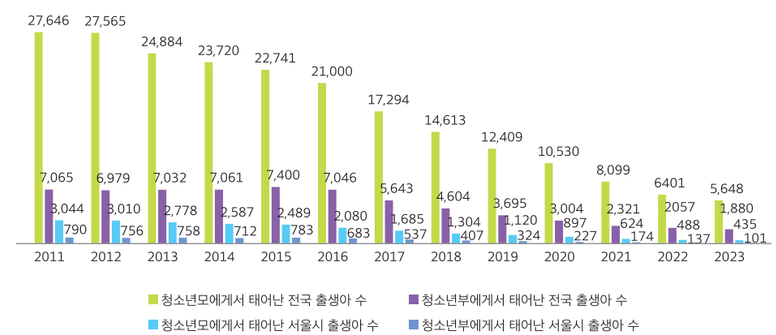
단위(명)

주: 1) 비혼모(부)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엄마 또는 아빠를 의미함
2) 청소년 비혼모(부)란 9-24세인 비혼모(부)를 의미함
3) 원자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료에서 5 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에 따라, 본 그래프에서 X는 0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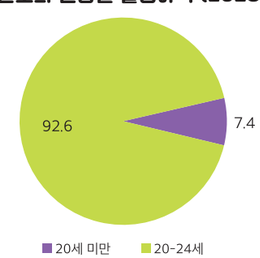
• 서울시 청소년모(부)의 출생아 수(2011-2023년)

▸ 서울시 출생아 39,456명 중 435명(1.1%)은 엄마가 청소년(9-24세)이고,
101명(0.3%)은 아빠가 청소년(9-24세)입니다(2023년 기준).
그러나 청소년 엄마, 아빠 중 미성년자는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엄마를 둔 출생아의 7.4%(32명), 청소년 아빠를 둔 출생아의 3.0%(3명)만이
미성년 엄마, 아빠를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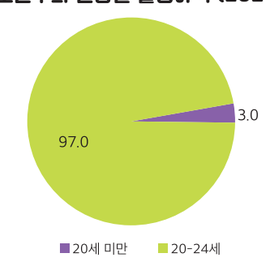
전국 및 서울시 청소년모(부)의 출생아 수(2011-2023년)



청소년모의 연령별 출생아 수(2023년)



청소년부의 연령별 출생아 수(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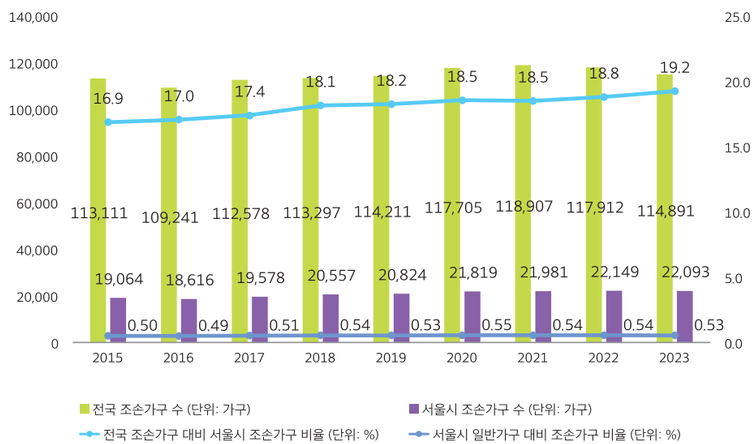


단위(명, %)

주: 1)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함(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본 그래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의 출생아 수 통계를 각각 제시함
2) 청소년모는 24세 이하인 모를 의미하며, 청소년부는 24세 이하인 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서울시 조손 가구 수(2015-2023년)

▸ 전국 조손 가구의 19.2%인 22,093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23년 기준). 서울시 조손 가구는 2016년 이후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총 일반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0.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위(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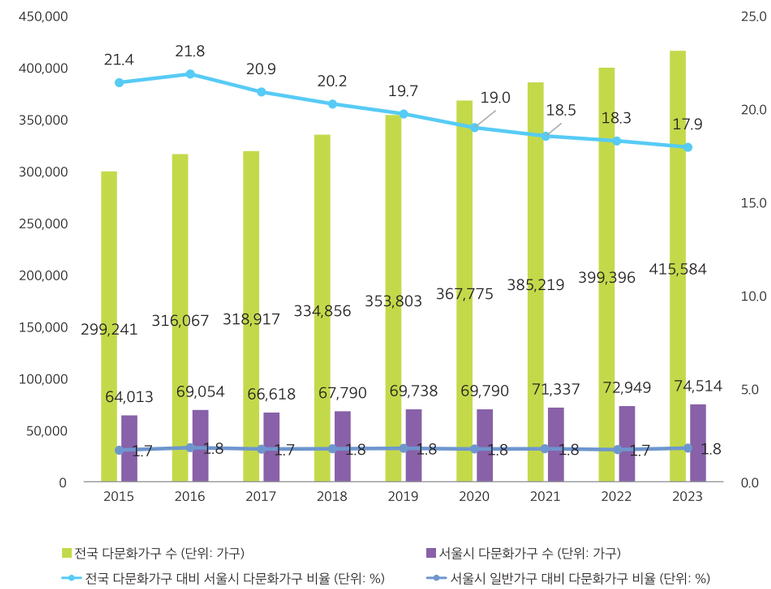
주: 1) 조손 가구는 (외)조부모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구(이하 (외)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와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한 명과 미혼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구(이하 '(외)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로 분류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다문화 가구

• 서울시 다문화 가구 수(2015-2023년)

▸ 전국 다문화 가구의 17.9%인 74,514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1.8%에 해당합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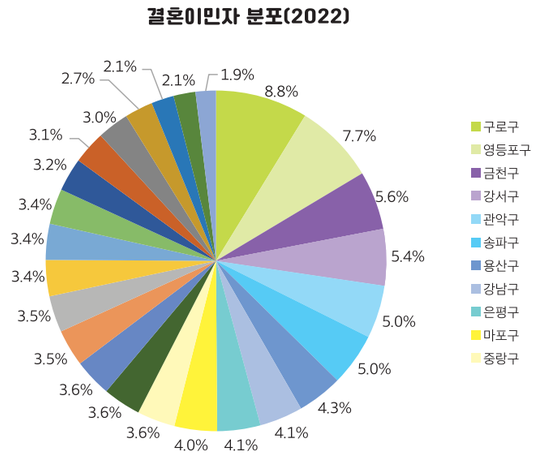
단위(가구, %)

주: 1) 다문화 가구란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혼인해서 이뤄지거나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결혼이민자 분포: 자치구별(2022년)

▸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용산구 등의 순으로 결혼이민자의 수가 많습니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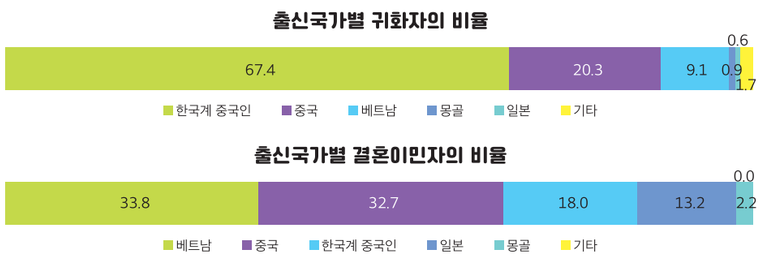


단위(명)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2.

• 서울시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출신국가별(2023년)

▸ 서울시에 거주하는 '귀화자'의 출신국가는 한국계 중국(67.4%) > 중국(20.3%) > 베트남(9.1%) > 몽골(0.9%) > 일본(0.6%)의 순입니다(2023년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베트남인(33.8%) > 중국인(32.7%) > 한국계 중국인(18.0%) > 일본인(13.2%) > 몽골인(2.2%)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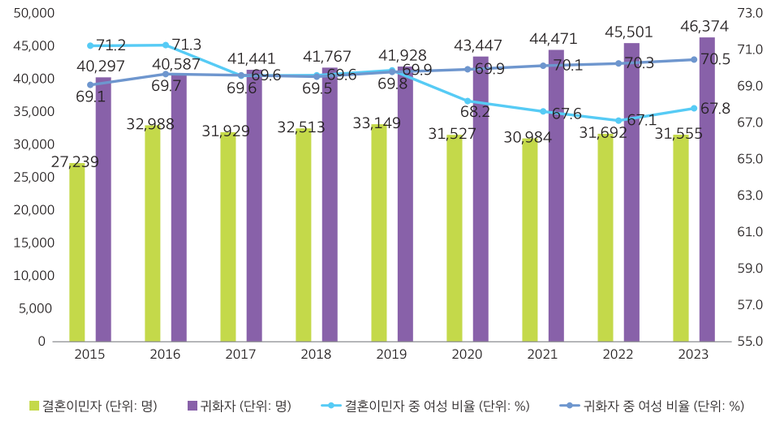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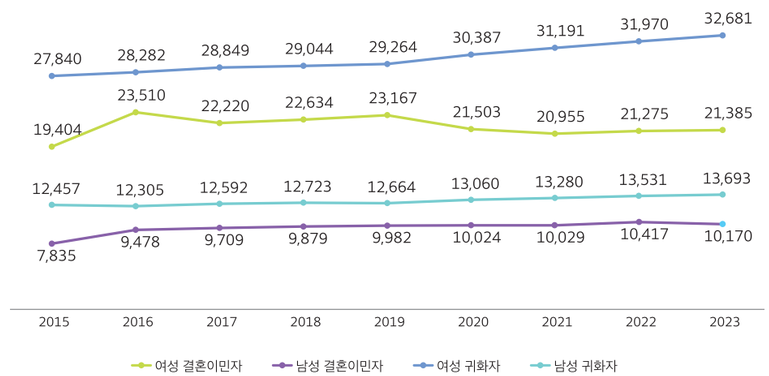
단위(%)

주: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 또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함
2)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2023

• 서울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수: 성별(2015-2023년)

▸ 서울시 다문화 가구의 구성원 중 결혼이민자는 31,555명, 귀화자는 46,374명입니다(2023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67.8%, 귀화자 중 70.5%가 여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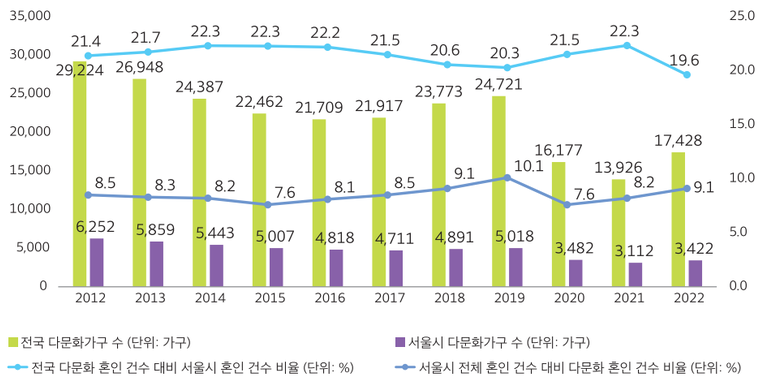


단위(명, %)

주: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내국인 또는 국적법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함
2) 귀화자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2012-2022년)

▸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의 9.1%인 3,422건입니다(2022년 기준). 서울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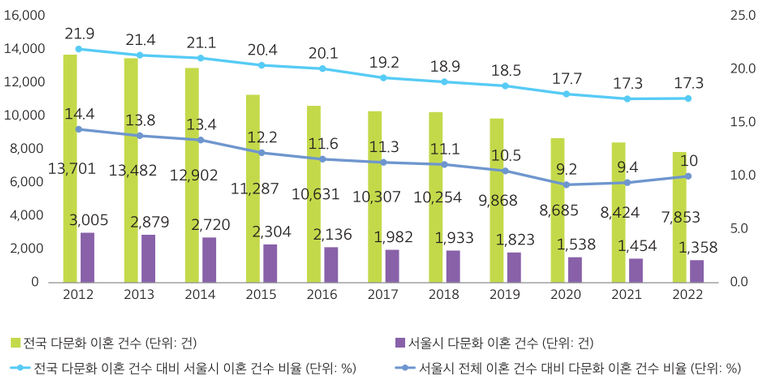


단위(건, %)

주: 다문화 혼인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혼인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2012-2022년)

▸ 서울시 다문화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10.0%인 1,358건입니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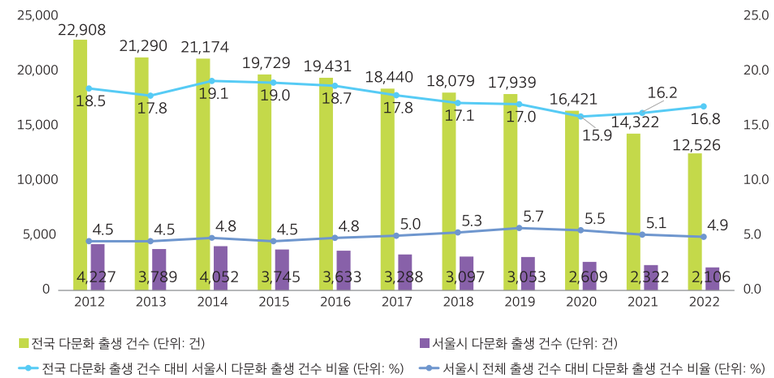


단위(건, %)

주: 다문화 이혼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이혼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2012-2022년)

▸ 서울시 다문화 출생 건수는 전체 출생 건수의 4.9%인 2,106건입니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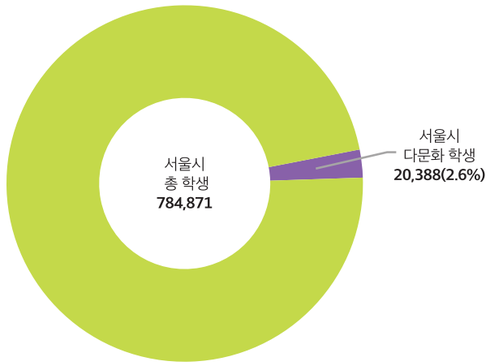


단위(건, %)

주: 다문화 출생은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외국국적자가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인구(개인)'별 출생사건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수(2023년)

▸ 서울시 거주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은 20,388명이며,
이는 서울시 총 초·중·고등학생 수의 2.6%에 해당합니다(2023년 기준).



단위(명)

주: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년별 학급수 및 학생수, 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2023.

•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분포(2023년)

▸ 서울시 다문화 초·중·고등학생 중 초등학생이 66.0%(12,779명), 중학생이 22.7%(4,393명), 고등학생이 11.3%(2,179명)를 차지합니다(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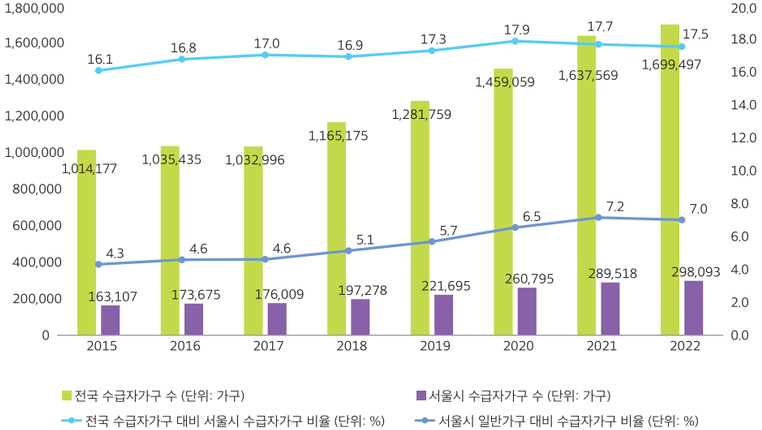
단위(명, %)

주: 1) 다문화 학생 수는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합으로 계산함.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며, 외국인 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함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학교(예. 대안학교 등) 학생 수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다문화(유형별) 학생수, 2023.

수급 가구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수(2015-2022년)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17.5%인 298,093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7.0%에 해당합니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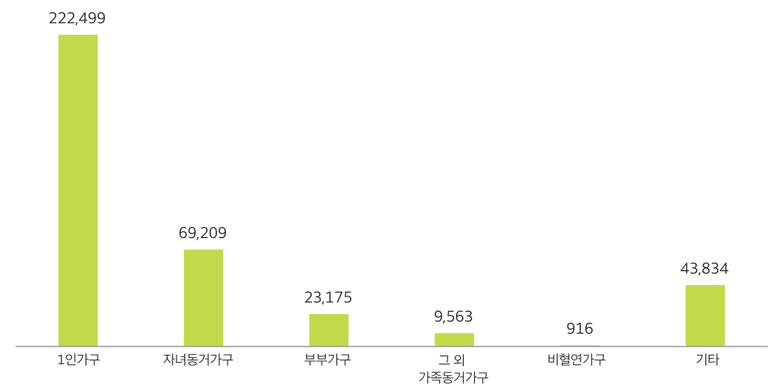


단위(가구, %)

주: 1) 각 연도 12월에 측정된 수치임
2) 저소득층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때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는 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이하 수급 가구로 용어 통일)이라고 함
3)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각 연도.

• 서울시 일반수급자가구 분포: 가구구성별(2022년)

▸ 서울시 수급 가구의 가구구성은 1인가구(222,499가구) > 자녀동거가구(69,209가구) > 부부가구(23,175가구) > 그 외 가족동거가구(9,563가구) > 기타가구(43,834가구) > 비혈연가구(916가구)의 순입니다(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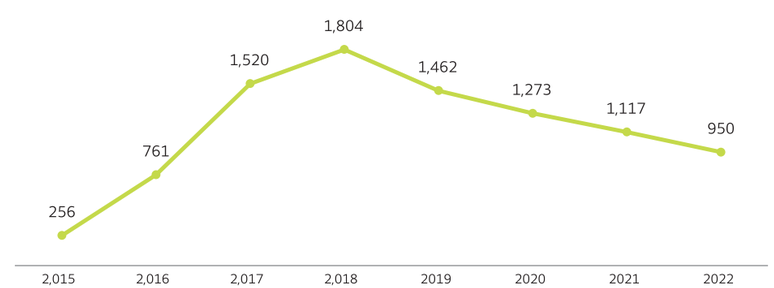
단위(가구)

주: 1) 부부가구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2) 비혈연 가구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3) 자녀동거가구란 자녀가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4) 그 외 가족동거가구란 자녀 이외 가족과 동거하는 가구를 의미함
5) 기타는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복지통계, 2022.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 서울시 여성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2015-2022년)

▸ 서울시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데이트 폭력 상담 건수는 2022년에 950건으로 201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단위(건)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운영실적, 각 연도.

• 서울시 가정폭력 검거건수(2000-2023년)

▸ 서울시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23년에 6,926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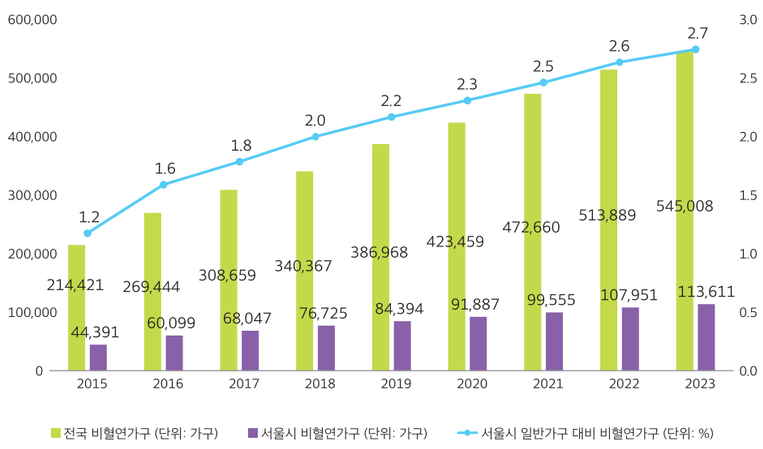
단위(건)

주: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임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치안통계, 각 연도.

비혈연 가구

• 서울시 비혈연 가구 수(2015-2023년)

▸ 전국 비혈연 가구의 20.8%(113,611가구)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일반가구의 2.7%에 해당합니다(2023년 기준). 서울시 비혈연 가구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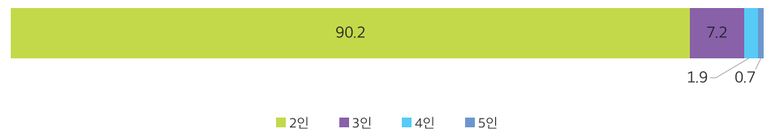


단위(가구, %)

주: 1) 비혈연 가구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임. 비혈연인 6인 이상의 가구는 집단가구로 따로 분류함
2) 일반가구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 이외에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비혈연 가구)를 포함함. 일반가구 내 외국인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서울시 비혈연 가구 가구원 수(2023년)

▸ 서울시 비혈연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이며, 2인으로 구성된 비혈연 가구가 9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2023년 기준).



단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3.

부록 2

2015-2023 서울가족보고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 시민의 가족 현황 및 가족 관련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2023 서울가족보고서

2022 서울가족보고서

2021 서울가족보고서

2020 서울가족보고서

2019 서울가족보고서

2018 서울가족보고서

부록 3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돌봄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총괄하는 서울시가족센터(광역)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가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누리집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광역기관)	1센터) 중구 소파로4길 6 2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플라자 지하 2층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www.gangnam.go.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634, 3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1센터)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복지기념관 3, 4층 2센터)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광진구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 구의2동 복합청사 3, 4층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 3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 7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동작구	1센터) 동작구 매봉로 37 2센터) 동작구 신대방1길 42, 3층	02-599-3301	dchfc.familynet.or.kr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 2층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ng.familynet.or.kr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4, 5층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6길 9(홍익동)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sbfc.familynet.or.kr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065-3400	ychc.familynet.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846-5432	ydpfc.familynet.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 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2024
서울가족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기획·편집	서울시가족센터 가족서비스과
집필진	이재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신하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지훈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강주현 (숙명여자대학교 가족학과 석사과정)
	김민식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4. 12.
편집 · 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246-10
ISSN	3022-4160 (Print)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